

리는 상태입니다.

(2) 또 경기도를 비롯해 각 도에서 계획한 비행기 헌납은 이미 헌금의 예정액을 초과하였고, 불원간 애국 조선의 각 도기(道機)가 여러분이 분투하는 제1선에 보내져 반도 2천만민의 혼이 여러분과 혈전을 함께 할 것입니다.

(3) 또 각지에는 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되어 관민이 협력하여 출정군인가족의 생활안정과 위문 등 정신적 물질적 양면에서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철도 해운 기타 운수기관도 원활히 운행되고 있고, □□에서조차도 부자유스럽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사수송에 앞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 또 여러분 출정군인의 가족은 최근 당 회에서 방문한 상황에 의하면 경성에서의 소부분입니다만, 모두 건전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군국 일본의 군인 가정으로서 천청(天淸)함에 감탄할 뿐입니다.

(6) 또 종래에는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내지 예수교, 천도교 등으로 평가받는 자들도 이제는 미나미 총독이 제창한 거국일치론에 완전히 합류하여 모두 적극적으로 애국운동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 회처럼 회원의 대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반국가적 사상분자로서 코민테른의 오랜 기만정책을 애상(愛想)하다가 최근에 일본정신인 국가주의로 전향한 자들입니다. 이번 사변에 즈음하여 애국의 첫 목소리를 외치며 솔선하여 총후의 임무에 작은 힘을 다하고자 분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련이 설령 어떠한 책동을 하더라도, 열국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조선 내의 인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모두 귀하를 비롯한 황군의 충용 및 일반 내지인 동포의 애국의 적성이 결국 2천만의 심장을 자극하여 감분흥기(感奮興起)한 것입니다. 조선인은 이번 사변을 통해 폐하의 적자로서 국민적으로 각성할 기회를 얻은 것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본국민은 동양평화의 기업(基業) 성취를 위해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명을 떠안았습니다. 조선인 2천만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면 만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이상과 같습니다. 귀하를 비롯해 제1선 출정 장병을 지키려는 총후의 결속은 더욱 견고해져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선일체가 되어 협력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무런 염려 없이 전투에만 전념하여 황국을 위해 혁혁한 무훈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본년은 각 도 모두 천후가 순조로워 농산어촌이 풍작입니다. 농민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민중도 생기가 넘쳐흘러 각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여러분의 분투 소식을 일언일구 빠지지 않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시국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견인지구하여 더욱 애국의 지성을 바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고 방가(邦家)를 위해 분투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37년 9월 26일

경성부 중학정 1번지

대동민우회

대표 안 준 배상

---

2) 출정 군인의 무운(武運)을 빌기 위해 천 명의 여자가 한 장의 천에 붉은 실로 한 땀씩 매듭을 뜬 것.

## 경성에서의 출정군인 가정 청취보고(제1회)

(1) 본회는 금년 7월 27일부터 9월 15일에 걸쳐 출정군인가정의 위문을 위해 경성의 209개 가정을 방문하였다. 이것이 제1회이다.

(2) 각 가정은 소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생활이 안정되어 별반 이상이 없고 대부분 중류 이상의 생활이다.

(3) 각 가정은 시국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차분한 상태로 일본이 필히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다. 즉 모든 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단이나 불단 등으로 단지 출정군인의 무운장구를 빌고 있었다.

(4) 또 출정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라도 갖는 공통이자 당연한 책무로서 언제라도 각오하고 있는 듯하다. 가족들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비교적 냉정히 각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방문을 오히려 의외로 생각하여 감사의 말을 건네고 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현관 앞에서 위문의 말을 건넰을 때 마침 전사(戰死) 통지가 도착하였는데, 가족은 이전부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며 눈썹하나 흔들리지 않고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도 영겁결에 머리를 숙였다.

(5) 이러한 신념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이를 표면상으로 나타내지 않고 슬픔과 비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어느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어떠한 인고결핍도 참아내고 어떠한 노동이라도 굴하지 않고 근로자활하려는 의지에 불타고 있다. 유약한 부녀자까지도 깨끗한 응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실로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 일본군이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6) 출정군인 가족에 대한 원호의 열성은 각 마을 모두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집주인은 집세를 면제하고 병원은 치료비를 면제함은 물론, 어떤 한 집안을 모두 부양하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이 서로 도우면서 집안일에 부자유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눈물나는 사연이 많은데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또 본회가 보낸 작은 위문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를 □□□□ 않도록 염려하였다.

(7) 특히 우리의 위문에 대해서는 조선동포이기 때문에 더욱 감격하여 집안 모두가 환영하고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항상 전하였다. 어떤 노부인은 우리의 젊은 모습을 보고 출정한 자식을 생각했을 것이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며 다과를 주면서 환대하기도 하였다.

이들 가정에서는 우리가 국민적 태도와 동포적 성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진정으로 감사하고, 마치 먼 곳에서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척을 대하는 것처럼 맞이해주었다. 이렇게 위문과 인사말을 나누면서 출정자의 안전을 함께 비는 순간에는 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혈통이 다른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소위 동포감이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대동민우회 사회부

〈출전: 「大同民友會の結成并其の活動概況」, 『思想彙報』 第13號, 1937년 12월, 37~86쪽〉

### 3.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1284호

1938년 6월 4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병원 검사정 귀하

#### 전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에 관한 건

동우회 사건 관계 기소유예자의 동향에 대하여는 항상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사상 선도에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영도(鄭永道)는 지난해 8월 하순, 경성부 중학정(中學町) 1번지 소재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에 가입하고 동 회의 감화를 받아 갑자기 전향하였다. 그는 별도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구미의 지인에게 이번 사변에 대한 일본제국의 입장을 천명한 통문(通文)을 발송하고, 또 국방헌금, 출정황군의 환송영 등 충후봉국(銃後奉國)에 노력 중으로 그 성적은 아주 양호하다. 이에 비추어 나머지 기소유예자도 소괄 종로경찰서로 하여금 대동민우회와 연락하여 동 회에 가입시키고자 5월 상순 이후 앞에서 말한 정영도를 통해 하여금 김지담(金志淡), 하경덕(河敬德), 김로겸(金魯謙), 유형기(柳瀼基), 전영택(田榮澤, 김흥제(金興濟), 차상달(車相達)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입회를 권유하였다. 그 결과 모두 가입해, 이와 동시에 전향 성명서를 발표할 태도를 선명(宣明)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성명서 작성 준비 등을 위해 지난 5월 31일 대동민우회 사무소에서는 차재정(車載貞)의 사회 하에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이각중(李覺鍾), 차재정(車載貞), 김동일(金東日), 안준(安俊), 이효진(李孝鎭) 및 신입회원인 전영택(田榮澤), 김흥제(金興濟), 차상달(車相達), 김지담(金志淡), 하경덕(河敬德), 김로겸(金魯謙), 유형기(柳瀼基) 등이 회합 협의한 결과, 전향 성명서는 수 만장을 인쇄하여 각 방면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그 기초위원으로는 김흥제(金興濟), 전영택(田榮澤), 차상달(車相達) 3명을 선임하고 곧바로 기초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기타 동우회원들도 순차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로 합의하고 산회하였으며 계속해서 주의 중이다.

이상 보고한다.

〈출전: 「元同友會員ノ大東民友會 加入ニ關スル件(京高特秘 第1284號)」, 1938년 6월 4일〉

#### 4. 「전향문제의 검토」라는 제목의 인쇄물 발송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15호

1937년 1월 9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 「전향문제의 검토」라는 제목의 인쇄물 발송에 관한 건

경성부 중학정 소재 대동민우회에서는 작년 12월 7일 동 회 종신고문 이각중(李覺鍾) 및 조직선전부장 차재정(車載貞)이 합작하여 만든 「전향문제의 검토」라는 제목 아래 사상전향의 유형을 해부한 별지와 같은 논문을 다음 각 소 앞으로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대동민우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향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소위 아전인수적인 느낌도 있지만 일단 수궁할 점이 있어 참고하기 바란다.

이를 보고 통첩(달)한다.

기(記)

경성복심법원 오카모토(岡本) 검사장  
경성고등법원 무라타(村田) 진사  
총독부 법무국 모리우라(森浦) 행형과장  
총독부 법무국 나카야마(中山) 법무과장  
총독부 경무국 단계(丹下) 보안과장  
총독부 경무국 후루카와(古川) 도서과장  
조선헌병대사령부

#### 전향문제의 검토

##### 1. 전향의 극의(極義)

여기에서 말하는 ‘전향’이란 사상적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의 뜻과 같이 하나의 사상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사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에게 인식되고 있는 소위 ‘전향’이 지시하는 내용은 엄밀히 말해 진정한 의미의 전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공산주의

자의 전향은 그 한계가 아주 애매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의 전향의 실정에 비추어 그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 및 조직적 진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절연(絶緣)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사상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내지의 공산당 및 조선의 그것은 당국의 취체가 엄중하여 최근에 이르러 거의 면멸(眠滅) 상태에 빠져 당원의 활동은 강제적으로 중절(中絶)되기에 이르렀다. 당의 영향 아래 있던 여러 대중조직은 궤멸되거나 존재하기 어려워 합법영역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 및 개인의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로부터 국민주의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은 소위 '반동시대'로 이러한 시기(時機)에 대처하는 공산당의 전술은 '퇴각'과 '수세'로 대형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지와 조선의 오늘날의 공산주의운동은 이러한 퇴각과 수세의 잠복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전향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실상이다. 단체 또는 개인이 비합법에서 합법으로 전환을 표명하더라도 이 또한 좌익적 합법전술의 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근본적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처럼 탄력성이 풍부하고 신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리프크네히트(Liebknrecht, Wilhelm)<sup>3)</sup>가 말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24시간 이내일지라도 당의 강령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전향을 논할 때 가장 경계할 점은 피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소위 적응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전향을 인식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는 먼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파악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사상의 체계는 하나는 사회과학체계이다. 즉 철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등 각종 형이상학적 부문과학을 종합으로 엮은 하나의 종합체계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는 영국의 경제학과 프랑스의 유물론 그리고 독일의 헤겔철학 등에 대한 검토와 비판 위에서 종합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오늘날 인류가 지닌 최신평(最新最銳)의 사회과학체계이다. 따라서 오늘날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인텔리 계층에 속한 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파악 과정은 아주 과학적인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들은 먼저 공산주의사상을 과학으로서 연구하고 과학적 진리로서 파악한다. 사상이 과학적 체계를 품고 있다는 것은 진리추구의 열정에 불타는 젊은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이는 최대의 매력이다.

이러한 사상체계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과학적 파악을 시도한 자는 비판적 노력을 관념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 한, 그 사상적 청산극복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계층에 속한 자는 전향을 표명하더라도 단지 '활동의 중지'에 머물러 그 이상의 적극적 태도는 기대할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는 내지에서 이론적 학구의 전향표명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 체험을 풍부히 지니고 진정으로 구체적 사회개혁의 노력을 계속한 자는 진정한 의미의 사상적 전환이 가능하다. 그들의 추상적 진리를 구체적 조건과 구체적 사물 위에서 전면적 실천을 시도함으로써 진리의 구체적 평가의 표준을 획득할 수 있다. 모든 진리의 표준은 실천에 있다. 실천과 이론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진리가 아니다.

3) 독일의 사회주의자(1826~1900). 리프크네히트(Liebknrecht, K)의 아버지로 3월 혁명에 참가하였다가 런던에 망명하여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고, 귀국 후 베벨과 함께 독일 사회 민주 노동당을 창립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전향자로 내지에서는 사토 마나부(佐藤學)를 중심으로 한 일파가 있고, 저선에는 대동 민우회가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운동의 활동의 중지를 표명함으로써 관현의 취체와 추구를 모면할 방편으로 삼는 비겁한 태도에서 나온 소위 '전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진리 추구의 태도와 사회개혁이 정념에 불타 과거의 공산주의적 실천의 경험에 비추어 그 오류와 결함으로부터 탈각하고 구체적 국정(國情)에 적응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이론적 실천적인 발전과 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전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상적 방향전환을 이루었다고 말해야 한다. 즉 공산주의적 사회개혁사상으로부터 국가주의적 사회개혁사상으로 하나의 사상으로부터 다른 별도의 사상으로 비약한 것이다. 특히 조선인에게는 계급성과 민족감정이라는 이중의 청산난(清算難)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지에서의 유업시민(有業市民)으로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전향을 완성한 것과는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하 조선의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전향 상태'를 분해하여 전향의 한계를 천명하고자 한다.

## 2. 전향자의 유형

여기에서 통칭 사상전향자를 대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잠행운동자

당국의 엄중한 취체와 좌익진영의 궤멸로 인해 종래와 같은 표현전법(表現戰法)으로는 도저히 유지 발전을 기도할 수 없으므로 표면상으로는 좌익운동을 일단 청산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교묘한 의장(擬裝) 잠행전법을 통해 개인적 연락 혹은 대중에게 선전조직을 시행하는 전위(前衛)의 결속과 당의 갱생을 위해 획책 활동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소극형 전향자와 일상 행동에서 아무 다를 바가 없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생활양태 아래 보호색을 추구한다. 이들은 단지 정세의 유리한 전환과 활동 시기의 도래를 기다릴 뿐, 애초부터 전향자가 아니다. 적절히 관현에게 전향을 맹세하지만 이를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관현의 호의와 편의를 연락을 위해 역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이런 유형의 자들은 이름은 전향자이지만 오히려 잠행운동자라고 보는 편이 올바르다.

### 2) 중간파적 기회주의자형

이러한 유형의 전향자는 앞의 유형과 다음에 말하는 제3유형의 중간에 위치한다. 실천적 행동으로부터는 의식적으로 경원(敬遠) 회피의 태도를 취하면서, 사상에서는 여전히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분위기 속에서 호흡한다. 제재를 피할 정도의 사상자유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필(舌筆)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발산을 시도하고, 은연중에 공산주의운동의 정신적 동정자(Sympathyzer)의 지위를 고지(固持)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일반 민중에 대한 성망(聲望)과 신뢰를 유지하고, 또한 한편으로 관현의 회유 상치(償值)를 높이려는 자들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적지 않다.

이들도 형세가 유리하게 바뀌면 과감히 실천행동의 궤도(軌道)로 옮겨가겠다는 마음자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일상생활은 지극히 평온하며 지식층의 문필가가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이 부류에서는 진정한 전향자를 찾기 어렵다.

### 3) 시민형

이 유형의 전향자는 대개 지식층에 속하지 않는 실천가가 많은 조선 특유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입(轉入)하여 활동한 자 또는 깊은 이론의 뿌리를 파악하지 않고 부질없이 민중운동에 광분한 자 등이 최근 정세의 불리와 자기정력의 쇠퇴, 가정의 계루(係累)로 인한 생활난 등 사방의 환경에 쫓겨 이론적 비판의 과정보도 별도로 경험하지 않고 단지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와 개인생활의 영위를 위해 여생을 보내겠다는 유형이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대신할 어떠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나 기개를 갖지 못한다. 전향자라기보다 오히려 자연적인 탈락자이다. 이들은 순순히 관현의 지도 유액(誘掖)에 따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다지 큰 위험성은 없다. 이들 중에는 중년 이상인 자들이 많은데, 젊은 계층으로서 이 유형에 속한 자는 그 장래를 보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식에 의한 비판력이 결여되어 교사(敎唆)와 선동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또 종교에 귀의하여 새로운 정신생활로 들어선 자 또는 여성으로서 결혼하여 가정생활에 안주한 자 등은 대체로 이 유형의 전향이라고 보아도 좋다.

### 4) 의장(擬裝) 시민형

이 유형은 외관상 앞의 세 유형과 아주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즉 중간과가 다소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 의장 시민형은 적극적으로 ① 관현에 대해서는 확고히 전향을 약속하여 그 보호 구제를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일단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구래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아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뇌를 느껴 결국 본래의 의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은 암암리에 계속하여 대기(待機)의 자세를 취하면서 대중의 우익화 방지에 노력하고, 대중을 향해서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세의 불리에 따른 활동 휴지(休止) 시간을 이용하여 후일을 준비하고자 가족생활의 안정과 뒷날의 염려를 줄이려는 노력한다. ② 심경은 이미 주의를 청산하여 오히려 앞의 시민형에 가깝지만, 행동으로 전향을 표명할 용기가 없어 여전히 그 입장을 지속하는 자가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의자로서 시민으로 가장하는 자, 시민으로서 주의자를 가장하는 자 등이다. 이들은 대개 전향 표명을 꺼려하며 이미 획득한 대중적 지반에 항상 무언의 명령과 지도 영향을 행사하려 한다. 물론 이는 이들이 인심의 귀추를 잘못 파악한 결과로써 일단 변국(變局)을 만나면 분명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 이 유형의 대다수는 지방운동자로 이들 가운데는 종래 관현의 지도와 보호를 이용한 자들도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지도와 보호는 그 심경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일단 생활이 안정되면 오히려 사상이 견고해져 쉽게 바뀌기 어려운 예가 많다.

### 5) 청산파적 합법주의형

이 유형은 대개 사상적으로 동요하고 더구나 적극성을 띤 자들이다. 즉 과거의 비합법성을 완전히 청산하여 현하 정세에 적응하는 합법영역에서의 활동에 만족하는 자들이다.

이 유형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상적 정치적 근거를 여전히 공산주의에 두면서 일시적으로 현실적 합법성을 유지하려는 자와 또 하나는 합법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로 이행하려는 자들이 있다.

전자는 물론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후자는 인민전선을 운운하는 오늘날 그 내용에 따라서는 혁명적으로 위협하다. 이는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 사회당의 현현(顯現)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민족주의자 분야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같은 자치를 주장하지만, 독립을 위한 과정적 단계로서 자치를 주장하는 자와 국민적 자치(내선양족합동)를 주장하는 자도 있다. 양자는 모두 앞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경우와 동일한 귀취가 예상된다. 즉 일단 시국이 변하면 양자의 향배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회당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 6) 신사회 개혁 체계로서의 적극형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사상은 하나의 사회과학 체계이자 생존 약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투쟁의 학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외치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럴만한 주장이 있고 정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란 하나의 추상적인 사상체계로 구체적 사회 예를 들면 일본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결함이다.

자본주의 발달의 양상은 '세계를 자신의 영상(影像)과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세히 검토해보면 각국 자본주의에는 각각의 실정과 국민적 특성에 따라 어떤 독특한 발달의 경로와 양상을 겸비하고 있다. 이는 즉 구체적인 사물이 지니는 구체성이다.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일반적 사상개념은 일반 자본주의의 추상개념을 토대로 구축한 체계로서 일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보편타당성을 지니지만, 구체적 적용의 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사회의 현실과 공산주의의 추상개념과의 사이에는 중대한 저어(齟齬)가 조래하였다. 이 때문에 각국의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는 이러한 결함을 막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히 일본과 조선처럼 구주와 실정이 다른 나라의 지도에서 코민테른은 완전히 실패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일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은 단순한 사상 선전 시기에 머물러 구체적 정치수행의 영역으로까지 발달하지 않는 동안은 항상 순조로운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단 구체적 행동의 전개 단계에 들어서면 많은 곤란에 직면하였다. 그 원인은 대개 그 나라의 사회실정을 너무나도 무시하면서 추상적 공식을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려는 잘못 때문이다. 즉 현실조건은 공산주의의 개념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흡수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률적으로 공산주의 개념에 현실을 맞추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운동을 실천하면서 심각하게 이러한 결함을 체험한 자로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그 오류를 청산 극복하여 새로운 개혁체계를 발견하고자 시도하려는 이러한 유형이 생겨났다.

이들 유형은 자본주의의 결함도 공산주의의 장점과 단점도 모두 이해하여 그 나라의 실정이 필요로 하고 사회의 체질에 가장 적절한 부분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구체적 체계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사노 마나부의 최초의 전향성명의 요지 또는 대동민우회의 선언 강령과 같이 내용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지만, 그 본질에서 일본이라는 사회를 개혁하려는 방략이자 사상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이는 일본이라는 구체사회에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회실정과 국민의 전통 기타 일본의 특수성에 입각한 사회 개혁안(改革案)에서 생긴 다른 전향의 형태와는 그 범주가 다르다.



대동민우회의 소설(所說)에 따르면 '오늘의 일본'은 '내일의 일본'의 건설을 통해 구제될 동양적 왕도주의를 기조로 하는 대국가의 실현은 모든 민족적 계급적 모순과 알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조선은 피정복민족이 아니라는 공동목표를 통해 비로소 내선 양 민족은 도의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국가의 각 부분도 왕도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포섭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국가주의 사상이야말로 모든 개혁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체계는 공산주의와 민족자결주의를 모두 청산하는 것이 조건이다. 즉 대동민우회의 선언 약법(約法)에서 명시한 것처럼 대국민주의는 일면에서는 대민족주의이자 대문화주의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근상일가(槿桑一家)의 이상은 내선 양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고, 나아가 대민족을 결성하고 대문화를 창조 발양하여 세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헌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내일의 일본'의 영광과 일본국민의 발전, 아시아 제민족의 행복이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개혁사상의 근저이자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대신할 새로운 사상, 즉 대국가주의 이상을 품고 공산주의운동에 바쳐온 만큼의 정열과 희생적 정신으로 국가의 번영과 동포 민족의 행복을 염원하는 태도야말로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것을 전향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 적극형, 즉 대동민우회형과 같은 전향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비판과 자기반성의 과정을 경험한 새로운 목표의 건립으로 과학적 사상에서 나온 전환과정으로서 가장 정상적인 경로이다. 특히 조선 사회운동의 역사적 귀결은 여기에서 진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또 대동민우회가 아니더라도 전향을 사회에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다음 행동으로 나서는 소위 전향행동파는 대개 이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전향자는 새로운 사상의 방향 즉 새로운 인생관, 민족관, 사회관, 국가관 내지 세계관으로 살아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의 좌익세력에 대항투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성장발달을 이룩할 수 있다. 전향의 발걸음은 대담명료(大膽明瞭)하고 더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곧바로 나아가 공산주의 기타 모든 반국가적 사상 계열을 배격함으로써 종래 좌익의 영향 아래 있던 대중을 정상적인 길로 되돌린다는 적극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염원과 순정에 의거하여 분기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추구를 추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도 나오는 길이다.

음험한 콤플렉스 아래 기회를 엿보는 의장(擬裝) 전향자나 전향을 매물로 삼아 생활밑천을 구하는 룸펜적인 탈락자, 기타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을 현혹하는 일을 상습으로 삼는 무리의 발호는 오히려 진정한 전향자에게 화를 입히고 나아가 국민의 선량한 부분에 해를 입히는 비전향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이들이 존재한 것은 주관적 원인, 즉 종래의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도의심을 만족시킬 새로운 목표와 이상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객관적 정세가 전향에 불리하다는 것도 그 원인의 일부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출옥 명사(名士)를 일시적으로 신문도 크게 보도했고, 민중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를 환영하고 향당(鄉黨)은 이를 지사(志士)로 존경하였다. 최근에는 관헌의 취체가 엄중하여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감퇴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은연중에 지반을 보유하고 득의(得意)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태도 상세(狀勢)를 바꾸지 않고 게다가 관현의 보호가 더해지면 그들은 무엇이 괴로워 전향을 표명하겠는가? 보호에 따른 약간의 간섭이 따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 동정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전향의 비애만을 생각할 것이다. 사상보호관찰법의 실시가 만약 조금이라도 운용이 잘못되면 위와 같은 폐해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출전: 「轉向問題ノ檢討ト題スル印刷物發送ニ關スル件(京高特秘 第15號)」, 1937년 1월 9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3)〉

## 5.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1284호-1

1938년 6월 4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경성보호관찰소장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6월 4일자 경고특비 제1284호(국 검사정 만) 개제(改題) 전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의 건에 대해서

동우회사건 기소유예자 김지담(金志淡), 하경덕(河敬德), 김로겸(金魯謙), 유형기(柳潑基), 전영택(田榮澤), 김흥제(金興濟), 차상달(車相達) 등은 모두 전향을 표명하고 대동민우회에 가입하였다. 또 동시에 이번에 한걸음 더 나아가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자 기초위원으로 김흥제(金興濟), 전영택(田榮澤), 차상달(車相達) 3명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다. 이후 기초위원들은 계속해서 성명서를 기초 중이며, 이를 별지 복사와 같이 완성안을 만들었으나 다소의 추고(推敲)를 통해 인쇄한 다음 각 방면으로 배포하기로 하였기에 계속 주의 중이다.

이상 보고 통보(달)한다.

### 성명(심의용 초안)

불초(不肖)한 자들이 일찍이 흥사단 수양동우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현재 내외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종래부터 품어온 주의와 주장에 근본적 결함과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단연코 이를 청산하였다. 이번에 새로이 국민적 자각 아래 대동 민우회에 입회함에 있어 불초한 자들의 거취와 동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우리가 새롭게 파악한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여 오랫동안 알아온 여러 형제에게 호소함과 아울러 널리 강호제현에게 참고로 이를 제공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현재 내외정세의 급격한 변전과 일본의 획세적(劃世的) 약진과 발전의 여러 계기는 우리 조선민중에게 민족장래의 발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견해와 자각 하에 민족적인 신운명을 함께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불초한 자들은 조선민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천명(闡明)하고 같은 뜻을 품은 인사들에게 묻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른바 ‘민족주의’의 관념에 둘러싸여 조선민중의 발전과 향상은 오로지 ‘민족자결’에 있을 뿐이라고 굳게 믿으며 과거 우리의 사상적 및 실천적인 모든 노력은 오로지 이 신조를 받들어왔다. 아마도 우리 조선인은 조선의 통치를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만 곡해하고 일본의 진정한 의사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동아시아적인 새로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수년 내 조선통치 상에 나타난 비약적인 모든 현상=조선민중의 향상발전을 주안으로 하는 진지한 시정, 특히 최근 미나미(南) 총독이 강조하는 내선일체의 목소리는 홀연히 우리의 지금까지의 미망(迷妄)을 각성하게 한다. 특히 이번 시국에 즈음한 내지인이 반도 민중에게 보이는 동포적인 신뢰와 ‘신일본’의 국가적 대이상 아래 조성된 혁신운동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의혹과 두려움, 불안을 충분히 일소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세계 대세의 추이를 바라보건대 많은 약소한 민족군(民族群)은 대국가의 지배하에 필연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정세에 있다. 현대의 여러 국민의 생활은 개인보다도 사회적으로 민족적 고립보다도 여러 민족의 단합과 협조를 통해 비로소 그 발전과 향상이 기대된다. 한 민족의 이른바 ‘독립’이라는 것은 이미 그 해당 민족에게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동적 고립을 의미한다.

하물며 지금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지도로서 일본정신의 세계적 선양을 이상으로 신동아시아 창조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신일본의 영광스러운 자태는 이른바 ‘식민지 조선’을 지양하고 조선을 신일본 구성의 유력한 절반으로 삼으려는 획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자결의 이상은 조선민중에게는 무의미하며 분명히 동아시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무시하는 반동적 관념이다.

지금이야말로 선내일체의 새로운 이상은 드디어 구체화되어 착착 실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는 이를 조선민중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로 인식하고 신일본건설의 국민적 공지와 포부 아래 그 일익적(一翼的) 임무를 다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민중의 장래에 영광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황도 일본의 내일의 모습을 생각하여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릇된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을 깨끗이 청산하고자 한다. 조선민중의 영원한 행복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핵심 주체로 삼는 신동아시아의 건설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는 바이다.

조선민중의 이해(利害)와 흥망성쇠는 일본 전체의 그것과 완전히 합치되어야 하고, 일본의 흥륭발전 또한 조선민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바라보건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은 동조동근(同祖同根)으로 예전에는 일체(一體)였다. 오늘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의 여러 조건은 앞으로 동일한 국민생활의 발전향상과 동포감정의 철저한 심화에 따라 차츰 소멸하여 머지않아 완전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일원화되는 것 또한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민족의 변화발전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여기로 귀결될 것이다. 피와

문화의 연원(淵源)을 하나로 하는 두 민족은 신동아사 창조의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일원(一元)의 민족으로서의 신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지키려는 가장 솔직하고 과감한 의기로 충만 되어 있다. 이는 실로 대동민우회의 근본정신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한층 분투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번 지나사변은 이미 다 알다시피 일본의 국가적인 대이상의 표현임과 동시에 아시아 여러 민족을 제압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전(聖戰)임이 틀림없다. 이를 믿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 거국일체(舉國一體)가 되어 목적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에 소신을 피력하면서 총후국민의 의식정화에 얼마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출전: 「同友會事件關係者ノ轉向聲明書 發表二關スル件(京高特秘 第1284號ノ1)」, 1938년 6월 14일〉

## 6. 대동민우회원의 죄담회 개최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1284호의 2

1938년 6월 28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 대동민우회원의 죄담회 개최에 관한 건

6월 4일자 경고특비 제1284호 전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의 건에 대해서

6월 14일자 경고특비 제1284호의 1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의 건에 대해서

경성부 중학정 1번지 소재 대동민우회에서는 지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동우회사건 관계자 등을 회원으로 획득하고, 또 한편으로 신회원 등이 전향성명서를 공표하고자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다. 이후 계속하여 동 사건 관계자의 입회를 권유한 결과 모두 18명이 가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동 회에서는 이들 신입회자의 환영을 겸하여 성명서 발표에 관한 타협 및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6월 23일 오후 8시 15분부터 회관에서 다음 23명의 회원이 모여 죄담회를 개최하였다. 석상에서는 먼저 이사장 안준(安浚)이 개회사로서 본회 개최의 취지를 말한 다음 출석자를 점호하였다. 이어서 안준은 “6월 23일 부민관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동 연맹은 학무국의 지도에 속하는데, 대동민우회도 발기단체의 하나로서 총무부장 차재정(車載貞)을 참가시켰다. 그리고 본회는 모든 것을 연맹에 바치기로 했음은 물론, 본회는 회 자체의 본분을 다함과 동시에 연맹

의 일원으로서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신입회원에 대해 전향성명서의 설명을 요구하자, 유형기(柳潑基)가 일어나 “우리 신입회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기초위원 3명(이미 보고)을 선정하였고, 여기에 이각중(李覺鍾)과 차재정 양 씨의 원조도 있어 상당히 훌륭한 성명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미 총독부의 검열도 거쳤으므로 이제 와서 내용을 운운할 필요가 없어 약 2천부를 인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발송처 및 우송비용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조선·만주·지나 방면은 신입회원의 보고에 의거하여 본회 사무소가 발송하고, 미국 및 하와이 방면은 유형기가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 발송비용은 모두 신입회원이 부담하기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위의 협의가 끝나고 더욱이 이종각은 오는 7월 1일 금요일 총독의 정례면회일에 신입회원 3명을 보낼 예정인데 누가 적당한지 자문을 구하자, 갈홍기(葛弘基)의 제안에 따라 이각중에게 인선을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광현(郭炫)의 제의에 따라 차재정은 신입회원 일동에게 대동민우회의 소사(小史)로서 동 회의 전신인 백악회(白岳會)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연혁 및 운동의 개황을 설명하고 오후 11시 10분 무사히 폐회 해산하였다.

위를 보고한다.

#### 기(記)

유형기(柳潑基), 김로겸(金魯謙), 갈홍기(葛弘基), 차상달(車相達), 하경덕(河敬德), 현제명(玄濟明), 정남수(鄭南水), 안준(安浚), 김연식(金演植), 광현(郭炫), 이교진(李教鎭), 진공섭(陳公燮), 조승환(曹昇煥), 이승원(李承元), 이각중(李覺鍾), 주련(朱鍊), 김동일(金東日), 최봉칙(崔鳳則), 이묘묵(李卯默), 홍난파(洪蘭波), 김기승(金基昇), 김흥제(金興濟), 차재정(車載貞)

〈출전: 「大東民友會員ノ座談會 開催ニ關スル件(京高特秘 第1284號ノ2)」, 『思想에關한靑報(9)』, 1938년 6월 28일〉

## 7. 전(前) 동우회원(同友會員)의 성명서

홍사단-수양동우회의 관계로 오래 종로구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다가 무사 석방된 좌기 18인은 금번에 시국에 자각한 바 있어 대동민우회에 가입하고 이러한 성명서를 세상에 공포하다.

#### 성명

불초 우리들이 일찍이 홍사단=수양동우회의 일원이던 바 현하 내외정세의 변전에 비추어 종래 품어오던 주의주장에 근본적 결함과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단연 이를 청산하고 이번에 신국민적 자각 하에 대동민우회에 입회함에 있어 불초 우리들의 거취와 동향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우리가 새로이 파악

한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여 구지제형(舊知諸兄)에게 알리고 널리 강호제현의 일고(一考)에 제공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현하 내외정세의 급격한 변전과 우 일본의 획세(劃世)적 약진발전의 제 계기는 우리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장래의 발전에 대하여 전혀 신견해와 자각 하에 신운명을 개척케 하기를 요구하여마지 아니하는 바가 있다.

우리는 종래 '소위 민족주의'의 관념에 둘러쌓여 조선민중의 발전과 향상은 단지 '민족자결'에 있을 뿐이라고 확고하게 믿어 과거의 우리의 사상적, 실천적 제노력은 전혀 이 신조 하에 받들어 왔다. 대개 우리 조선인은 조선통치를 '식민지정책'으로 곡해하여 제국의 진의와 내선 양족의 동아시아적(東亞史的) 신사명을 인식치 못하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래의 조선통치상에 드러난 비약적 제 현상 특별히 최근 미나미(南)총독에 의하여 강조되는 바 내선일체의 성(聲)은 홀연히 우리의 미망(迷妄)을 각성케 하는 바가 있다. 특히 이번 시국에 즈음하여 일본인이 반도 민중에 기대하는 바 동포적 신뢰와 신일본의 국가적 대이상 하에 온양(醞釀)<sup>4)</sup>되어가는 혁신기운(革新機運)은 금일까지 우리를 포회(抱懷)한 일체의 의구심과 불안을 일소하고도 남음이 있다.

현재 세계대세의 추이를 관찰함에 다수의 약소민족군은 점차로 대국가의 산하에 통합되는 필연적 정세에 있다. 제국민의 생활은 개인보다도 사회적으로, 민족적 고립보다도 제민족의 단원합작에 의하여 비로소 그 발전향상을 기약할 수 있으니 일민족의 소위 '독립'이라는 것은 이미 도리어 반동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동아시아 제민족의 지도자로서 일본정신의 세계적 선양을 이상으로 신동아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새로운 해당 민족에게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 오도 일본의 광영 있는 자태는 소위 '식민지조선'을 지양하고 조선을 신일본구성의 유력한 부분이 되게 하려는 획기적 제 현상에 비추어 종래 소위 민족자결사상은 이제는 조선민중에게는 무의미하고 동아시아 발전의 신방향을 무시한 반동적 관념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황도일본의 내일의 자태를 상상하여 우리의 종래 그릇된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은 깨끗이 청산할 수 있었다. 조선민중의 구원(久遠)의 행복은 내선(內鮮)<sup>5)</sup> 양족을 타(打)하여 일환으로 삼아 대국민일본인을 구성하여 이를 핵심 주체로 한 신동아의 건설에 있음을 드디어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에 조선민중의 이해휴장(利害休藏)은 전혀 일본 전체의 그것과 합치되고 흥룡일본(興隆日本)의 전도 역시 결코 조선민중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회고건대 내선 양족은 동근동조(同根同祖) 그 근원에 있어서 일체이었다. 오늘 이를 구분할 차이의 제 조건은 원래 이를 묵수(墨守)할 필요가 없다. 금후 국민생활의 발전향상과 동포감(同胞感)의 심화 철저에 따라 그 즉시 소멸하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일원화함이 또한 결코 불가능이 아니다. 분산에서 통일로 발전하여 나가는 인류사회발전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귀결케 하는 바 있다. 피와 문화의 연원을 같이하는 양족이 신동아시아 창조외의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완전히 일원화함은 실로 신(神)의 의사로 우리에게 부과한 숙명일 것이다.

4)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은근히 품고 있음.

5) 일본과 조선을 뜻함.

비록 그러하나 민족일원화의 이상은 조금씩 완성될 것이 아닌 고로 왕왕히 불가능함과 같이 생각하고 이에 반하여 민족자결주의는 오랜 타력(隋力)에 눌리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듯이 생각하는 일면이 있다. 금일까지 우리들이 민족자결주의에 현혹되어온 것도 필경 이 때문이오 다수인이 민족관념에 미련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이에 반하여 내선일체 민족일원화의 경향은 가까운 때 장족의 진보를 이루어 대세는 우리들의 호불호를 불문하고 더욱 이의 구현화를 요구하여 마지않는다. 그 현실은 필연적이오, 이미 시간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위와 같이 이론적 근거와 현실의 모든 경향을 기초로 하여 내선일체 완전한 일원화로써 조선 민중의 나아갈 유일한 방도를 인식하여 신일본 건설의 국민적 공지와 포부 하에 그 일익적(一翼的) 임무를 달성하는 것만이 진정 조선 민중의 장래의 광영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실로 대동민우회의 근본정신이오, 우리가 금후 일층 분투노력하지 아니하면 안될 사명이다. 즉 우리는 현재의 일체를 버리고 일체를 얻으려는 가장 솔직 과감한 의기에 충만하여 있다.

지금 지나사변(支那事變)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일본의 대 국가적 사명의 수행 아시아 모든 민족을 백인 제압의 질곡에서 해방하려는 목적의 성전이니 우리들은 금후 어떠한 희생도 꺼리지 않고 견인지구(堅忍持久) 거국일체(舉國一體)가 되어 목적의 관철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세상은 이미 적화공산의 참화와 개인주의 공리주의적인 백인 문명의 추악에 염증이 났다. 팔굉일우(八紘一宇) 도의적 결합으로 하는 동양정신 일본주의야말로 진정 동아를 구하고 세계 인류를 지도할 원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일본 정신의 사도(使徒)로서의 영예와 책좌를 맡은 데 감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 위와 같은 신념 주장 하에 자분(自奮) 노력하기를 기하는 바이다.

1938년 6월 18일

갈홍기(葛弘基) 김여식(金麗植) 김흥제(金興濟) 김노겸(金魯謙) 김기승(金基昇) 전영택(田榮澤) 정남수(鄭南水 : 英道) 노진설(盧鎭高) 유형기(柳潑基) 이기윤(李基潤) 이명혁(李明赫) 이묘묵(李卯默) 박태화(朴泰華) 차상달(車相達) 최봉칙(崔鳳則) 하경덕(河敬德) 현제명(玄濟明) 홍난파(洪蘭坡)

〈출전: 『機密室』—우리 社會의 諸内幕—前同友會員의 성명서, 『三千里』 第10卷 第8號  
1938년 8월, 13~28쪽〉

## 8.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경중경고비 제5200호의 4

1938년 7월 1일  
경성종로경찰서장  
경기도 경찰부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부내 각 경찰서장 귀하

###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6월 25일자 본 호에 대해서)

동우회 사건 관계자의 선도에 관해서는 미리 지시한 바도 있어 예의(銳意) 고려중이며, 경성보호관찰소의 취직 알선 등을 통해 과거의 오류를 점차 청산하여 전향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확연하다. 기소유예자의 한 사람인 정영도(鄭永道)는 석방 직후 대동민우회에 입회하고, 그 지도하에서 구미(歐美)의 지인에게 전향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반향이 아주 양호하다. 이를 감안하여 다른 관계자에게도 대동민우회에 가입할 것을 종용한 바, 김흥제(金興濟) 외 16명이 흔쾌히 입회하였다. 또한 지나사변 발발 이후 팽배하게 대두한 애국열에 자극 받아 일동 모두가 협의의 결과, 그릇된 사상을 청산하고 신일본 건설의 일익적(一翼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라는 성명서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 관계 방면에 발송하고자 기초위원을 선정하고 지난 6월 중순에 일단 성명서를 완성하여 가(假) 인쇄하였는데, 내용의 일부가 극히 미온적이라며 반대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원고를 다시 작성하고 총독부에 출판허가의 수속을 받은 다음 인쇄중인 바, 최근 인쇄가 종료되었다. 인쇄비와 우편료 등은 모두 신입회원이 부담하고, 내선 각지는 물론 미국, 만주, 지나 등에 재류하는 옛 친구와 조선 내의 각 단체 혹은 신문사 등에 곧 우송하여 사상전향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이상 보고(통보)한다.

(이하 성명서 생략)<sup>6)</sup>

〈출전: 「同友會事件關係者ノ轉向聲明書發表ニ關スル件(京鍾警高秘 第5200號ノ4)」, 1938년 7월 1일〉

6) 위의 성명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했다. 명단에서 인명표기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의 한글본(三千里 수록자료)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 9. 이각종(李覺鍾)파 대동민우회의 동정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1371호의 8

1936년 8월 22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 이각종파 대동민우회의 동정에 관한 건

8월 9일 타협위원회에서 김경식(金瓊植)파와 완전히 결렬한 이각종파는 앞으로 독자적인 입장에서 백악회(白岳會)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재출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8월 11일 오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경성부 중학정 1번지 이각종의 집에서 이각종, 안준(安浚), 박형남(朴亨南), 김완식(金浣植), 차재정(車載貞), 주련(朱鍊), 장인송(張寅松), 유공삼(柳公三), 김부산(金溥山), 진공섭(陳公燮), 이민희(李旻熙), 사현필(史鉉必), 이승원(李承元) 등 13명이 회합하여 대동민우회 창립준비회를 개최하고, 본 회의 강령 및 약법을 수차례 심의 수정하였다. 특히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민우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엄중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이 심사규정을 만들고, 심사위원으로 이효진(李孝鎭), 차재정, 주련, 박형남, 진공섭 등 5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8월 23일 부내 견지정(堅志町)에 소재한 시천 교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다음 폐회하였다. 이후 같은 달 17일에는 이각종의 집에 이각종 이하 12명이 다시 회합하여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준의 사회로 창립대회 소집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 결과 창립대회는 준비상의 사정으로 약 1개월 연기하여 오는 9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창립준비위원은 유감이 없도록 준비에 매진함과 동시에 경성부내에서는 언론, 교육, 사회교화, 정치 실업 등 각 기관 및 사상가 등과 교섭하여 본 회의 선언 강령을 선전하고 그 의향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또 지방에서는 이번 달 말경부터 약 1주일간 예정으로 전선 각지(별표)에 창립준비위원이 순회하여 본 회의 선언 강령을 널리 선전함과 동시에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순회구역 분담 및 순회원은 상무위원이 결정하기로 가결하였다. 더욱이 본 회의 수신(修身) 고문으로 이각종을 선정하는 한편, 지난 8월 2일 민우회 창립대회의 경위 및 자파(自派)의 태도 등을 등사 인쇄하여 각 회원 앞으로 발송하고, 오는 18일부터 본 회의 선언 강령 약법 및 「대동민우회의 발기에 즈음하여 여러분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인쇄물 및 원조 통문을 선전할 목적으로 조선의 각 부윤, 군수 및 경찰서 앞으로 각각 우송하기로 하였다. 이에 계속하여 주의중이다.

이를 보고 통첩(달)한다.

추신, 위의 4종의 인쇄물은 경무(귀)국에만 첨부한다.

기(記)

경기도	인천, 개성, 수원, 안성
충청남도	대전, 공주, 천안, 당진, 홍성, 강경, 조치원
충청북도	충주, 괴산, 영동, 청주
전라남도	북포, 광주, 남원, 순천, 진도
전라북도	전주, 군산
경상북도	김천, 상주, 안동, 대구, 예천
경상남도	부산,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김해
함경남도	홍원, 북청, 단천, 함흥, 정평, 원산, 고산
함경북도	청진, 회령, 종성, 나진, 웅기
강원도	원주, 춘천
황해도	해주, 재령, 연백, 사리원
평안남도	평양, 안주, 진남포
평안북도	의주, 정주, 선천, 신의주

〈출전: 「李覺鍾派 大東民友會ノ動靜ニ 關スル件(京高特秘 第1371號ノ8)」, 『警察時報(寫本)』, 1936년 8월 22일〉

### 10. 양주삼의 미국귀래담청취죄담회 개최에 관한 건

경종경고비 제8646호

1938년 9월 16일

경성 종로경찰서장

경기도 경찰부장 귀하

#### 양주삼(梁柱三)의 미국 귀래담(歸來談) 청취죄담회 개최에 관한 건

관하 중학정(中學町) 1번지 소재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에서는 이번 달 13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회원 유형기(柳潑基) 외 14명이 회합하고, 이각중(李覺鍾)의 사회 하에 양주삼의 미국시찰담을 청취하기 위한 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주삼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참고를 위해 보고한다.

기(記)

나는 이번 미국을 시찰했는데 이 나라 재류조선인은 지난번 조선 내에서 우리가 전향한 것에 대해 아주 반대의 뜻을 품고 있다. 나에 대해서는 이완용 이상의 간한(奸漢)이라 칭하며 심지어 타살론(打殺

論)을 주장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그래서 미국 체재 중에는 조선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미국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내가 미국에 여행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인데, 환송영회가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마 위의 이유로 개최하지 않은 듯하다. 뉴욕(紐育) 재류조선인 약 200명 가운데 동지회 회원은 불과 23명 정도인 모양인데, 현재 하와이에 재류중인 동지회 수령 이승만(李承晩)은 오스트리아 부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이미 실격하여 지금은 완전히 신망을 잃어 볼품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뉴욕 등지에는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다수 있어 도미중인 최승희(崔承禧)에게 일본인이 되었다고 칭하며 악선전하고 방해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내지인 측의 환영회 개최에 대해 최승희는 조선인임으로 일본인의 환영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방해하고, 현장에서는 심지어 일화(日貨) 불매 마크를 반포(頒布)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또 최승희의 무용은 피아노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인 측으로부터 조선 고대의 무용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기만적인 고대무용이라며 신용을 잃고 실패하였다. 이에 지금 최승희의 남편 안 모는 조선고유의 장고를 연습하고 있다.

동지회는 하와이에서 제탄업을 경영하고 기타 각자가 다액의 민재(民財)를 소비함에 따라 신용을 잃어 동지회에 현금하는 자가 없다. 동지회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생도 20명을 수용하는 조선인 기독교학원 한 곳이 있을 뿐이다. 그곳에 거주하는 이태승(李泰勝)과 같은 자는 학원 간판 아래에 교회경영을 구실로 미국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복(私腹)을 채우고 있다. 앞으로 동지회의 활동은 완전히 좌절될 것으로 여겨진다.

흥사단(興士團)은 동지회보다 약간 우세한 편으로 샌프란시스코(桑港)의 흥사단 회관은 약 4만 달러로 건축하고 별도로 자산 약 1만 달러가 있었지만, 지나요리점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였다. 또 안창호(安昌浩)의 사망으로 지도자를 잃고 정치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한 것 같아 앞으로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곳의 공산주의자 등이 상당히 활약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나사변에 대해 미국 재주 지나인 등은 선전술이 교묘하여 신문 관계나 기타 미국인을 이용하여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역선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이 패전하고 앞으로 만주탈환은 물론, 조선도 독립할 수 있다는 선전에 따라 미국 내에는 완전히 잘못 전해진 전황 뉴스를 믿고 일화 배척 등 배일사상이 고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거류 내지인 공산주의자도 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기현상(奇現象)으로 제국은 왜 해외에서 오히려 선전하지 않는지 기탄해마지 않는 바이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김일선(金一仙)이라는 조선인 이발업자가 있다. 그 사람은 지나 지리에 정통한 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군은 지금 구강(九江)으로부터 한구(漢口)로 진격 중으로 장개석(蔣介石) 정권의 몰락은 풍전의 등화와도 같다. 지나인 가운데 유식자 등은 재빨리 자국의 패배를 자각하여 미국으로 피난하는 자가 많다. 또한 미국 재류 지나 민단이 자국 정부에 국방헌금으로 24만 달러를 송금함에 있어 10만 달러를 횡령한 자조차 있다. 요컨대 지나 민족은 여러 곳에서 자국의 자멸상을 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선전을 통해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인 가운데 환자 등은 이를 알지 못하고 역선전에 편승하여 이에 마취되는 것은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바이다. 미국 신문의 논조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나사변의 장기전을 매우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구가 함락되자 영국은 자연히 중재에 나서 자국의 이권획득을 도모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과 절대로 전쟁할 의사가 없다. 지난번 뉴욕에서 방공연습이 있었을 때, 민중은 크게 놀라 자국은 평화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며 방공연습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반항하였다. 또 일화 불매설이 들려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각 상점에는 여전히 일본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주국 문제와 같은 경우도 영국과 미국은 이미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재류 조선인 가운데 조선독립을 몽상하는 것은 환자 중의 환자이다. 요컨대 조선인은 생사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즉 내선일체는 생로(生路)를 찾는 것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자는 사로(死路)를 걷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내선일체가 되어 생사를 함께해야 한다. 나는 당국이 실행하고 있는 내선일체의 선정을 선인으로서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정말로 감격해마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본에 의지하는 조선인으로서 한결음도 내딛을 수 없는 정세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일등국민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며 내선일체의 은정(恩政)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을 여행하면 일본인의 일등국민 대우를 자연히 알게 된다. 특히 구라파에서 일본인은 상등국민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두어야 한다. 외국에 입항할 때, 일본인은 곧바로 상륙할 수 있지만, 지나인과 같이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3일간 금족(禁足)되는 실정을 볼 때, 일본국민이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다음으로 미국은 지역이 넓고 부국으로 자유국이지만, 이번에 내가 시찰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도 또한 상당한 고민거리가 있다. 첫째로 곡물의 생산과다 문제로, 재작년에 전국 내에 소맥 4억여만 부셸(bushel)이 과잉 생산되었는데 가격 폭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각 처분하였다. 작년분의 잉여품 3억여만 부셸은 정부에서 매상정책을 강구중이다. 또 목면 및 연초의 잉여도 소맥과 같은 상태로 가격이 저렴함에 따라 매각대금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농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생산축소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생산 과다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둘째로 자동차 과다문제는 오늘날 전국 내에서도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세계의 자동차 10분의 6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시가지의 도로는 자동차 주차문제가 고민거리일 뿐 아니라,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1923년부터 25년 사이의 통계 441,912명으로 작년 1년간에만 사망자 4만 3백여명, 부상자 122만여 명으로 미국의 개국 이후 과거 15년간 전몰한 전사자 부상자 총계 244,357명보다 훨씬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다. 기타 도시에서는 각 호 각 사람마다 냉장설비로 인해 다량의 얼음의 용해수가 생겨 배수문제도 상당한 난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산당 문제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10여 년 이전부터 공산당 정당이 성립되어 1926년 무렵의 투표권자 수는 1만 여 명에 달하였다. 또 전국 내의 공산주의자는 모두 혁명을 계획하여 그동안의 동맹파업 수는 1931년 810건, 1932년 841건, 1933년 1,690여 건, 1934년 1,800여 건, 1935년 2,600여 건, 작년에는 9개월간 3,757건에 달하였다. 이들은 모두 노자(勞資) 협조의 투쟁을 배격하고 파괴적 질서문란을 획책하는 공작으로, 나아가 이 문제는 육해군 측에도 파급되기 쉽다고 미국인 모 선교사는 개탄하고 있다. 미국은 소위 자유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의라도 그 선전은 허용되어 있다. 한편으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것에 대해 또 한편으로 공산주의 반대선전도 있다. 하지만 공산당의 활약은 주목해야 한다. 동맹파업 등은 항상 비밀리에 공산당이 지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 내에서 종래 조선인 문제는 배일(排日)이 사는 길이라고 오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번에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그들도 양민(良民)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장로파의 신사참배문제와 같은 것은 미국의 선교본부에서는 아무런 정해진 방침이 없다. 중간의 총회 등에서 교육적으로 인퇴(引退)를 결정한 것은 선교사의 인식 부족에서 생긴 문제이다. 앞으로 장로파도 오래된 선교사는 점차 귀국하고 새로운 인물이 조선에 올 때는 아무런 이의 없이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전: 「梁柱三ノ米國歸來談聽取座談會開催ニ關スル件(京鍾警高秘 第8646號)」, 『思想에 關한 情報(10)』, 1938년 9월 16일〉

## 11. 대동민우회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2858호

1938년 12월 19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 대동민우회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경성부 중학정(中學町) 소재 대동민우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부내 태평통(太平通) 1정목 경성부 부민관 식당에서 세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별지와 같다. 정각에 일등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함께 하면서 다음 요지의 간담을 나누고 오후 9시에 무사히 산회하였다.

이를 보고 통보(달)한다.

#### 기(記)

##### 1. 주련(朱鍊)

조선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현하 시국을 감안하여 군수공업, 중공업, 농업 기타 모든 방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 조선인은 진정한 내선일체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 2. 현영섭(玄永燮)

영국은 자유주의 아래에 세계의 모든 곳에 영토를 차지하는 철저한 침략주의인데, 우리 일본의 팔굉일우주의(八紘一宇主義)는 결코 침략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병합 당시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녔는데, 오

류를 자각한 오늘날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국가에 바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로부터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3. 이광수(李光洙)

우리는 병합 당시부터 마음에도 없는 병합을 강행하였다는 불만을 품었고, 또 일본인은 우리를 식민지로 취급했기에 왕왕 반동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이번 형무소에서 많은 것을 연구한 결과, 나의 잘못된 고찰(考察)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아시아 문제로서 대아시아를 건설함에 있어 그 통수자로서 누구를 선출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만주인이나 지나인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책임자가 없고 오로지 일본인만이 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나는 지금까지 전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에 이르러 전향이라든가 내선일체를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 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한 이상,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실 즉 표리 모두 일본제국신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각오 아래 전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의 자손은 내가 걸어온 표리부동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따라하지 않고 일본신민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 4. 이각중(李覺鍾)

내선일체의 완성 이후는 총독정치가 없어져 내지와 동일한 부현(府縣) 정치가 이루어지고, 헌법도 실시되어 참정권도 부여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말할 필요도 없이 내선일체가 되어 조선의 독특한 것까지 강제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 5. 조병옥(趙炳玉)

국내의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방면에 걸쳐 필연적으로 과학적인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다.

### 6. 주요한(朱耀翰)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간파하고 국민생활의 합리화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국민도 모든 형태를 바꾸어 신생활운동에 전념중이다. 오늘날 우리는 먼저 이번 전쟁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윤형식(尹亨植)

우리 조선인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동을 청산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대 이상이다.

### 8. 권충일(權忠一)

내선일체의 문제는 정치적인 슬로건에 그치지 말고 일상생활화하여 실천운동화해야 한다.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실행할 필요가 있다.

### 〈별지〉 출석자

안준(安浚), 이각중(李覺鍾), 차재정(車載貞), 주련(朱鍊), 김동일(金東日), 현영섭(玄永燮), 최봉직(崔鳳則), 이정식(印貞植), 이석규(李碩奎), 차상달(車相達), 유형기(柳潑基), 갈홍기(葛弘基)<sup>7)</sup>, 전영택(田榮澤), 하돈덕(河敦德), 윤형식(尹亨植), 조두원(趙斗元), 주요한(朱耀翰), 이광수(李光洙), 김동환(金東煥), 조병옥(趙炳玉), 진공섭(陳公燮), 권충일(權忠一)

〈출전: 「大同民友會 懇談會 開催ニ 關スル件(京高特秘 第2858號)」,  
『思想에 關한 情報(11)』, 1938년 12월 19일

## 12. 대동민우회의 성명

### 성명

불초(不肖) 등은 일찍이 흥사단(興士團)=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의 일원이었을 시절 작금의 내외 정세의 변전을 고려해 기존에 품고 있던 주의와 주장에 근본적 결함과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단호히 이를 청산하고 이번에 새로운 국민적 자각 아래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에 입회하게 되었다. 이에 불초 등의 거취와 동향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가 새롭게 파악한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여 옛 벗들에게 알리고, 아울러 널리 강호의 현자들이 일고(一考)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생각건대 작금의 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전과 우리 일본의 획기적 약진과 발전의 계기들은 우리 조선민중으로 하여금 장래의 발전에 대해 새로운 견해와 자각 아래 새 운명을 개척하도록 요구해마지 않는다.

우리는 종래 이른바 ‘민족주의’의 관념에 사로잡혀 조선민중의 발전과 향상은 오직 ‘민족자결’에 있다고 굳게 믿고 과거 우리의 사상적 아울러 실천적 노력들은 오로지 이런 신조 하에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인은 조선 통치를 ‘식민지 정책’이라고 곡해하고 제국의 진의(眞意)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동아사적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조선 통치에 나타난 비약적 현상들, 특히 최근 미나미(南) 총독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바의 내선일체의 목소리는 홀연히 우리 미망(迷妄)을 각성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국 속에서 조선반도 민중에 대한 일본인의 동포적 신뢰와 ‘신일본’의 국가적 대 이상 아래 배양되고 있는 혁신기운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품고 있던 일체의 의심과 불안을 일소하기에 충분하다.

작금의 세계 대세의 추이를 보면 수많은 약소민족들은 점차 대국의 산하에 통합되어야 할 필연적 정세에 있다. 국민들의 생활은 개인보다 사회적으로, 민족적 고립보다 제(諸) 민족의 단원합작(團圓合作)에 의해 비로소 그 발전·향상을 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의 이른바 ‘독립’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해당 민족에게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동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

7) 원문 오류. 갈홍식(葛弘植)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물며 지금 이때 동아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일본정신의 세계적 선양을 이상으로 삼고 신동아 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신일본의 영광스러운 자태는 이른바 '식민지 조선'을 지양하고 조선을 신일본 구성의 유력한 부분으로 삼으려는 획기적 현상들을 고려하건대, 기존의 이른바 민족자결 사상은 마침내 조선민중에게 무의미하고 동아시아 발전의 새 방향을 무시한 반동적 관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황도(皇道) 일본의 내일의 모습을 생각함으로써 기존의 우리의 잘못된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었다. 조선민중의 영원한 행복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을 하나로 뭉쳐 대국민 일본인을 이루고 이를 핵심 주체로 한 신동아 건설에 있음을 마침내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조선민중의 이해관계, 기쁨과 슬픔은 완전히 일본 전체의 그것과 합치되었다. 흥륭(興隆) 일본의 전도(前途) 또한 결코 조선민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보건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은 동근동조(同根同祖), 그 근원에 있어서 일체였다. 오늘날 이를 구분하는 차이의 조건들을 묵수(墨守)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앞으로 국민생활의 발전·향상과 동포감(同胞感)의 심화·철저에 따라 점차 소멸되고, 결국에는 완전한 한 민족으로서 일원화되는 것 또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분산보다 통일로 발전하고 있는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귀결된다. 피와 문화의 연원(淵源)이 동일한 두 민족이 신동아시아 창조의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완전히 일원화하는 것은 참으로 신(神)의 뜻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숙명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족일원화의 이상은 조금하계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종종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데 반해, 민족자결주의는 옛부터 타력(惰力)에 떠밀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민족자결주의에 현혹되어 온 것도 필경 이 때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 관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전혀 반대로, 내선일체와 민족일원화의 경향은 근래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대세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더욱더 이를 구현시키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실현은 필연적이고 단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 및 현실의 경향들을 기초로 하여 내선일체, 완전한 일원화가 조선민중의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신일본 건설의 국민적 자부심과 포부 아래 그 일익적(一翼的) 임무를 다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조선민중의 장래에 영광과 발전을 약속한다. 이는 실로 대동민우회의 근본정신이자 우리가 앞으로 한층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다. 즉 우리는 지금 일체를 버리고 일체를 얻고자 하는, 가장 솔직하고 과감한 마음가짐으로 충만해 있다.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국적 사명의 수행=아시아 민족들을 백인 제압의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전(聖戰)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거국일체(舉國一體)가 되어 목적 관철을 기해야 한다.

세상은 이미 적화공산의 참화와 개인주의, 공리주의적인 백인 문명의 추악함에 등을 돌렸다. 팔굉일우(八紘一宇), 도의적 단결을 이상으로 삼는 동아시아정신 일본주의야말로 진정 동아를 구하고 세계 인류를 지도할 원리이다.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일본정신의 사도로서의 영예와 책임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신념과 주장 아래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기하는 바이다.



1938년 6월 18일

갈홍기(葛弘基), 김려식(金麗植), 김여제(金興濟), 김노겸(金魯謙), 김기승(金基昇)  
전영택(田榮澤), 정남수(鄭南水, 鄭英道), 노진설(盧鎭高), 유형기(柳潑基)  
이기윤(李基潤), 이명혁(李明赫), 이묘묵(李卯默), 박태화(朴泰華), 차상달(車相達)  
최봉칙(崔鳳則), 하경덕(河敬德), 현제명(玄濟明), 홍난파(洪蘭坡, 洪永厚)

〈출전: 성명, 『基督新聞』, 1938년 8월 16일〉



## VII. 대화동맹(大和同盟)



## 1. 손영목, 나가자 황민대도(皇民大道)로 우리 청년 장년 동지는 쫓기하라

대화동맹 상무이사 손영목(孫永穆) 씨 격(檄)

‘국정참여의 길로’-이제 반도 2천 6백만의 황민화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정치적 처우라는 선물을 받아 드릴 단계에 들었다. 국정에 참여하는 그 방법과 그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다년간 바라고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날이 꼭 올 것만은 확실하다. 시정 30여년의 □□□□로서 머지않아 등장할 이 ‘국정참여의 길’에 대한 반도□□의 감사와 결의는 드높아 지난 11일 □□□□을 복하여 경성에서는 내선일체의 총진과 대□□□이 있음에 매진하려는 동지□□□□로서 대화동맹(大和同盟)이 성대히 결성되어 감동 분기할 제일성을 발휘하였는데 이날 경성대회를 마치고서 동 대화동맹 상무이사 손영목(孫永穆) 씨는 ‘오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특히 감투정신에 불타는 중견청장년의 결속과 분기로서 나가고 싶다’고 다음과 같이 결의를 말하였다.

“이제 우리들이 뜻하는 바는 동지들의 결합으로 굳게 결속되었다. 중앙당국에서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 줄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실현될 것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번 당국의 이 획기적인 기도에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미리미리 각자가 연마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감동을 가슴에 안고서 대동아전완수에 감투할 온갖 태세를 갖추고 돌격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란 것을 자각하고 한층 감투하여야 할 것이라는 목적을 오늘 우리들은 동지적 결속으로서 ‘대화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이 동맹이 탄생되기까지는 각 방면의 원조와 동지들의 열렬한 지지도 있었지만 금후 이 단체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감투정신에 불타는 중견 청장년층을 전면적으로 포용하여 실전에 매진하려고 하므로 특히 청장년층의 발분을 바라고 싶다. 우리는 정치처우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하기 위하여 이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황민된 자질을 더욱 연성하고 이 전쟁을 하루빨리 이길 수 있도록 발분 감투함이 있을 뿐이란 것을 거듭 말하여두고 싶다”

〈출전: 「나가자 皇民大道로 우리 青年長年同志는 蹶起하라- 大和同盟常務理事 孫永穆氏 檄」, 『매일신보』, 1945년 2월 13일〉

## 2. 김사연, 반도 참정의 감격과 요망, 중책완수에 헌신

정치훈련급무 추진력 될 우국지사들,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씨 담(談)

반도에 국정참여라는 최상의 처우를 하게 된 것에서 감사의 감격을 새삼스럽게 말할 여지가 없다. 그저 □□가 정치 참여이니만큼 아직 정치적 훈련이 부족한 반도에서는 한결같이 마음을 가다듬어 국정

에 대한 연구의 훈련과 더욱 근본문제로서는 황민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데 전력을 바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정에 실제로 참여될 때까지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의정단상으로 보내느냐는 것이 벌써 여기저기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젊은 사람을 보내고 싶다. 소위 명사 축에 든다는 사람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정의 전체를 붙잡아 나갈 만큼 진심으로 연구심이 있는 □□□□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국지사들을 내어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생각할 것 없이 이런 사람이라야만 국정에 □추천함이 된다는 것이다. (사진은 야나베 씨)

### 중책완수에 헌신 참된 지도인물을 선출, 김사연(金思演) 씨 담(談)

처우 개선의 첫 번 발표를 보자 나는 반도재주인들에게도 참정(參政)의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하였다. 과연 고이소(小磯) 총리 이하 정부측의 획기적 시책에 의하여 한국병합 이래 전 반도가 갈망해 오던 현안이 실현된 것인데 이제 우리들을 오로지 황민된 긍지(矜持)를 가지고 중한 책임을 다하기에 몸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이십□□을 뽑아 보낼 때는 사리사욕을 □□하여 민중을 사랑하고 국가의 흥망을 □□나을 책임감이 두터운 사람을 뽑아야만 할 것이다. □□ 지금은 새로운 세기의 역사를 창조하는 전사이므로 전력□□□□□□ 될 수 있는 인물이라야 □□□□ □□을 먼저 태평양전국을 □□ 바라보고 깊이 □□하여 반도 등□□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야 할 것이다.

(하략)

〈출전: 「半島參政의 感激과 要望, 重責完遂에 獻身—참된指導人物을 選出, 『매일신보』, 1945년 3월 21일〉

### 3. 윤치호, 성려황공(聖慮惶恐) 적성(赤誠)으로 봉부(奉副)하자

황공하옵게도 참정(參政)의 큰 길을 2천 6백만이 활보해 나갈 수 있는 조서를 내리옵심에 우리들 반도의 민초는 그 감격 황공함을 금키 어려운 바가 있다. 이로써 훌륭한 황국신민이 된 우리는 더 한층 성려에 보답할 길을 찾고 오직 황국의 흥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 이날의 감격과 각오를 대화동맹 이사장 이동치호(伊東治昊) 씨에게 들어보기로 한다.

#### 대화일치(大和一致)로 정신(挺身)을, 이동치호(伊東治昊) 씨 담(談)

대화동맹(大和同盟) 이사장 이토(伊東致昊)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황송하옵시게도 조선재주민의 국정참여에 대한 대조(大詔)를 환발(渙發)하옵신 것을 성려(聖慮)의 성원하옵심으로서 진실로 고구 감격하온 바이다. 돌아보건대 시정 겨우 30여년으로 지난번에는 징병제가 실시되었고 이번 또 국정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전혀 역대 총독이 성지(聖旨)를 받들

어 정성껏 조선을 통치해준 덕택으로서 내선의 동조동근동운명(同祖同根同運命)의 열매는 이에 맺어진 것이다. 전국은 한순간이나마 안심을 허락하지 않는 공전의 국난에도 우리 2천 6백만은 대한일치전력을 다하여 황유(皇愈)를 익찬하여 받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같이 순국의 정신을 가지고 1억이 한 덩어리가 되어 총후의 전 직역을 동원하여서 미영(米英) 격멸에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불초는 앞서 대화동맹을 결성하고 종전과 같이 손을 잡고 시난 극복에 매진하기로 되었는데 오늘 조서를 봉대하여 □충분기하여 하루라도 속히 성전완수에 정진하여서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각오를 새로이 하는 바이다.

〈출전: 「聖慮惶恐赤誠으로 奉副하자-伊東致昊 大和一致로挺身을, 心身을 바쳐 奉副-다만 實質向上에 努力」, 『매일신보』, 1945년 4월 3일〉

## 4. 활동 관계 기사

### 4-1)

#### 다만 신뢰와 감사로 거두고온 성과 다대(多大), 처우감사위원 귀환보고 강연회 성대

앞서 □□는 조선대만재주동포에 대하여 행정과 정치적인 처우 개선을 단행할 것을 단언하였다. 조선동포에 내린 ‘아버이의 마음’에 우리는 무엇으로써 보답하여 나갈 것인가. 이에 지난 1월 30일 반도 2천 6백만을 대표하여 이동치호(伊東致昊)옹을 비롯하여 처우감사동상위원(處遇感謝同上委員) 일행 6명은 중앙 정부와 역대 총독과 총감 또는 조선과 관계가 깊은 요로자들을 역방하고 감격과 감사를 표명하고 24일 아침 무사히 돌아왔다. 이에 대화동맹(大和同盟)에서는 27일 오후 4시부터 부내 태평동 부민관 중강당에서 귀환보고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는 부내 내선(內鮮)의 유지의 유식층을 비롯하여 이화여자전문학교(梨花女專)의 단체 청강 등 처우개선에 대한 감격의 찬 만당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노구로, 적기가 매일 같이 넘나드는 일본 곳곳에 가서 소임을 다하여 반도의 진의를 유감없이 떨치고 오기까지의 세세한 보고는 한(韓) 조선연맹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82세의 좌옹(佐翁) 이도(伊東) 동상위원단 단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총심의 감사전달 이도(伊東) 단장

지난 1월 17일 이곳 부민관에서 전선대표의 처우개선 감사대회가 열리어 그때의 결의에 의하여 우리는 반도의 뜻을 대표하여 일본에 감사를 표명하고 돌아왔다. 이 기회에 이세(伊勢)신궁을 비롯하여 가지바라(□原)신궁 모모야마(□□)어능에 두루 참배를 하고 고이소 수상을 비롯하여 역대 총독 총감 민간 대표자들과 만나 반도의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기 전 후에야 처우개선의 범위와 종류도 모르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는 □□을 들은 일이 있다. 그 □□ □□ 우리가

범위 또는 □□는가 □□되 뒤에 □사를 □□ 다함은 그것은 개선한 것에 □□ □사와 □□중앙 정부에 대□□또는 당국의 아버지 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는 □□에 감사하려□□□□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였을 따름이지 □□□□지는 않았다.

수상관저에 갔을 적에 그때는 마침 고다마(兒玉)문부대신이 들어와 이날 정부처우 조사회 제1부회(귀족원관계)에서 처우개선위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말하였다. 이때 웬만하면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들었을 것이나 아무도 묻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처우 개선의 큰 정신에 오직 감격과 신뢰하는 마음으로써 중앙당국 또는 요인들에 감사를 말하여 예기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생각인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인줄로 안다. 우리가 있는 동안 각 방면에서 아끼지 않고 끼쳐 준 친절은 일행에 뿐만 아니라 결국 반도 동포에 보내는 친절일 것으로 충직으로 감격하여 마지않는 바이다라는 이도 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선물류영단(朝鮮物類營團) 와다나베(渡邊□□□)이 사장으로부터 '사명을 다하고'라는 연제로

사명을 다한 광영 - 와다나베(渡邊) 위원

……(판독불가)……

가열한 결집 단체로 말미암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어 오직 반도에 큰 주목을 가지고 있던 중 경성(京城)에서 전선대회가 열리고 다시 의원단의 □□하게 □에 있어서는 참으로 반가워하고 기쁨으로써 환영해 주었다. 따라 우리는 의단 조선뿐 아니라 대만까지 □□ □그의 대표라고 하여 □ 과언이 아니었다. 이로써 처우 개선에 어떠한 태도이었는데가 □□□에 충분히 알렸다고는 했다.

처우 개선에 대한 심의 내용은 각의에서 결성된 후 담당 각 방면에서 실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적 행정적 두 가지 처우 개선이 있을 모양인데 일본에 있는 반도 동포는 먼저 행정적 대우 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 처우는 수상을 회장으로 한 조사회 안에 귀족원과 중의원 관계의 □□은 위원회를 두고 이 문제를 토의 하여 원안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있는 동안 귀족원 위원회는 끝나고 중의원 측은 다 소심의가 늦은 듯 하였으나, 이도 근근 순조로이 진척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내용은 알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도 단장은 일본 곳곳에서 말하길

(가) 이번에 우리가 온 것은 정부의 고마움에 대하여 감사를 말하러 왔지 무슨 요구를 하러 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 현재 우리 일본이 유사 이래의 숙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반도인으로서 처우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불충일 것이다. 이것은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도덕상 어긋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스스로 정부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르겠다.

(다) 따라서 조선 동포는 처우개선의 범위와 종류 등에 대하여 추호만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기 전 우리를 다시 한번 반성하□□□□□□□□ 나는 선배와 이 말에 오직 감격하여 마지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한 가지 내선인은 서로 생각하여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하고 협조하며 양보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이 처우 문제는 결코 요즈음 생긴 것이 아니라 메이지(明治) 43년(1910년)의 병합조서의 성지(聖旨)의 대정(大正) 8년(1919년)의 어조서에 일시동인(一視同人)이란 말씀



의 어성지를 받들어 역대 총독, 총감 등이 이에 □□□□□□□□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줄 안다. 동양인으로서의 본분을 찾아 나아감이 의당 할 것일 줄로 알고 이런 생각이 우리들 중에 깊어가고 한편 일본 각 지에도 널리 오해 없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왔다는 뜻의 억양 있는 말로 내선은 대화일지의 지성을 가져야겠다는 말이 있고 다시 가나가와(金川聖) 본사 사장이 ‘공습하의 한달’이란 연제로 등단하여  
(후략)

〈출전: 「다민信賴의感謝로거두고온成果多大 處遇感謝委員歸還報告講演會盛大」, 『매일신보』, 1945년 3월 1일〉

#### 4-2)

#### 신궁(神宮)에 감사 참배, 대화동맹서 조서(詔書) 봉독식

반도 민중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일찍부터 반도의 유지명사들의 발기로 조선의 대화동맹(大和同盟)에서는 국정참여의 황감하옵신 조서(詔書)를 환발(渙發)하옵신 성은에 봉부(奉副)하고자 9일 오전 10시부터 이도(伊東) 이사장의 역원 등 20여 명이 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 참배, 조선봉대 감사 봉고를 한 후 성지를 받들며 황은에 봉답할 것을 신전에 맹서한 다음 다시 11시부터는 장곡천정 공화당에서 조서 봉독식 □□ □□□□ □□□□□□□□ 식상에서 민□ 궁성을 요배하고 ‘이도’이사장이 조서를 낭독한 다음 □□가 □□□□으로 식을 마치어도 □□□□명의 □□회 황민으로서의 □□야 □□식으로 이□□□ 개□ 것을 □□하고 11시 반에 폐회하였다.

〈출전: 「神宮에感謝參拜, 大和同盟서詔書奉讀式」, 『매일신보』, 1945년 4월 6일〉



## VIII. 조선언론보국회



## 1. 설립 관계 기사

### 1-1)

#### 언론보국회 결성, 재성(在城) 유지들이 합동발기인회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하여 사상전의 투사로서 큰 사명을 지고 나서는 언론지도층의 임무는 오늘처럼 더 큰 것이 없다. 조국의 대이상을 드높이고 대동아건설에 몸을 바치기에 언론의 힘을 한데 뭉쳐 사상전의 승리를 꾀하고자 재성(在城) 유지 50여 명이 조선언론보국회 결성발기인이 되어 15일 오후 3시부터 태평동 체신회관에서 발기준비회합을 열었다. 이 발기인회는 요꼬미조(橫溝光暉), 카마다(鎌田澤一郎), 스즈키(鈴木武雄), 금촌팔봉(金村八峰)<sup>8)</sup>, 쓰다(津田剛), 나까야스(中保與作), 송촌굉일(松村紘一)<sup>9)</sup> 석전경조(石田耕造)<sup>10)</sup> 니와 세이지로(丹羽清次郎), 정인익(鄭寅翼) 씨 등 20여 명이 모여 먼저 국민의례를 한 후 요꼬미조 씨를 좌장으로 추대한 다음 정인익 씨로부터 발기인을 대표하여 전시하 언론인들의 분기와 그 사명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오늘에 이르러 조선언론보국회를 발기하게 된 취지를 말하는 인사가 있었다. 계속하여 석전경조(石田耕造) 씨로부터 발기인회를 열기까지의 경과보고가 있고 나서 규약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가마다 씨와 나까야스(中保與作) 씨로부터 규약과 사업에 관한 추후연구를 진행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와 발기총회 개최에 관한 것을 일단 준비위원을 정하여 위임할 것을 결정한 후 4시 반경 산회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선정된 준비위원은 다음 제씨로 결정하였다.

▲ 나까야스(中保與作) ▲ 쓰다(津田剛) ▲ 고전신일랑(高田信一郎) ▲ 석전경조(石田耕造) ▲ 금촌팔봉(金村八峰) ▲ 안흥성환(安興晟煥)<sup>11)</sup> ▲ 박인덕(朴仁德) ▲ 스즈키(鈴木武雄) ▲ 카마다(鎌田澤一郎) ▲ 후즈우카이(鵜飼信成) ▲ 사이토(道祖土剛) ▲ 정인익(鄭寅翼)

〈출전: 「言論報國會結成 在城有志들이 合同發起人會」, 『매일신보』, 1945년 2월 17일〉

### 1-2)

#### 총력전에 선구(先驅)될 사상전사 필승의 진(陳), 어제 언론보국회 감격의 발회식

‘붓은 칼보다 강하다!’ 본토 결전의 풍운이 어지러운 정세 아래 적 미영은 무력전과 아울러 사상모략의 형체 없는 폭탄을 우리에게 던지려 하는 이때! 조선언론계의 총력을 뭉쳐 2천 6백만 마음의 무장을 철벽같이 굳게 하려는 조선언론보국회의 역사적 발회식은 감격도 새로운 대조봉대일인 8일 오전 10시부터 부내 부민관 중강당에서 엄숙 성대히 거행되었다. 내빈석에는 엔도(遠藤) 정무총감, 조선군관구사

8) 김기진(金基鎭)의 창씨명.  
9)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10) 최재서(崔載瑞)의 창씨명.  
11) 이성환(李晟煥)의 창씨명.

령부참모장 후꾸자와(福澤), 경성재근해군무관 니시히로(西廣) 경무국장, 아마가스(甘粕) 연맹<sup>12)</sup> 차장, 구라시게(倉茂) 일본부인회조선본부 총장, 하다(波田) 중장 등이 열석하였고, 발기인측으로는 가산린(佳山麟)<sup>13)</sup> 씨, 요꼬미조(横溝) 경일<sup>14)</sup> 사장, 사이토(齊藤) 상공 사장, 가나가와(金川, 김성근) 본<sup>15)</sup> 사장 등 - 조선의 언론전선에서 활약하는 원로중진들 약 백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식은 먼저 국민의례, 국가합창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토(伊藤憲郎) 연맹총무부장 씨가 □가선전의 대조를 받들어 봉독하고 나까야쓰(中保) 경일 부사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는 다음 좌장에 이도겐로씨를 천거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3대 강령과 규약을 만장박수로 가결하고 이어서 본회장에 가산린 씨를 추대하였다. 다음은 엔도 정무총감이 별항과 같은 고사를 읽은 후 다시 가산린 회장이 언론전선의 진두에 나서는 기백을 엿보이며 등단!

전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어느 모로 보든지 국민의 정신력이 강해야만 된다. 대동아 전쟁 이래 ‘일억일십’의 소리가 높이 외쳐 왔지만 그 ‘일억일십’의 참뜻은 결국 우리 국체 본의에 귀일하는 정신이다. 이번에 독일이 넘어진 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본과 같은 국체가 아니라는 데 있을 줄 믿는다. 독일의 전의의 중심이 된 ‘히틀러’ 총통도 한 사람의 영웅에 지나지 않았다. 한 때의 꽃으로 피었다 저버리듯 영원한 생명력이 없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이라는 것은 총력전의 예리한 무기인 동시에 사상전에 석탄도 될 수 있고, 기름도 될 수 있다. 정당한 언론전을 펼치고 밖으로는 적을 물리치며 안으로는 내선일체의 이상을 구현하여 그 사명 달성에 매진하겠다. 나는 몸은 늙었으나 다시금 청춘으로 돌아가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제군과 함께 전진하겠다. 열화같이 신념을 토로하여 만당의 감분을 자아내었다.

다음 정인익 씨로부터 역원의 이름을 발표하고 축사로 들어가 총리대신(中保 경일부사장 代讀), 정보국 총재, 조선군관구사령관, 진해경비부사령장관,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총장, 일본언론보국회 도꾸도미 회장 등 조선언론보국회의 씩씩한 장도를 비는 격려의 축사가 있는 다음 황군장병에게 보내는 ‘감사결의전문’을 만장기립으로 가결하고, 석전경조(石田耕造)<sup>16)</sup> 씨가 나아가 별항과 같은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끝으로 국민서사를 제송하고 우미유까바<sup>17)</sup>를 합창한 후 요꼬미조 경일사장의 선창으로 성수만세를 봉창하여 전 언론인의 필승결의를 폭발시키는 가운데 식은 끝났다. 역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 역원(役員)

- ▲ 회장 가산린(佳山麟)
- ▲ 이사장 나까야쓰(中保與作)
- ▲ 사무국장 정인익(鄭寅翼)

12) 국민총력조선연맹.

13) 최린의 창씨명.

14) 경성일보.

15) 매일신보.

16) 최재서의 창씨명.

17) ‘바다로가면’, 천황에 충성을 바치며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

▲ 상무이사 후츠우카이(鶴飼信成), 석전경조(石田耕造) 희다의(喜多毅), 소원창삼(篠原昌三), 쓰다(津田剛), 안흥성환(安興晟煥),<sup>18)</sup> 산중대길(山中大吉)

▲ 이사 천성활란(天城活蘭),<sup>19)</sup> 적원천남(荻原淺男), 금촌팔봉(金村八峰),<sup>20)</sup> 고전신일랑(高田信一郎), 학산두헌(鶴山斗憲),<sup>21)</sup> 덕산백순(德山白洵),<sup>22)</sup> 영하인덕(永河仁德),<sup>23)</sup> 삼천태악(三川泰嶽),<sup>24)</sup> 류광렬(柳光烈)

▲ 고문 □□□□, 이동치호(伊東致昊),<sup>25)</sup> 금천(金川),<sup>26)</sup> 매신사장(每新社長),<sup>27)</sup> 감자(甘蔗)방송협회장, 창무(倉茂)소장 서광(西廣)경무국장, 송월성대(松月城大)<sup>28)</sup> 법문학부장, 산구(山口)인사부장(교섭중), 요꼬미조(横溝) 경일(京日)<sup>29)</sup>사장

▲ 참여 안인식(安寅植), 이집원겸웅(伊集院兼雄), 김본동진(金本東進),<sup>30)</sup> 함상훈(咸尙勳), 공산부옹(公山富熊),<sup>31)</sup> □□□□ 고령흥우(高靈興雨),<sup>32)</sup> 광전중욱(廣田鍾郁),<sup>33)</sup> 박희도(朴熙道), 송촌굉일(松村紘一),<sup>34)</sup> 대암화양웅(大岩和昂雄), 화전전오랑(和田傳五郎)

▲ 평의원 상전용남(上田龍男),<sup>35)</sup> 소창정태랑(小倉政太郎), 대조실신(大朝實臣),<sup>36)</sup> 차재정(車載貞), 옥강선진(玉岡璿珍),<sup>37)</sup> 복택영자(福澤玲子),<sup>38)</sup> 성야상하(星野相河),<sup>39)</sup> 궁본정섭(宮本晶燮),<sup>40)</sup> 궁본윤중(宮本允鍾),<sup>41)</sup> 유진오(俞鎭午), 이충영(李忠榮), 이원영(李元榮), 국본창수(國本昌洙)<sup>42)</sup>

▲ 명예회원 안재홍(安在鴻), 석삼구미(石森久彌), 소전성오(小田省吾), 카마다(鎌田澤一郎), 가등염평(加藤廉平), 향산광랑(香山光郎)<sup>43)</sup>, 국지겸양(菊池謙讓), 오촌승우(梧村升雨)<sup>44)</sup>, 홍명희(洪命憲), 최남

18) 이성환의 창씨명.  
19) 김활란의 창씨명.  
20) 김기진의 창씨명.  
21) 학산헌(鶴山憲)의 오기, 김두헌(金斗憲)의 창씨명.  
22) 최백순(崔白洵)의 창씨명.  
23) 박인덕(朴仁德)의 창씨명.  
24) 신태악(辛泰嶽)의 창씨명.  
25) 윤치호(尹致昊)의 창씨명.  
26)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27) 매일신보 사장.  
28) 경성제대.  
29) 경성일보.  
30) 김동진(金東進)의 창씨명.  
31) 이영준(李榮俊)의 창씨명.  
32) 신흥우(申興雨)의 창씨명.  
33)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34)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35) 이영근(李永根)의 창씨명.  
36) 박남규(朴南圭)의 창씨명.  
37) 옥선진(玉璿珍)의 창씨명.  
38) 송금선(宋今璇)의 창씨명.  
39) 배상하(裴相河)의 창씨명.  
40) 이정섭(李晶燮)의 창씨명.  
41) 이윤중(李允鍾)의 창씨명.  
42) 이창수(李昌洙)의 창씨명.

선(崔南善), 스즈키(鈴木武雄), 영천수남(鈴川壽男), 송진우(宋鎭禹), 장덕수(張德秀), 니와 세이지로(丹羽清次郎), 화산대의(華山大義), 서원종린(瑞原鍾麟)<sup>45)</sup>, 유억겸(俞億兼), 여운형(呂運亨), 와타나베(渡邊豊日子)

## 강령

- 조국(肇國)의 대 정신을 현양(顯揚)하고 성전 완수에 매진함
- 내선일체의 이상을 구현하고 대동아건설에 정신(挺身)함
- 언론의 충력을 결집하고 사상전에 감투함

### 모략격파(謀略擊破)에 정신(挺身)

## 선언

앞서 독일은 불행히도 그 웅도절반(雄圖折半)<sup>46)</sup>에서 패하고 ‘앵글로색슨’의 제국주의적 세계제패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제동기는 좌절되었다. 구주전쟁(歐州戰爭)<sup>47)</sup>은 종료하였으나 우리의 희구하여 마지않는 신질서는 마침내 오지 않고 유럽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혼미 중에 실락되었다. 물량으로 하면 어떠한 비도라도 통할 수 있는 교만불손한 적 ‘아메리카’는 그 여세를 거두어 우리에게 쇄도하고 있으나 신주의 절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절벽 앞에서 적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앵글로색슨’의 야만한 본능이 주저 없이 발굴되어 살육과 파괴와 착취와 능욕의 지옥도회(地獄圖繪)가 십억의 민족 위에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수 세 기간 문명과 질서와 도의와 윤리는 이 세계를 떠나 인류는 또다시 암흑 속에 그 정상한 발전이 저지 받을 것이다. 오키나와(沖繩) 공방전은 이제야 절정에 달하여 적은 그 주력을 여기에 던짐과 동시에 우리 전력을 파쇄하여 우리들의 전의를 상실시키려고 본토에 대하여서는 광폭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 미영들아! 알아라! 동양의 뜻은 결코 너희들의 물력의 앞에 굴치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세계의 역사와 인류의 행복을 여하(如何)히 중요한 전의를 가지고 있는 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적 미영이여! 너희들은 오키나와(沖繩) 주변에서 우리 특별 공격전의 무서운 전력을 □□하였을 것이다. 몸소 □□에 타고도 혼연히 □□□□의 위에서 □□하는 저 신취(神鷲)들의 정신력을! 그러나 이것이 □□서만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아등 일억 국민은 모두 이러한 정신으로써 여등에게 대하고 있다. 무차별 공격에 의하여 아등의 전의가 좌절되리라는 것 같은 달콤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마

43)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44) 이승우(李升雨)의 창씨명.

45) 이종린(李鍾麟)의 창씨명.

46) 웅대한 계획이 중간에 끝남, 즉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

47)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땅할 것이다. 우리들의 도시는 혹은 화염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염념(炎炎)한 화염은 즉 동양의 분노의 화염으로 알아라. 그 분노의 화염은 여등의 살이 타고 뼈가 재로 될 때까지 타고 또 탈 것이다. 돌아보건대 아동 언론인은 아름다운 황국의 전통을 지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아동은 애국의 지정(至情)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느낀다. 원래 애국의 지정(至情)이 스스로 발로하여 언론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민 의사의 원동력이며 국민 조직의 유대이다. 국가 위급의 이때를 당하여 우리들 언론인은 우리 동포의 전의를 북돋우는 기쁨이 되고 일역 동포를 철석과 같이 굳게 단결시키는 기제가 되려고 하는 바이다. 또 만약 적의 모략이 우리 주위에 침범하여 오면 우리는 몸으로써 그 마수를 절단하여 버릴 터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선의 특공용사의 뒤를 이어 사상전에 정신 감투할 것을 깊이 기(期)하는 바이다.

우(右) 결의함

1945년 6월 8일

조선언론보국회원 일동

### 황군감사결의문(皇軍感謝決議文)

이제 전국(戰局)의 위급은 나날이 그 도를 가(加)하여 오키나와(沖繩)의 전세는 역도(逆睹)를 불허하며 적기의 내습 또한 빈번하여 피아 결전의 □상은 더욱더 심각을 극하고 있다. 그러나 황군은 전선 수만리, 육해공에 결사전투 수소(隨所)에 경적(勁敵)을 격퇴하며 큰 전과를 □함은 바로 감하, 황군장병 지성진충의 무□(武□)에 의한 것으로 전 국민의 감사감격을 불조(不措)하는 바이다.

금일 조선언론보국회 결성식에 즈음하여 참회자 일동 육해군 특별공격대의 충성을 본받아 분격(憤激)을 새롭게 하여 언론보국에 노력하고 써 황군 비궁(匪躬)의 충절에 감하여 속히 성전의 목적을 달성키를 기한다.

이에 중의(衆議)로써 제국 육해군의 위훈에 대하여 심원한 감사의 뜻을 포함과 동시에 아울러 충왕의 마귀신을 통곡시키는 기다승고(幾多崇高)한 장병에 대하여 성간(誠懇)한 경조(敬弔)의 □를 표한다.

우(右) 결의함.

1945년 6월 8일

조선언론보국회원 일동

〈출전: 「總力戰에 先驅될 思想戰士必勝의 陳 昨日 言論報國會感激의 發會式」, 『매일신보』, 1945년 6월 9일〉

## 2. 활동 관계 기사

2-1)

### 마음을 총무장, 멸적에 열화의 사자후

(전략)

조선언론계를 총망라하여 결성된 조선언론보국회에서는 15일 오후 7시 반부터 부내 부민관 대강당에서 결성 후 최초의 언론총진격대 강연회를 열고 동회장 가산린(佳山麟)씨를 비롯하여 동회 이사 제씨의 □□□□하는 듯한 분격의 (중략) 청중에 보다 큰 감격과 감명을 주었다. 먼저 향산광랑 회장은 (중략) 이 비상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바로 이제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말을 하여 여러분의 필승신념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좀 더 고난에 견디어내야겠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진전에 따라 일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선에 나서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껏 생각하던 곤란 이상으로 개인의 고난은 더할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부터 고난을 감내할만한 기백을 가져야 한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어야 비로소 성공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대의에 순하여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처 물리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희생을 아껴서는 안 된다. 반도인 사회를 보면 아직도 개인만을 생각하는 생각 또는 자유주의가 남아 있다느니 보다도 그대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희생은 성공과 표리가 같은 것으로 희생이 없는 곳에 성공이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국가의 것인 만큼 국가의 것을 쓸데없이 아낀다는 것은 비국민의 태도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성전완수에 바쳐야 할 때는 온 것이다. 희생을 두려워 말고 총후는 나서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국가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라. 듣건대 머지않아 조선에도 국민의용대가 결성된다는 데 이에는 특히 국민 된 자는 모름지기 규율을 지켜 국가의 지상명령에 절대 순종하여야 하겠다. 엄격한 규율 아래 군관민 일역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사봉공의 특공정신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 말할 것은 옛날 지나의 철학자 노자는 말하길 (중략)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는 중용을 잃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언론보국회 보다 더 중정(中正)한 필승의 진리만을 힘 있게 말하여 어리석음이 없는 언론으로 적격멸에 나서려 한다. 언론보국회의 힘찬 발족과 아울러 군관민일체로 나아갈 것을 힘있게 외치고 이어 동회 이사장 나까야스(中保興作) 씨가 '본토결전의 신기는 온다'라는 연제로 다시 동회 이사 야스오끼(安興晟煥)<sup>48)</sup> 씨가 '국민의용대에 대하여', 끝으로 성대교수 스즈끼(鈴木武雄) 씨가 '우리들 몸소 싸우리'라는 제목으로 적의 폭악성을 말하고 나아가 적을 반드시 쳐부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출격하는 특공대의 마음으로 생산에 보급에 총력발휘에 있는 힘을 다 바쳐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을 조리있게 말하고 동 9시가 지나도록 설전을 전개하여 청중의 다대한 감격을 자아내었다.

〈출전: 「마음을 總武裝, 滅敵에 熱火의 獅子吼」, 『매일신보』, 1945년 6월 17일〉

48) 이성환(李晟煥)의 창씨명.

2-2)

본토결전설봉진(本土決戰舌鋒陣), 전선에 언론전사파견

조선언론보국회에서는 각 지방 신문사와 공동주최(강원도와 충북은 본사와 경성일보 공동주최)로 20 일경부터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의 주요한 도시로 언론전사 40여 명을 파견하여 ‘본토 결전과 국민의용대 대강연회’를 개최하고 ‘미영의 야망과 동아의 운명’, ‘본토 결전과 국민의용대의 사명’에 대한 제목으로 동아 10억 민중의 짊어진 국민의용대의 새로운 사명을 외칠 터이다. 그런데 연사와 개최지는 다음과 같다.

- ▲ 충북도(청주, 충주, 조치원) 석삼구미(石森久彌) 안흥성환(安興晟煥)<sup>49)</sup> 상전용남(上田龍男)<sup>50)</sup>
- ▲ 충남(대전, 논산, 강경, 공주) 가등염평(加藤廉平) 정인익(鄭寅翼)
- ▲ 전북(전주, 남원, 이리, 군산) 화진전오랑(和田傳五郎) 국본창수(國本昌洙)<sup>51)</sup>
- ▲ 전남(광주, 순천) 나까야스(中保與作) 고견현일랑(高見玄一郎) 대조실신(大朝實臣)<sup>52)</sup>
- ▲ 경북(김천, 대구, 경주, 안동) 적원천남(荻原淺男) 금촌팔봉(金村八峰)<sup>53)</sup>
- ▲ 경남(미정)
- ▲ 황해(해주 재령 사리원 황주) 옥강선진(玉岡璿珍)<sup>54)</sup> 학산헌(鶴山憲)<sup>55)</sup>
- ▲ 평남(평양 진남포 순천) 좌등태순(佐藤泰舜) 석전경조(石田耕造)<sup>56)</sup>
- ▲ 평북(미정)
- ▲ 강원(철원, 춘천, 강릉, 삼척) 히로에(廣江澤次郎) 덕산백순(德山白洵)<sup>57)</sup>
- ▲ 함남(원산 함흥 흥남 단천) 고전신일랑(高田信一郎) 천야도부(天野道夫)<sup>58)</sup>
- ▲ 함북(성진 청진 회령 나진 웅기) 영목무웅(鈴木武雄) 후츠우카이(鵜飼信成) 차재정(車載貞) 동생 일웅(桐生一雄)<sup>59)</sup>

〈출전: 「本土決戰舌鋒陣 全鮮에 言論戰士派遣」, 『매일신보』, 1945년 7월 19일〉

---

49) 이성환(李晟煥).  
 50) 이영근(李永根).  
 51) 이창수(李昌洙).  
 52) 박남규(朴南圭).  
 53) 김기진(金基鎭).  
 54) 옥선진(玉璿珍).  
 55) 김두헌(金斗憲).  
 56) 최재서(崔載瑞).  
 57) 최백순(崔白洵).  
 58) 현영섭(玄永燮).  
 59) 인정식(印貞植).



## IX. 황도학회



## 1. 움직이는 지식부대 - 황도학회 발회식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실천하자면 우리는 먼저 일본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겠고 일본 정신을 깨닫자면 먼저 그 본원이 되는 '황도'를 받잡아 알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 아래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난 12월 25일 오후 3시 경성 부민관 소강당에서 황도학회 결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부민관 집회실에는 정각 전부터 학계, 문단, 영화, 음악, 교육 방면에 있는 저명한 여러분이 모여들고 내빈으로 시오바라(塩原) 학무국장, 우가와(鳥川)총력연맹총무부장, 가와고에(川越)조선군참모, 마츠모토(松本) 성대(城大)<sup>1)</sup>교수, 가쓰라(桂) 총독부사회교육과장, 가바(蒲) 조선군보도부원 이하 여러 내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각이 조금 지나 회장에 착석한 일동은 궁성요배, 목도, 황국신민서사 제창이 있는 다음 발기인 대표로 향산광랑(香山光郎)<sup>2)</sup> 씨의 학회설치의 취지와 경과보고가 있고, 취지와 규칙을 심의결정한 후 역원 선거를 마치고 내빈 제씨의 축사와 마쓰모토 교수의 강화가 있었으며 시오바라 국장의 발성으로 만세를 삼창 한 후 산회하였습니다.

창립된 황도학회는 곧 제1차 사업으로 이번 1월 18일부터 부내 죽첨정(竹添町) 대화숙(大和塾)에서 황도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매일 저녁 두 시간씩(1주 4일 개강) 강좌를 베푸는데 강사는 이 방면의 권위 제씨를 망라하여 마쓰모토 교수, 오다까 교수 등 성대 교수와 총독부 조선군 방면에서도 대표자의 강의를 있을 것이라 하는 바, 희망하는 이는 부내 죽첨정(竹添町) 3정목(丁目) 대화숙(大和塾)으로 기별하면 참가 수속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에 발기 취지와 발기인, 역원 제씨의 이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황도학회 취지서

내선일체는 이미 작성된 사실입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바는 반도인 우리들이 일본정신, 즉 황도(皇道)를 배워 깨닫는 것이올시다. 본시의 조선사람 그대로는 우리는 황국 신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참으로 황국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황도를 깨달아 받잡고 또 신도(臣道)를 실천하며, 힘을 합하고 직분을 분담하여 2천 6백만에게 황도가 철저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며 안 되겠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동지자가 서로 모여 황도학회를 발기한 바올시다. 반도의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으로부터 힘써 참가하심을 바랍니다.

본회의 목적은 황도의 학습에 있으므로, 첫째 회원 자신을 위한 강습회, 강연회를 열어서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축사(祝詞)·선명(宣命)·성칙집(聖勅集) 등 일본 정신의 근원이 되는 국전(國典)과 국사(國史)·국문학(國文學) 등의 강좌를 듣기로 합니다.

둘째로는 일반 민중에게 이 정신을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1) 경성제국대학을 뜻함.

2) 가야마(香山光郎),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셋째로는 신궁신사의 참배를 스스로 실천하며 또 장려합니다.

이상, 세 가지 다 본회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한 황도학습은 참으로 긴요질실한 바로서 이 사업의 지속 여하에 의하여 내선일체의 완전한 실현의 지속이 결정될 것이며, 또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의 국민으로서 반도인이 응분의 충력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의 지식계급, 지도계급의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이 운동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이미 황도에 통하신 분도 다른 동포를 위하여 참가하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직 황도에 관하여 수양이 없으신 분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가장 겸손되고 경건하며 진지한 학습자로서의 기분으로 참가하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1940년 12월 1일

여러분께

### 황도학회 발기인(無順)

송산세정(松山世禎)<sup>3)</sup> 신도순(辛島純)<sup>4)</sup> 서원성(瑞原聖)<sup>5)</sup> 이선행(李善行) 박순천(朴順天) 박현환(朴賢煥) 곽행서(郭行瑞) 야촌홍원(野村弘遠)<sup>6)</sup> 오장환(吳章煥) 최옥희(崔玉禧) 안전진웅(安田辰雄)<sup>7)</sup> 김동준(金東駿) 상전용남(上田龍男)<sup>8)</sup> 이창용(李創用) 하옥주일(夏屋朱一) 연원광태랑(延原光太郎) 동원인섭(東原寅燮)<sup>9)</sup> 백산청수(白山靑樹)<sup>10)</sup> 백산계주(白山啓周) 송촌요한(松村耀翰)<sup>11)</sup> 이운재(李允宰) 허연(許然) 이궁묘묵(李宮卯默)<sup>12)</sup> 복진용택(福田龍澤)<sup>13)</sup> 계용묵(桂鎔默) 향산광랑(香山光郎) 안진 채(安田 蔡)<sup>14)</sup> 고목정광(高木正光) 신정박(新井 博) 쓰다 세즈코(津田節子) 이규환(李圭煥) 방촌향도(芳村香道)<sup>15)</sup> 최효정(崔孝貞) 승산아부(勝山雅夫)<sup>16)</sup> 안윤숙(安允淑)<sup>17)</sup> 석원육삼(石原六三) 사전영(寺田瑛) 금강동원(金岡東元)<sup>18)</sup> 대산인화(大山仁化)<sup>19)</sup> 심형구(沈亨求) 안회남(安懷南) 송미룡(松尾龍) 이재명(李載明) 김택용(金澤勇)

- 
- 3) 이세정(李世禎)의 창씨명.
  - 4) 신봉조(辛鳳祚)의 창씨명.
  - 5) 노성석(盧聖錫)의 창씨명.
  - 6) 손홍원(孫弘遠)의 창씨명.
  - 7) 안종화(安鍾和)의 창씨명.
  - 8) 이영근(李永根)의 창씨명.
  - 9) 정인섭(鄭寅燮)의 창씨명.
  - 10)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 11) 주요한의 창씨명.
  - 12) 이묘묵의 창씨명.
  - 13) 오용택(吳龍澤)의 창씨명.
  - 14) 안석영(安夕影)의 창씨명.
  - 15)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 16) 최영주(崔泳柱)의 창씨명.
  - 17) 모윤숙의 창씨명.
  - 18) 김동인의 창씨명.
  - 19) 이인화(李仁化)의 창씨명.



## 황도학회 역원

회장－신도순(辛島純)

이사－송산세정(松山世禎), 구자옥(具滋玉), 사전 영(寺田 瑛), 야촌홍원(野村弘遠), 김택용(金澤勇)

〈출전: 「움직이는 知識部隊－皇道學會發會式」, 『新時代』 第1卷 第2號, 156~157쪽〉

## 2. 황도학회 발회식

‘우리는 먼저 일본정신의 본원인 황도를 우리러 받들어 신도(臣道)를 실천해야 한다’며 반도 유식자를 중심으로 황도학회가 결성되어 지난 25일 경성부민관 소강당에서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권유하여 회원을 획득하지 않고 진정으로 황도를 학습하여 훌륭한 신민이 되겠다는 겸허, 경건, 진실한 사람만을 목적으로 삼았다. 모인 사람은 발회인과 지도원 약 60여 명으로 가라시마(辛島)<sup>20)</sup> 회장으로부터 진지한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각 내빈의 축사와 마츠모토(松本) 경성제대 교수의 강연이 있는 다음, 시오하라(鹽原) 연맹 훈련부장의 발성으로 만세삼창을 한 다음 폐회하였다.

〈출전: 「皇道學會發會式」, 『國民總力』 第3卷 第2號, 1941년 2월, 98쪽〉

## 3. 황도학회 최초의 행사－일본정신강습회를 열다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정신의 본원인 황도를 우리러 받들어 신도(臣道)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며 작년 12월말 경성부민관에서 결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황도학회에서는 제1회 행사로써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1개월이라는 장기에 걸쳐 일본정신강습회를 개최하여 시국 하 반도의 지식인들의 분기를 촉구하였다. 강사는 모두 그 분야의 중진으로 경성제대의 마츠모토 시게히코(松本重彦) 교수와 오타카 아사오(尾高朝雄) 교수, 야마우치(山内) 군참모, 가와코에(川越) 고급참모, 구로키(黒木) 해군대좌, 다나카 하츠오(田中初夫), 쓰다 세츠코(津田節子) 여사, 가마츠카(鎌塚) 시학관(視學官), 사이토(齊藤) 검사 등이었다.

〈출전: 「皇道學會初の行事－日本精神講習會を開く」, 『國民總力』 第3卷 第3號, 1941년 3월, 105쪽〉

---

20) 辛鳳祚.

## 4. 설립 관계 기사

4-1)

### 황도정신을 보급, 오는 25일 황도학회(皇道學會)를 결성하기로

국민총력운동(國民總力運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오늘 내선일체의 완전한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 반도인이 고도국방국가 국민으로서의 응분의 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정신 즉 황도(皇道)를 배우고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한 황도학회(皇道學會)가 탄생하여 힘찬 첫걸음을 내어 놓게 되었다.

송산세정(松山世禎) 씨 등 반도 각계의 명사 50명은 2천 3백만 동포가 참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정신을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는 정신 아래 황도학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얼마 전부터 부내 인사정(仁寺町) 119번지에 창립 사무소를 두고 준비를 거듭하여 오던 중 드디어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부내 태평통(太平通) 부민관(府民館) 소강당에서 황도학회 발회식을 성대히 거행하기로 된 것이다. 발회식에는 총독부 고천(古川) 보안과장, 계(桂)<sup>21)</sup> 사회교육과장을 비롯하여 경성제대 마츠모토(松本) 교수 외 수명도 참석하기로 되었고 시오하라(鹽原) 학무국장과 조선군관계자도 황도학회의 빛날 장래를 축복하는 축사를 베풀기로 되었다.

그런데 동회에서는 발회식이 끝난 후 신춘부터는 강습회·강연회를 열어 일본 정신의 근원인 국전(國典)·국사(國史)·국문학의 강의를 하여 일반 민중에게 황도 정신을 보급하기로 되었고 신궁신사참배는 물론 제사(祭祀) 등도 스스로 실천하여 학회 사업에 매진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출전: 「皇道精神을 普及, 來廿五日 皇道學會를 結成키로」, 『매일신보』, 1940년 12월 24일〉

4-2)

### 황도학회(皇道學會) 어제 부민관에서 발회

황도학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태평통 부민관 소강당에 유지가 모여서 그 발회식을 거행하였는데 석상에는 시오하라(鹽原) 학무국장, 천월(川越) 조선군 참모, 포(蒲) 소좌, 마츠모토(松本) 경성제국대학교수, 오천(烏川) 총력연맹 총무부장, 계(桂) 총독부 사회교육과장, 정수(井守) 총독부 보안과 사무관 등 내빈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우선 궁성요배와 묵도를 드린 뒤에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이어서 발기인을 대표하여 향산광랑(香山光郎) 씨로부터 학회를 설치하는 취지와 오늘까지의 경과보고를 한 다음 취의서와 규칙을 심의 결정하고 역원을 선거한 결과,

▲ 회장: 신도순(辛島純) ▲이사: 송산세정(松山世禎) 동원인섭(東原寅燮) 방촌향도(芳村香道) 천야도부(天野道夫) 사전영(寺田瑛) 구자옥(具滋玉) 야촌홍원(野村弘遠) 김택용(金澤勇) 씨로 결정되고 신도 회장으로부터 신도(臣道)를 강구할 길과 각오에 대하여 축사가 있고 이어서 마쓰모토 교수의 창도와

21) 계광순(桂光淳)의 창씨명.

신도에 대한 강연이 약 40분간 있는 후 시오하라 학무국장의 선장으로 만세를 봉창하고 오후 4시 50분에 산회하였다.

〈출전: 「皇道學會-昨日府民館에서 發會」, 『매일신보』, 1940년 12월 27일〉

## 5. 활동 관계 기사

### 5-1)

#### 일본정신을 수련 황도학회(皇道學會)에서 강습회

황도정신(皇道精神)을 탐구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적 결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황도학회(皇道學會)에서는 그 첫 사업으로 6일부터 16일까지 열하루 동안 경성부내 죽첨정(竹添町) 2정목 8번지의 대화숙(大和塾)에서 제1회 일본정신수도강습회(日本精神修道講習會)를 열기로 되었다. 강사들은 조선군 참모며 흑목(黑木) 해군대좌를 비롯하여 총독부 시학관이며 검사와 경성제대 교수 등 사계의 권위들이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데 이제 그 자세한 일정과 강사 및 강습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6일(木) 오후 7시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에 대하여 - 조선군 산내(山内) 참모
- 7일(金) 오후 7시 군인칙유(軍人勅諭) 모□(謀□) 조선군 천월(川越) 조선군 참모
- 8일(土) 오후 7시 제목 미정 해군무관부(海軍武官府) 해군대신 흑목위정(黑木爲楨)
- 9일(日) □□□□□□을 중심으로 부인좌담회
- 10일(月) 오후 7시 □□ □□□□ 본부□□관 □□□
- 11일(火) 오전 10시 □원수□□□□참배
- 12일(水) 오후 7시 □□□□
- 13일(木) 오후 7시 □□경제□□제와 일본정신 □□□□
- 14일(金) 오후 2시 황국신민도대의(皇國臣民道大義) 성대교수 마츠모토(松本重彦)
- 15일(土) 오후 2시 우동□□(右同□□)
- 16일(日) 오전 10시 폐회식

〈출전: 「日本精神을 修練-皇道學會서 講習會」, 『매일신보』, 1941년 2월 7일〉

### 5-2)

#### 근로보국의 정신대(挺身隊) 20여 종교·사상단체에서 태세 정비

‘일하지 않는 사람은 황국신민이 아니라’라는 외침 아래서 힘차게 전개되는 국민개로(國民皆勞)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심해야겠다고 경성에 있는 내선 종교 교화(教化)사상 20여 단체 대표자 70명이 15일

오후 2시부터 부내 장곡천정(長谷川町)의 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협의한 결과 장차 전선 각지의 관계 각 단체를 한 덩어리로 솔선하여 이 운동에 참가함으로써 임전체제하 한반도의 정신적 국민운동을 힘차게 일으켜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오후 5시경 산회하였다. 회장에는 천안(川岸) 연맹 사무총장, 창무(倉茂) 군 보도부장, 산지내(山之内) 군참모, 오천(烏川)조선연맹 총무부장, 고천(古川) 본부 보안과장, 임(林) 본부 노무과장이며 관계 각 단체의 대표로 중앙기독교청년회의 이동치호(伊東致昊), 경성기독교청년회의 인곡보태랑(寅谷保太郎), 유림(儒林) 연합회의 박택상준(朴澤相駿) 명륜학원(明倫學院) 안인식(安寅植), 조선불교총본산의 광전종욱(廣田鍾郁), 수양단조선연합회의 하시모토(橋本武雄), 녹기(綠旗)연맹의 야마자토(山里). 주자□□□□, 황도학회(皇道學會)의 신도순(辛島純), 조선임전보국단의 향산광랑(香山廣) 씨 등 50여 명이 몰렸다. 처음 창무 군보도부장과 산지내 참모로부터 최근의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륙국민의 각오를 강력히 피력하여 특히 국민 개로운동의 □□생산을 설파한 다음 최근 반도의 애국운동에 대하여 고천 보안과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임 본부 노무과장과 오천 연맹총무부장으로부터 국민개로운동 전개에 대한 설명과 개선 의례(儀禮) 기준 실시에 대한 오천 부장의 설명이 있었다. 여기서 천안 총장이 일어나서 이 운동에 대한 민간정신관계 단체의 협력을 요망하는 간곡한 인사가 있는 다음 각 대표자들이 협의한 결과

전선 각지의 종교 교화 사상 각 단체에서는 총력연맹별로 근로보국대를 조직하여 근로작업에 솔선 참가하는 것으로도 각 소속단체의 집합을 이용하거나 또는 강연회 등을 열어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개로운동의 취지를 선전하며 산업전사를 위문하고 근로모범 인물의 창덕회(昌德會)를 열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다음 개로운동에 관한 지도강연의 제정이며 매년 근로제(勤勞祭)를 전선 각지에서 시행하여 국민개로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근로도장을 건설하여 수감자 및 유민들을 수용훈련하여 일반 노무자(勞務者)의 지위를 향상시킨 각급 시설을 보급시킬 즉 노무자의 대표를 노무관계의 각 기관에 참여하게 하고 공사(公私) 교화기관에서는 적당히 노무자와 접촉하며 또 노무자에 대한 표창시설로 근로장(勤勞章)이나 상금제(賞金制)를 설정할 것을 조선연맹당국에 건의안(建議案)으로 제출하여 실행하여 주도록 요망하였다. 이렇게 국민개로운동의 봉화는 힘차게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에 참가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중앙기독교청년회, 경성기독교청년회, 장로회총회, 조선감리교총리원, 장로교경성노회, □□□□□, 천주공교회(天主公教會), 성공회, 구세군본부, 조선□회□□□□, 유림연합회, 조선불교총본산□□□□, 조선□□□□□□, 천도교회, □□□□□□, 대경일진회, 진명구락부, □□□□□, 대동민우회, 황도학회, □□□□□□□□, □□□□□□, □□□□□□□□, □□□□□□□□.

〈출전: 「勤勞報國의挺身隊」, 『매일신보』, 1941년 9월 16일〉

## X. 녹기연맹



## 1. 강령, 녹기연맹 안내

### 강령

1. 우리는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낙토건설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라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
3. 우리는 인간생활의 본질에 의거하여 각자의 인격완성에 노력한다.

### 녹기연맹 안내

#### 1. 사업의 요지

녹기연맹은 강령의 취지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연혁

1925년 기원절(紀元節)에 발회한 경성천업청년단은 1930년 5월 녹기동인회로 개칭하였고, 이를 모체로 1932년 기원절에 본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 3. 사업의 내용

- 1) 일반사회교화로서 강연회, 강좌, 수양회의 개최 및 강사의 파견을 실시합니다. 또 월간 교회잡지 『녹기(綠旗)』를 발행하며 수시로 팸플릿을 발행합니다.
- 2) 사상연구를 위해 녹기연구소를 설치하고 또 녹기문고에는 도서 약 5천책을 소장하여 일반 관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중견인물양성을 위해 남자는 학생부에 대학 및 각 전문학교의 회를 소속시키고, 여자는 청화여숙(淸和女塾)에 여학교 졸업생을 수용하며 성인부와 부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4) 후생시설로써 예방주사 등을 실시하며 성광각(晟光閣) 공제부에 가입하면 경성부내의 우량상점으로부터 엽가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보험부에서는 메이지생명보험회사와의 특약을 통해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리부에서는 상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4. 연맹원

위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는 연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맹원에게는 월간 『녹기』를 무상 배포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 씨명, 직업 및 연맹비 부담연액을 기입하여 연맹 이사장 앞으로 엽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맹비는 연 2원 이상 각자 임의이지만, 유지비는 연 12원 이상입니다.

#### 5. 녹기연맹본부

주소 경성부 초음동 200번지

본부의 건물을 성광각이라고 칭합니다.  
전화 본국 1284  
구좌 경성 16002  
성광각 건너편에 청화여숙 숙사가 있습니다.

#### 6. 경영 및 자산

경비는 연맹비, 기부금, 국고의 보조금 등으로 이에 충당하고 연간 경비는 약 1만 원입니다. 자산으로는 건축물(성광각 및 여숙), 설비비품 도서 합계 15,000원 있습니다.

〈출전: 「綱領 綠旗聯盟 案内」, 『綠旗』 第1卷 第1號, 1936년 1월〉

## 2.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녹기연맹강령 해설(1~3)

### 2-1)

#### 녹기연맹 강령 해설, 일본국체의 정신에 대해서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 1. 현실로부터 생겨난 기준

녹기연맹 강령 제2조인 “우리는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라 건국의 이상 실현에 공헌한다”에 대한 해설을 위해 먼저 『녹기 아래에(綠旗の下に)』 제57호 이후 네 번에 걸쳐 「일본국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 씀드렸습니다. 본지에서도 강령을 계속해서 해설하기로 했으므로 저번 호에 이어 ‘일본국체의 정신’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른다.’는 그 다음의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신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인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일본국체의 정신’은 ‘일본국체’라는 현실적인 실체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모두 현실을 기초로 합니다.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한낱 공상에 불과합니다. 설령 “……의 정신을 지니자”, “……해야 한다”, “……일 것이다”라는 말을 아무리 호언장담하여 선전하더라도, 또 “……의 정신”, “……이어야 할” 기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리에서만 만들어진 공상입니다. 이는 거의 꿈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회, 국가, 인생에 있어서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공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연맹 강령은 ‘인류의 낙토건설에 기여한다.’,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 ‘각자의 인격완성에 노력한다.’라는 세 개의 커다란 이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가장 이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를 지양



하고 있습니다. 종교, 도덕, 철학, 정치, 모든 문화건설의 최종 목표는 이 세 가지에 포용됩니다. 세상에 이 정도의 대언장어(大言壯語)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커다란 이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현실의 대지를 강하게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한각(閑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연결하는 기준을 지녀야 합니다.

현실, 먼저 사회, 국가, 인생을 봅시다. 현실적인 응시로부터 ‘어떠한 정신을 지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계획된 정신이 생겨나고, 현존하는 이상이 생겨납니다.

과거 진시황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불로불사의 약을 찾다가 여의치 않자 자기 자손이 영원히 제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시황제라 칭하고, 자기 자손을 제2세 제3세로 만세무궁하게 전하려 했습니다만, 불과 15년 만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폴레옹이 일개 포병사관에서 출세하여 순식간에 전 유럽을 석권하면서도 불과 백일천하에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본에 돌연 러시아와 같은 종류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던 사람들이 속속 이론의 현실성이 없음을 폭로하고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로지 힘과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에 커다란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패퇴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가 분명히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걸어온 과거와 현실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일본이 나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합니다.

현실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도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 망해가는 민족에게 그 현실에 따라 망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퇴하는 문화를 그 현실 그대로 파묻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태(荒怠)한 인생을 그대로 침체시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은 항상 많은 모순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류사회의 본질은 항상 다양한 양식의 문화를 종합하여 발전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건국 이후 실로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걸어온 전형적인 나라입니다. 과거 일본의 문명에 대해 프랑스 파리의 솔로본 대학의 교수 미셸 블루봉 박사는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습니다.

“지나의 문명은 외관이 장대하지만, 3천년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진보하지 못했다. …… 일본은 그 역사를 읽어보건대 일대 진보적 국민의 발달의 상규(常規)를 멈추지 않고 분명한 보무(步武)를 나아간 흔적, 원시 초미(草昧)의 시대부터 최근의 전승에 이르기까지 그 사적을 각 부분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사회학적 원칙이 적용에 따라 그 효과를 나타내는 장대한 모습을 ‘사회학의 활동’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천하의 일대 기묘한 모습이다.” 일본과 같이 예전부터 타민족에 침략당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발전을 계속한 나라가 과연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일본과 같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동화하여 종합적인 문화를 창조해온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과 같이 힘과 더불어 정의와 애정으로 역사를 꾸려온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발전의 다양한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현실적인 역사상의 국가에 적용할 때, 여러 외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쓸데없이 요순(堯舜)의 세상만을 동경하면서 현실은 24사(二十四史)의 흥망을 반복하는 지나를 보면서 과연 발전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만(爛漫)한 문화를 지녔던 과거 3천년의 인도를 지금의 인도와 비교하여

사회학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잉카 등 과거 인류사상에 화려한 시대를 구축한 이들 나라가 이후 사회학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규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구미열강이 상호 힘으로 다투는 ‘쟁투(爭鬪)의 역사’를 반복하고, ‘평화스러운 유럽’, ‘발락(勃落)의 구주’에 헐떡이는 쇠약한 모습 그 어디에서 사회의 본질적 진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본은 작지만 실로 견실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생명이 점점 힘차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는 실로 “사회학적 원칙이 적용에 따라 그 효과를 나타내는 장대한 모습을 ‘사회학의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맹 강령 제1조에서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른다.’는 입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실로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른다.’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상을 현실로 품은 일본, 사회발전의 법칙을 실제로 행동하는 일본,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 일본국체와 일본국체의 정신

일본국체의 정신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국체를 근간으로 삼습니다. 다나카 지카쿠(田中智) 선생은 이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체정신이란 ‘국체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 것으로……‘국체를 체달(體達)한 국민정신’으로 해석한다.”(일본국체 신강좌 제1호 「일본국체란 무엇인가」)

국체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책상 위의 사색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관념상의 구성과는 다른 현실적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으로 부정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문 연구가 진전되어 그 신비성이 아무리 폭로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국체입니다.

국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일본국체란 무엇인가’의 해설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국체의 연구를 “아, 그렇습니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의 결론만을 열기하여 이것이 국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인생사회와 유리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일본국체를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자기의 마음과 체달한 국민정신으로 삼는 것이 국체정신입니다. 국체를 지식적인 것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국체적으로 살아나가려는 신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국체의 정신입니다.

일본은 건국 이후 만세일계 천양무궁의 천황을 혈연적이고 신앙적인 중심으로 숭앙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異)민족은 이에 동화하고 이문화는 이에 통용(通融)하여 모두 천황에게 모임으로써 내부의 사회모순과 외부의 강적도 극복해왔습니다. 그러한 국체의 사실을 단순한 역사적 과거의 발걸음이나 연구의 결론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의식적인 신념으로까지 고양시켰습니다.

일본국체의 정신이란 만세일계 천양무궁의 국체를 기초로 더욱이 만세일계 천양무궁을 계속하려는 정신입니다. 다양한 민족문화를 동화통용(同化通融)한 국체에 의거하여 더욱 넓은 동화통용을 실행하

1) 중국역대 왕조의 정사로 인정되는 24종류의 사서.

려는 정신입니다. 사회조직의 변혁에 항상 중추가 되는 국체를 자각하고, 지금 정체된 사회조직을 변혁하려는 정신입니다. 외부의 강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바치고 지켜온 조국(祖國)의 앞날을 천황 중심의 단결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외부모순의 극복에 매진하려는 정신입니다.

따라서 '일본국체의 정신'은 평범한 일본주의자가 말하는 의미의 '일본정신'과는 다릅니다. 일본이 지닌 정신 전체를 막연히 지칭하거나, 역사상 출현한 사상 중에서 그 특징만을 추출하여 논하는 정신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본정신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국체를 자각하는 것, 즉 더욱 천황 중심의 의식을 확고히 지니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또 '일본국체의 정신'은 '국수주의'와도 다릅니다. 일본이 지닌 것은 무엇이랄도 좋다는 배타적 입장에서 자국을 주장하는 것은 국체에 반한 사고입니다. 과거에 다양한 민족문화를 통용한 관대하고 통일적인 힘을 더욱 의식적으로 고조시키면서 모든 세계문화를 포용하고 체계화하여 그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1932년 5·15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널리스트는 '일본에도 파쇼가 일어났다'는 것을 세계를 향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쇼의 원조 무솔리니는 '파쇼는 수출품이 아니다'라며 분연히 반박했습니다.

자국의 것만을 최상으로 믿고 자국의 힘의 광대함을 생각하는 주의(主義)가 타국화(他國化)되었을 때, 이는 그 주의의 자살입니다. 파쇼는 수출품이 아닙니다. 무솔리니는 분명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정신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파쇼와 결코 함께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 지상의 모든 문화를 통합 발전시키려는 역할을 지닌 일본국체의 정신은 결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힘을 지닌 것입니다. 훌륭한 세계의 수출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본이 지닌 존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수출하고 싶다'는 파쇼 원조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모조품을 만들어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또 일본국체의 정신은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시인하는 소위 반동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국체는 사회제도 위에 서서 그 모순이 고차화(高次化)했을 때는 과감히 파괴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역대 천황은 항상 민초를 소중히 생각하고, 백성을 착취 억압하는 지배계급을 혼계하였습니다. 착취적 자본가나 지배자와 완전히 똑같은 이전의 러시아나 타국의 사례는 일본국체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국체의 정신에 입각하여 빨리 현재의 사회제도의 모순을 제거하고 이후의 보다 좋은 사회의 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 3. 일본국체 정신의 체현자로서의 천황

일본국체의 정신은 일본국체와 더불어 일관되게 영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국체의 내면적 정신으로 역대 천황은 이 정신을 확고히 지니면서 언제나 그 체현자였습니다. 천황이 만세일계 천양 무궁의 황위에 즉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배자로서 즉위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계속된 일본국체의 중추로서 그리고 그 정신실현의 지도자로서 즉위하신 것입니다.

폐하의 마음에는 한 조각의 사심이 없습니다. 항상 민초의 안락한 행복만을 바라고 축원하셨습니다. 역대 천황의 인자한 말씀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이렇게 커다란 광영

을 입고 2500년을 지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폐하의 마음은 결코 야마토(大和)민족, 일본민족만을 고려하는 편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방의 바다 모두 한겨레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어찌 파도와 바람으로 이토록 시끄러운 것인가.”

이는 러일전쟁 중에 메이지 대제의 말씀입니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내몰려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폐하의 마음은 적이 된 러시아를 증오하고 이를 괴멸시키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해의 모든 형제, 세계일가의 심경 앞에서 전쟁은 실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위의 말씀의 번역을 읽은 미국대통령 루스벨트가 감격하여 자진해서 강화를 중개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소신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의 행동만을 보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의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더욱이 다음과 같은 ‘국제연맹 탈퇴에 관한 조서’에 나타난 국제평화의 확립을 바라는 깊은 마음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이제 연맹과 손을 놓고 제국의 소신에 따르고자 한다. 하지만 원래부터 동아에 치우쳐 우방의 의(誼)를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짐은 더욱 신(信)을 국제에 두텁게 하고 대의를 우내(宇內)에 현양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러한 사심이 없는 마음, 민초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타민족을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 이 굉장한 정신을 지니신 천황을 중심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다양한 민족문화의 동화가 가능했습니다. 항상 모순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모이고 황통을 만세에 이어감으로써 일본의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고, 또한 세계의 절대적 평화도 약속됩니다. 우리는 착취와 주구에 눈물짓는 백성, 투쟁으로 역사를 중시하는 국가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온유한 천황의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저는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른다.’는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습시다만,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르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하나하나 규명하여 암기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국체를 의식적으로 파지(把持)하기 위해서는 그 체현자이신 천황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지니면 됩니다. 모두가 천황의 슬하에 모이고 천황을 위해 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천황의 슬하에 모일 때야말로 천황의 굉장한 마음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지향하는 일본국체의 정신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천황을 위해 들고 일어섰을 때야말로 국체정신에 입각한 생활이 있고, 그 실현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세간에 천황을 섬기는 일은 군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정말로 유감입니다. 천황 중심의 군대조직, 군인정신을 더욱 널리 일반사회에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학자는 천황을 위해 학문하고, 노동자는 천황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는 천황을 위해 정치에 관여하고, 교육가는 천황을 위해 교편을 잡는……모든 계급과 사람의 마음이 이 한 점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며 죽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임종 시에는 ‘폐하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치할 때야말로 사회의 암흑은 사라지고 조직의 모순은 일소됩니다. 진정한 세계문화의 종합, 명량한 이상사회의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국체의 정신을 예전부터 ‘도(道)’라고 부릅니다. 이 도를 처음으로 제시하신 분은

황실의 영원한 선조인 신(神)입니다. 또한 이 도에 합치하여 도의 체현자 천황을 지켜주신 분도 고래신(古來神)으로 숭앙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神)과 군(君)과 도(道)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지에 게재된 쓰다 사카에(津田榮) 선생의 논문 「국체 신념에서의 삼존일체론」에 설명되어 있고, 건국신화에서의 신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해설에 게재할 것임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조직과 사상에는 암운저미(暗雲低迷)한 사귀(邪鬼)가 배회하고, 진정한 국체가 빛을 발하려고 합니다. 국체명징을 주창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상의 입장에서 일본국체의 정신을 선양하고, 일본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로 삼는 일본국체를 파악하고 기준으로 삼는 일본국체의 정신을 확고히 지녔을 때, 앞길은 분명히 커다란 이상으로 빛나 보일 것입니다. 즉 일본건국의 이상입니다.

연맹 강령의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른다’의 해설은 이로써 마치고, 다음 호는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를 해설하겠습니다.

〈출전: 森田芳夫, 「綠旗聯盟綱領解説 -日本國體の精神に就いて」, 『綠旗』第1卷 第1號, 1936년 1월, 4~9쪽〉

## 2-2)

### 녹기연맹 강령 해설, 일본건국의 이상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 1. 건국이야기(建國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우리는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라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

녹기연맹 강령 제2조의 앞부분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른다.’의 해설은 저번 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더욱이 이 기준에 의거하여 실천해야 할 최고 목표로써 내건 ‘건국의 이상’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건국의 이상’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건국의 이상’입니다. 일본건국의 이상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등 일본 최고(最古)의 국사에 담긴 건국이야기 속에서 탐구됩니다. 그런데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모두 나라(奈良)시대, 즉 황기 1372년과 1380년이라는 훨씬 후대에 편찬된 것이고, 더욱이 건국의 유래는 신화이야기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그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종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학교 시대에 신화를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국체의 절대적 존엄을 교육받은 자가 청년기에 들어와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건국이상을 말하면 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저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건국의 이상은 어떠한 태도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찍이 일본의 건국이야기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sup>2)</sup>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은 그의 저서 『고사통독법(古史通讀法)』에서 “본조(本朝)의 상고의 사(事)를 기록

한 책을 보면, 그 의(義)를 어음(語音)에 구하여 그 기록한 바의 문자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다”는 태도 위에서 『고사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은 다까마노하라(高天原)<sup>3)</sup>를 지상의 상륙(常陸)으로 단정하여 이자나기(伊弉諾尊)<sup>4)</sup>와 이자나미(伊弉冉尊)가 하늘의 부교(浮橋) 위에 서서 천상의 누호코(沼矛)<sup>5)</sup>로 넓은 바다(海原)를 찾아 오노고로시마(淤能碁呂島)를 얻은 이야기를 이 두 신(神)이 전함을 타고 바다에 떠올라 섬 하나를 찾고 그곳에 창을 세워 점령의 표식으로 삼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또 두 신이 좌우로 돌면서 부부가 되어 히루코(水蛭子)를 낳아 배에 실어서 물에 띄워버린 이야기를 이자나기가 좌군(左軍)의 대장, 이자나미가 우군의 대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우군의 절도(節度)를 받지 못해 약간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좌군이 늦어 기회를 잃고 섬 하나를 점령하였지만 결국 그 섬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이가 모토오리 요리나가(本居宣長)<sup>6)</sup>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은 『츠타(くず花)』에서 “모든 신의 소행(所行)은 심상(尋常)의 이(理)를 갖고 있어 사람이 쉽게 헤아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사람의 지(智)는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일은 알 수 없다”며 합리적 비판적 태도를 부정하고, “그런데 이 두 책(二典)에 기록된 것은 너무 분명하여 의심할 수 없다”(『가마쿠시게(玉くしげ)』)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토오리 선생은 두 책, 즉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선생은 신대사(神代史)를 문자 그대로 믿어 그 기록과 같이 우주는 창조되었고, 다까마노하라를 천상으로 삼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은 실제로 태양신으로 천석굴(天石窟)에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견해는 지금의 사상계에도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쿠세키 선생이 취한 같은 방법으로 다까마노하라를 야마토(大和), 부젠(豊前), 이세(伊勢), 오우미(近江)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반대로 조선, 지나, 남양 심지어는 멀리 인도로부터 바빌로니아 지방까지도 탐구의 눈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이전인 메이지 말기의 일입니다만, 기무라 다카타로(木村鷹太郎)가 집필한 『세계적 연구에 의거한 일본태고사<sup>7)</sup>』라는 책은 언어학상으로부터 서양의 고대신화와 일본신화를 비교 연구하여 일치점을 추구하여 결국 일본민족은 바빌로니아에서 발상(發祥)하였고, 그 황위는 일찍이 서양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수언만언(數言萬言)을 통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견해가 의외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건국의 이상이 터무

2) 에도시대의 국학자, 정치가.

3) 하늘나라.

4) 이자나기는 『고사기』에는 이장낙(伊弉諾)라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서기』에는 이사나기(伊弉那岐)로 기록되어 있다. 이장낙존(伊弉諾尊)으로도 불리며, 일본 신화의 창조신이다. 그는 이자나미의 배우자로 많은 섬들과 신들을 낳았고 일본의 선조이다. 이자나미가 풍수로 죽자 이자나기는 그녀를 요미(지하세계)에서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는 돌아와 왼쪽 눈에서는 아마테라스(태양의 여신)를 오른쪽 눈에서는 츠크요미를 그리고 코로는 풍신 스사노를 낳았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그리스 신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신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도 있다. 그는 또 마야문명의 이짚나와 익스첼 신과 흡사하다.

5) 신성한 창.

6) 신도(神道)와 고전문학 분야에서 활약한 일본의 유명한 학자.

7) 『世界的研究に基ける日本太古史』.

니없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요리나가 선생처럼 일본전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분석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신화의 자체가 여러모로 조합되고, 여기에 그 사람 자신의 사상이 곁들여져 다양한 신비적 철학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신흥종교 속에 또 소위 일본주의라 칭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태도의 사람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과 전자의 합리적 해석을 뒤섞은 주장도 많습니다. 최근 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읽은 책에는 신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大國主命)는 첫째로 오호모노누시(大物主神)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는 대자본가를 말합니다. 또 별명을 아시하라노시코오노가미(葦原色許男神)라고 아주 바람둥이(色男)입니다. 이는 현대의 예로 백 퍼센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야치호코노가미(八千矛神)라고 말합니다. 야치호코란 '갈 끝(鉾)' 즉 군비가 왕성한 현대를 나타냅니다.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 오호모노누시 등은 대국, 즉 미국식 캐피탈리즘 전제를 말합니다. 또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는 복(福)의 신이고, 금(金)의 경제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질병을 고치는데 있어 의약만능시대의 말기의 현대는 바로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의 시대인 것입니다.

고사기는 이렇게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의 생애를 통해 현대의 출현을 예언하여 이를 올바로 말하고, 더욱이 그 다음에 다가올 신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신시대란 실로 제2의 천손(天孫)이 강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화의 신성시를 초월하여 과학적인 입장을 무시한 나머지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세계에서 좋게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2. 건국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견해

근대사학의 진보는 고사기, 일본서기의 문헌 분석부터 시작되어 기타 타민족의 언어, 신화, 풍습, 유물 등의 비교연구도 곁들여져 신비적인 표현 아래 숨겨진 정체는 점차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건국에 관한 연대나 과정에 대해서도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문헌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이야기나 신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적 입장도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긍정한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문적 연구라 하더라도 학문에는 스스로 범위가 있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모르는 것은 아무래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연구자가 아마 이럴 것이라는 하나의 역설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단순한 자신의 상상만으로 마음대로 결론을 내는 것을 결코 피해야 합니다. 많은 좌익 역사가는 과학적이라고 자칭하면서 유물사관이라는 고정된 전제에 서서 그 설명에 타당한 자료를 찾아 신화의 사화(史話)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예전의 하쿠세키 선생의 견해가 근대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탐구에 다양한 힌트를 얻습니다만, 그 방법과 성과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술된 일본전국의 기사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서는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는 다만 이들을 통해 파악된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기사가 만들어진 무렵의 일본인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는 그 기사 전부를 그대로 긍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국의 이상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가령 다까마노하라를 예로 들더라도 그 다까마노하라는 정말로 하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지상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 다까마노하라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이자나미의 국토생성의 이야기도 ‘그렇게 일본 나라는 만들어졌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인(上代人)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갑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고, 또 이를 극단적으로 신성시하는 일이 없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대인의 신념 속에서 그들의 국가관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건국의 설화 속에 그들이 무엇을 이상으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각지에 서서 건국의 이상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 3. 일본건국 신화의 중심점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통해 신화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즉,

- 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국토의 여러 신 및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
- ② 스사노오(素戔鳴尊)가 다까마노하라에서 난폭을 일삼아 방축(放逐)된 이야기.
- ③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가 국가를 지킨 이야기와 천손이 강림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일관된 것은 황실의 먼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최고 최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①의 이야기 가운데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국토를 만든 다음, “나는 대팔주국(大八州國) 및 산천초목을 만들고 천하의 주요한 자를 낳았다”고 숭양되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낳은 바, 이 아이는 광채가 찬란하여 육합(六合)의 안을 밝게 비쳤기 때문에 천상으로 보내졌습니다.

②의 이야기에서는 스사노오가 천상에서 아주 난폭했기 때문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결국 천석굴에 들어간 바, 나라 안은 영원한 암흑에 빠져 주야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들은 곤란해지자 석굴 앞에 모여 많은 재미있는 일을 벌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유혹하여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대로 밝아지자 스사노오를 지상으로 추방하기로 되었습니다.

③의 이야기에서는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 하에 국토현상을 위해 사신을 여러 번 파견하여 교섭이 성립된 다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황손 니니기노미코토(瓊々杵尊)에게 3종의 신기(神器)와 더불어 천양무궁의 신칙(神勅)을 하사하였고, 니니기노미코토는 이 명령을 받들어 히무카(日向)에 강림합니다.

건국신화 중에는 야오요로즈(八百萬) 혹은 야소요로즈(八十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 그 신들은 자연히 하나의 중심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절대주로 받들고 있습니다. 스사노오의 횡포를 꾸짖기 위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천석굴에 들어가자 어둠으로 변한 야소요로즈의 신이 모여 그 선후책을 강구하였고, 또 니니기노미코토의 강림 전에 천안하천(天安河川)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명령으로 야오요로즈의 신이 모여 누구를 국양(國讓)의 예비교섭에 파견할 것인지 상담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지위는 확정되었습니다만, 이는 결코 전제 위압적이 아닙니다.

아마 그 어떤 민족도 국토와 군주를 둘러싸고 그 유래를 말하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들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신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표적인 신화를 두세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신은 크로노스(Chronos)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Uranus)를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하여 그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몰아내고 차지한 대가로 그 지배권은 필히 그 아들에게 빼앗길 것으로 예언됩니다. 크로노스는 이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모두 죽였지만, 막내인 제우스(Zeus)만큼은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장한 제우스는 그의 부하에게 번개를 치게 하여 크로노스를 공격하고, 결국 지옥에 빠뜨리고 철사슬로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렇게 크로노스를 대신하여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제우스는 로마어로는 새턴(Saturn)과 주피터(Jupiter)라고 부릅니다.)

북구의 신화에서 최초의 지산 지배자는 이밀(Ymir)입니다. 이밀은 극한세계의 얼음이 극열세계의 열에 녹아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이러한 이밀에 대해 오딘(Odin)은 싸움을 걸어 결국 그를 죽이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밀의 몸에서 하늘, 땅, 산, 바다, 풀, 나무 등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신화에서는 최초로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 끝없는 광명의 세계에 살았고, 이에 비해 앙그라 마이뉴라는 사악한 정령(精靈)은 암흑의 심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창조는 먼저 이 두 신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후라 마즈다가 창조한 인간은 앙그라 마이뉴 때문에 궁핍, 고뇌, 기근, 질병 등의 짐을 떠안고 죽고 맙니다만, 그 사체로부터 남녀가 태어나 인간이 지상에 범람해가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상의 신화 중에는 잔인폭학과 대립항쟁을 통해 지배자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신화 중에서 가장 난폭한 스사노오에 대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천석굴에 집어넣고 말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스사노오는 이즈모(出雲)에 내려온 다음에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증오하지 않고 아메노무라쿠모노츠루(天叢雲劍)을 얻자, “이것은 신검이다. 내가 어찌 감히 좋아하겠는가”라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헌상하고 있습니다. 신화 중에서 가장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대항하여 세력을 얻은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명령이라면 평화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이후는 이즈모로 물러나 대사(大社)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 4. 일본건국 사화(史話)의 중심점

건국이야기는 신대(神代)를 끝마치면 진무천황(神武天皇) 시대에 들어갑니다. 천황은 히무카에 모습을 드러냅니다만, 이후 동정군(東征軍)을 일으켜 결국 야마토 지방을 평정하고 넓은 땅에 제도(帝都)를 열고 처음으로 천황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천황이 히무카에 발길을 내디뎠을 때, “황조황고(皇祖皇考)가 내신내성(乃神乃聖)하여 수년에 걸쳐 즐거움(慶)을 쌓고 빛(暉)을 더하였다. ……그런데 요막(遼邈)의 땅은 아직도 왕택(王澤)이 두루 미치지 못하였다. 읍(邑)에 군(君)이 생기고, 촌(村)에 장(長)이 있어 각자 영역을 나누어 침범하였다. ……동방에 미지(美地)가 있다. ……그 땅은 필히 천업(天業)을 회홍(恢弘)

하여 천하에 광택(光宅)을 비추는 천지와 사방의 중심이다.(일본고대사 연구자 감수 要)”고 숭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선조는 구슈(九州)의 히무카에서 오랜 기간 덕치를 베풀었고, 이는 많은 즐거움에 빛나는 치세였다. 그런데 먼 동방의 땅에서는 서로 사람들이 경계를 만들어 다두고 있다. 이곳에도 즐거움을 골고루 펼쳐야 한다. 더구나 이 땅은 일본의 중심으로서 천하에 천업을 회홍하는데 적절한 곳이라며 천황의 동정은 실로 이러한 이상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군(賊軍) 정벌 사업도 “나는 봉인(鋒刃)의 위력을 빌리지 않고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평정의 대업도 “그것은 대인(大人)의 제(制)를 세우고 필히 의(義)를 따라 민(民)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조(聖造)이겠는가”라며 어디까지나 민리(民利)를 근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강원(疆原)에 수도(都)를 열 때에도 다음과 같은 대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상(上)<sup>8)</sup>은 즉 건령(乾靈)의 나라를 받아서 덕에 답하고 하(下)<sup>9)</sup>는 즉 황손(皇孫)의 적통을 기르는 마음을 넓힌다. 그리하여 6합(六合)을 겸하여 나라를 열고 8괘(八紘)을 취하여 우주로 삼으니,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즉 멀리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나라를 받아 모셔 덕(德)으로 응답하고, 가까이는 니니기노미코토가 용림(隆臨)하셔 정의를 기르고 그 마음을 넓힌 다음, 국내를 통일하여 수도를 열고 모든 세계를 한집안과 같이 절대적인 평화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 5. 일본건국의 이상

일본건국 이야기는 실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신격(神格)과 진무천황의 이상 수행의 사업, 이 두 가지를 골간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정신과 사업은 황손인 니니기노미코토에게 내려진 천양무궁의 신칙에 그 구극점(究極點)을 제시하였고, 진무천황의 이상은 강원에 수도를 열 즈음의 팔굉일우의 선언으로 표출됩니다.

“□원(□原)의 1500년 상서로운 나라, 이것은 우리들 자손의 왕이어야만 하는 토대이고 황손이 통치함이 마땅하며 행의보조(行矣寶祚)의 왕성함은 마치 천양(天壤)과 무궁함이다.”

이 신칙에서 “□원(□原)의 1500년 상서로운 나라”라는 미칭(美稱)을 통해 먼저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긍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권자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왕이어야 할 땅’, ‘천양과 무궁해야 할’ 땅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천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후예가 계승하는 보조(寶祚)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더구나 이 중심의 확립과 더불어 진무천황의 사업을 통해 팔굉일우는 횡으로 널리 모든 세계까지도 그 이상의 발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천양과 더불어 끝나지 않을 보조는 힘으로 다른 곳을 정벌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삶을 즐겁게 하는 절대적 평화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건국의 이상은 실로 이러한 ‘천양무궁’과 ‘팔굉일우’의 정신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건국

8)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9) 현재 천황.

에 관한 많은 이야기도 이러한 중심점에서 그것이 지닌 의의를 규명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는 '건국의 이상'을 다른 방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이 단순한 이상으로 그치지 않고, 국사(國史)를 일 관하여 발전해나가는 이상 실현의 발자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녹기 아래로』의 제43호 「녹기정신에서 본 일본건국의 이상」

육근성 발행 『학교 교련의 참고』 제15호

줄고, 「일본건국이상과 그 발전」

〈출전: 森田芳夫, 「綠旗聯盟綱領解説 日本建國の理想」, 『綠旗』第1卷 第2號, 1936년 2월, 10~15쪽〉

2-3)

### 녹기연맹 강령 해설, 일본건국의 이상(2)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 1. 팔굉일우·천양무궁

녹기연맹 강령 제2조인 “우리는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라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의 ‘건국의 이상’에 대해서는 저번 호에 건국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연구태도를 서술하였고, 또 그 건국이상(建國理想)의 중심점은 ‘팔굉일우(八紘一宇)’와 ‘천양무궁(天壤無窮)’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는 그 이상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조칙(詔勅)에 나타난 ‘팔굉일우’의 ‘팔굉’이란 ‘팔방의 구석(隅)’의 의미로 예전부터 ‘아메노시타’<sup>10)</sup>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를 덮은 집, 즉 온 세계를 한 집안과 같이 평화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단순히 다투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삶을 즐기지 않고 단지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지닌 특질은 항상 자라나고 발전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 모순에 부딪쳐 이를 극복해나가는 곳에 올바른 발전이 있습니다. 평화란 모든 생명의 올바른 발전입니다. 각각 올바로 살면서 그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개현(開顯)’입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드러내 올바른 진실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중추가 필요합니다. 중추 없이는 개별적인 것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분열적인 경향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일본건국의 이상에는 먼저 이러한 중추를 확고히 정하고 그 영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양무궁-천황이 되어 왕통을 이어받음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이 무궁하다(神勅) 중에 무한의 영원성을 지닌 중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중추를 통해 모든 것이 올바로

10) あめのした, 천하.

정비되어 태어납니다. ‘팔굉일우’의 이상은 이러한 중추로부터 나오고, ‘팔굉일우’의 사업은 이러한 중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이 영원히 이 중추를 지키려는 성업(聖業)에 참여할 때, 모든 절대적인 올바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메이지 대제는 교육칙어 속에서 “이 길은……고금(古今)을 통해 그릇되지 않고, 중외(中外)에 널리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양무궁과 팔굉일우의 다른 말로 배찰(拜察)한 것입니다. 건국이상 중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보편타당한 모든 생명의 올바른 발전의 원칙이 제시된 것입니다.

## 2. 건국의 3대강(大綱)과 3종 신기(神器)

영원히 사는 것은 순간에 그 이상을 파악합니다. 모든 개현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에 올바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일본건국의 이상 속에 그 원만한 진리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서기 속의 진무천황의 조칙에 제시된 ‘적경(積慶)’, ‘중휘(重暉)’, ‘양정(養正)’의 정신입니다.

일본 국체학(國體學)의 창시자인 다나카 치카쿠(田中智) 선생은 일찍이 이를 건국의 3대강이라고 이름 붙여 주장했습니다. 즉 적경 ‘즐거움을 쌓는다.’란 사랑의 뜻이고, 중휘 ‘빛을 더한다.’란 힘의 뜻이고, 양정 ‘올바름을 기른다.’란 정의의 의미입니다. 사랑과 힘, 정의 이 세 가지를 올바로 제시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 가지 정신은 그대로 황위의 상징이 되어 3종 신기에서 현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번 호에서 쓰다(津田) 선생이 집필한 「우리의 건국과 국체정신」에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겠습니다.

3종의 신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거울, 구슬, 칼인데 거울은 만물을 틀림없이 비추는 것이다. 즉 정의를 나타낸다. 구슬은 실로 부드러운 느낌을 지닌 사랑의 표현이다. 칼은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정의와 사랑이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아무리 정의와 사랑이 있어도 힘이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 세 가지가 각각 고립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 세 가지 방향을 원만히 구비하는 것은 예전부터 많은 성현의 최고 이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교의 『중용』에서는 “지인용(智仁勇) 세 가지는 천하의 달덕(達德)이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란 정의이고, 인이란 애정이고, 용이란 힘입니다. 불교가 최고 이상으로 삼는 부타(佛陀)의 인격에는 법신(法身), 보신(報身), 응신(應身)의 세 방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다름 아닌 이러한 세 가지의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진리(법신, 즉 정의), 올바른 진리에 의거한 자비심(보신, 즉 사랑), 자비심에 의거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실천(응신, 즉 힘)의 세 방향입니다.

모모타로(桃太郎)가 개와 원숭이, 그리고 핑을 거느리고 오니가시마(鬼ヶ島)를 정벌하고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개는 ‘3일간 사육하면 3년간 보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인자하고 정이 많습니다. 원숭이는 머리 좋은 동

물이자 지혜를 표상하고, 꿩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가는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살고 있는 무서운 곳에서도 이러한 지인용 세 가지를 준비해 가면 훌륭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주창한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은 이러한 세 방면의 사회적 실현을 추구한 말입니다(자유는 힘, 평등은 정의, 박애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최근 교육학적으로 지식 편중의 결함이 제기되어 정조(情操)와 노작(勞作)의 방면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세 가지의 원만한 발달을 인격도야의 지침으로 삼은 것입니다.

옛날 지나의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규슈의 홍수를 다스리고 천자(天子)의 지위에 즉위한 후, 규슈의 금을 모아 아홉 개의 정(鼎)을 만들어 신지(神祇)를 제사한 이후, 정은 천자제후 자리의 심별이 되었습니다. 정의 경중(輕重)을 묻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서 유래합니다만, 이 정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는 것이 치세의 근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요(堯)나라 시절에 요임금이 자신의 치세를 살펴보고 미복(微服)하고 거리에 나섰을 때, 노인이 고복격양(鼓腹擊壤)하면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백성의 평안한 생활 앞에 제력(帝力)은 필요 없다는 것이 지나의 정치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의 만요(萬葉) 시인이 대군(大君) 앞에 절대적인 귀의를 바치면서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기는 시신, 산에 가면 풀이 우거지는 시신, 오로지 대군 옆에서 죽겠노라.”는 노래를 불러 영원한 황위를 바라는 심경과는 단연코 거리가 있습니다.

3종의 신기의 이상과 정의 이상의 차이는 이러한 백성의 심경의 차이입니다. 하야시 라잔(林羅山) 선생은 지나 유교의 입장에서 일본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吳)나라의 태백으로부터 일본 황실이 발상하였다며 그들이 지니고 있던 기물을 일본의 3종의 신기로 헤아렸었습니다만, 이는 정말로 천박한 견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이지 대제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나라의 징표가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3종의 신기는 일본통치의 근본지침입니다. 일본의 혼입니다. 각 대의 천황은 이러한 신기를 물려받고 그 정신을 체현하여 일본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 3. ‘우시하쿠’<sup>11)</sup>로부터 ‘시라스’<sup>12)</sup>로

제 느낌으로는 진리를 천직으로 삼는 일본천황은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십니다. 고전에는 천황 통치의 정신을 ‘시라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사기 안에 아메노토리후네노카미(天鳥船神)와 다케미카즈치노카미(建御雷神)의 두 신(일본서기에는 후즈누시노카미(經津主神)와 다케미카즈치노카미(武甕槌神)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명령을 받고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大國主命)를 찾아와 “네가 영유하는 이시하라 나까쓰꾸니(葦原中國)는 우리 손자의 나라로 하사하려한다”라며 국토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현상할 것을 권유하였습니

11) うしはく.

12) しらす.

다. 통치에 대해서 ‘우시하쿠’의 뜻과 ‘시라스’의 뜻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누(ぬ)’와 ‘우(う)’는 소리 상으로는 통하고 ‘우시(うし)’란 ‘주(主)’의 뜻으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하쿠(はく)’라는 말은 ‘칼을 차다’, ‘신발을 신다’, ‘버선을 신다’의 ‘신다’로 자신의 몸에 붙이는 것입니다. 즉 ‘우시하쿠’로 계속되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뜻입니다.

‘시라스’란 ‘알다(しる)’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알다’라는 뜻, 즉 실정을 알고 지도하며 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오쿠니누시노미고토는 주코쿠(中國)를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토에 대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정신을 갖고 지배하였습니다. 천양무궁의 신칙(神勅) 중에는 “너희 황손이 통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しらせ)’ 또한 ‘시라스’의 뜻입니다. 좀 후대의 일입니다만, 다이호령(大寶令) 중에 천황이 조서를 내렸을 때에 천황 자신을 나타내는 형식으로서 아키츠미가미토 아마토 천황(明神御字日本天皇), 아키츠미가미토 천황(明神御字天皇), 아키츠미가미토 오야시마 천황(明神御字大八洲天皇) 등으로 규정하고, ‘시라스’의 정신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우시하쿠’로부터 ‘시라스’로, 자기를 위한 정치로부터 국민을 위한 정치로의 전환이 일본건국의 스타트입니다.

#### 4. 축사(祝詞)에 나타난 정신

자기를 위해 하는 것에는 스스로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인류를 위해 진정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 존재하는 한 무한히 계속됩니다. 인류가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까지라도 넓혀 갑니다. 팔굉일우와 천양무궁의 이상을 체현하면서 3종 신기의 가르침을 받들고, ‘시라스’의 정신으로 사는 천황폐하의 마음은 무한 영원한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년제(祈年祭)를 맞이해 신전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받드는 축사 중에 그 광대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기년제는 연초에 천황의 안태를 기원함과 더불어 오곡풍양(五穀豐穰)을 빌고 국가의 안강(安康) 등을 기청(祈請)하는 제의(祭儀)로 다이호령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전부터 실시되다가 전국시대 무렵에 중단된 것이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다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궁중에서 2월 4일 반폐(頒幣) 의식이 행해지며 17일에는 궁중 삼전에서 제전이 행해지는데, 폐하가 직접 참배하고 신궁에는 칙사가 파견됩니다.

그 축사의 일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신(皇神)이 둘러보건대 사방의 나라는 하늘의 벽처럼 서있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푸른 구름이 널리 퍼져있다. 흰 구름이 내려와 행복하지 않는 한, 푸른 바다는 마르지 않고 선박은 어디든지 가며, 큰 바다에 배들이 가득차 있다. 육지로 가는 길은 짐을 단단하게 묶고 바위와 나무를 보면서 말들이 어디든지 가는 한, 긴 길은 계속 이어지며, 좁은 나라는 넓어지고, 험준한 나라는 평탄해진다. 멀리있는 나라가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황태어신(皇太御神)에 의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이 의미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바라보는 사방의 나라들은 하늘과 땅 모두 끝이 없고, 하늘에는 파란구름과 하양구름이 널리 펼쳐있다. 공물을 바치는 배는 끊이지 않고 왕래하여 바다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물에서는 공물을 쌓은 말이 머나먼 길을 연속하여 나무뿌리를 밟으면서 다가온다. 좁은 나

라는 땅을 넓히고 준협한 나라는 이를 개척하여 평탄한 나라가 된다. 먼 나라는 많은 그물망을 던져 끌어올리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의 황도화(皇道化)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건국의 이상의 웅대함과 유궁(幽窮)이 유감없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과의 교통이 충분히 열리기 이전부터 벌써 이러한 세계적인 이상을 지닌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내셔널리즘이 주창되지만, 일본은 건국 당초부터 가장 철저한 근거 있는 인터내셔널리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5. 세계 인류의 최종목표

일본건국 이상의 존귀함은 이러한 웅대한 이상이 단순한 사상으로서는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만세일계의 천황으로 이어졌고, 국민은 이 천황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계속된 일본의 역사 속에서 건국이상은 알게 모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종족이 흘러들어왔지만 이들은 모두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한 사실, 여러 문화가 흘러들어왔지만 이들은 모두 천황 중심의 새로운 문화로 통용(通融)된 사실, 항상 백성의 행복을 바라는 천황의 인자함으로 일본의 백성은 사랑과 정의와 힘을 민족정신으로 삼아 모든 모순을 극복해온 역사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건국 당초의 이상정신이 나타났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이전에 발표한 「일본국체」의 해설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아주 먼 옛날에 주창된 이러한 이상정신이 왜 2500년간이나 일관된 정신일 수 있을까라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맥콜리(McCawley)는 로마법왕조(羅馬法王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만든 사업 가운데 로마교회처럼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 교회의 역사는 인류문명의 2대 시기가 걸쳐있다. 희생을 불태운 연기가 판테온(Pantheon)에서 피어올랐을 때, 플라비아누스 원형경기장에 지라프(giraffe)와 호랑이가 으르렁거릴 때까지 인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뿐이다. 세계에서 오랜 계도(系圖)를 자랑하고 가장 영속한 왕실일지라도 로마법왕조에 비하면 그 연령은 마치 아이와도 같이 어리다.

로마법왕조에 비해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니고 더욱 심원 웅대한 이상을 내건 일본 황실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는 얼마나 놀라며 어떻게 서술하였을까요?

지나의 송나라의 태종이 일본에서 온 승려에게 그 단체가 만세일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는 섬 오랑캐일 뿐……하지만 이는 옛날의 도(道)이다.”고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섬 오랑캐란 일본을 경시하는 말입니다만, 지나에 있어서의 옛날의 도, 즉 요순의 시절 외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니체는 위대함이란 방향을 부여한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인류로서의 자각과 반성 위에서 향상의 생활로 나아간 지 수 만년, 민족적 집단을 기초로 국가적 역사를 영위한 지 수 천년, 이 인류의 역사에 몇 번인가 방향이 부여되었습니다. 문화의 흐름에 몇 번인가 방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거기에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고, ‘위대’한 천재가 나왔습니다. ‘위대’한 종교가 생겨나고, ‘위대’한 철

학이 조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 결코 인류의 방향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천재가 인류의 귀결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의 파란만장한 세계사와 혼돈스러운 현하의 대세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많은 곡절에 침잠하면서 아직 갈구할 수 없는 결정적 방향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맑스-놀드는 근대문명을 평하여 “인류는 시종 행복을 욕구하면서 도저히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 실로 지당하고 슬픈 외침이지 않습니까?

일본건국의 이상은 이렇게 고뇌하는 인류에게 제시된 최종의 귀결입니다. 인류에게 제시된 결정적 방향입니다. 생명의 본질적 개현에 입각하여 진정한 평화확립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야 할 진로를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니체가 말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의 위대함을 말한다면, 이러한 일본건국의 이상이야말로 세계인류에 대한 결정적 방향을 제시한 가장 위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현실과의 차이를 명확히 했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일본이 건국 이후 천년을 거쳐 지나의 문명을 흡수하고, 나아가 지나에 대해 자기 자신을 명료히 할 즈음에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편찬되었고, 그 가운데 건국이상은 불후의 문자가 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메이지유신 이후 80년, 서양문명의 근간적인 것을 모두 흡수한 오늘날, 일본주의와 일본학이 주창되고 일본연구가 세계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품은 지금의 세계정국에서 일본의 문제는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향은 단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의 방향과 합치할 때가 온 것입니다. 건국 당초에 내걸었던 일본 건국이상은 일본의 목표로부터 현실적으로 세계의 목표로서 내걸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 건국의 이상은 대외적 선양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내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는 많은 왜곡된 현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非)국체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더불어 내부를 건국의 본의에 비추어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려고 합니까? 건국의 이상실현으로!! 일본은 어디를 향해 나가려고 합니까? 건국의 이상실현으로!! 세계는 어디를 향해 나가려고 합니까? 건국의 이상실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건국의 이상실현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인류는 절대 안주의 경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명시하고 방향을 확고히 지니는 것이 녹기연맹 강령 제2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녹기연맹 제2조의 해설을 시작한 지 이로서 7회째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서 논지가 거칠었고 한정된 지면 때문에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출전: 森田芳夫, 「綠旗聯盟綱領解説 日本建國の理想(2)」, 『綠旗』第1卷 第3號, 1936년 3월, 8~14쪽〉

### 3. 규약개정에 관한 취의서, 녹기연맹규약(1937)

#### 규약개정에 관한 취의서

본 연맹의 현행 규약은 창설 당시 정해진 것으로 과거 4년간의 실적을 감안하면 개폐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규약을 개정하여 실정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항과 같이 개정조



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립 당시는 많은 단체가 연맹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소속단체 및 대표자회 규정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소속단체원 모두가 본부 직속의 연맹원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단체 및 대표자회의 규정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래는 연맹원만으로 조직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연맹의 후원자도 많아지고 『녹기』의 독자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들도 정신적으로 같은 동지로서 받아들이고자 이들을 포함해 회원으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3. 물가의 등귀 및 연맹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회비의 최저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4. 연맹 결성 당시 중견이 되어 활동한 녹기동인회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동인회의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 규정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5. 연맹원의 증가에 따라 현 규약에 의한 임원선출의 방법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실정에 맞추어 개정 하였습니다.
6. 지방이사와 평의원은 실제적으로 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평의원으로 하였습니다.

## 녹기연맹규약(1937년 5월 16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녹기연맹이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강령의 취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그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강령 실현에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의 연구
2. 국가의 중견이 될 인물의 양성
3. 사회교화
4. 후생시설
5. 연맹원의 공제
6. 앞 각 호 이외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본회의 중앙기관으로 본부를 경성부 초음정 200번지에 둔다.

###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을 나누어 연맹원과 찬조회원 및 지우(誌友) 3종으로 한다.

제6조 본회의 강령 및 규약에 동의하고 입회한 자를 연맹원으로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4종으로 나눈다.

1. 특별회원 : 회비 월액 1원 이상을 부담하는 자
2. 정회원 : 회비 월액 50전을 부담하는 자

- 3. 통상회원 : 회비 월액 30전을 부담하는 자
  - 4. 가족회원 : 통상회원의 가족으로 회비 연액 1원을 부담하는 자
- 제7조 본 회의 찬조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찬조회원으로 한다.
- 제8조 『녹기』를 1개년 이상 계속하는 독자를 지우로 한다.
- 제9조 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받는다.
- 제10조 회원으로서 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1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이사 10명 내지 5명
  - 감사 2명 내지 3명
  - 평의원 약간 명
- 제12조 회장은 총회에서 연맹원 가운데 이를 추대한다.
- 제13조 이사, 감사, 평의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14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하고, 회장 사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를 대리한다.
- 제15조 이사는 회무를 심의 처리한다.
- 제16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 제17조 평의원은 필요한 사항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장 회의

- 제18조 회의를 나누어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로 한다.
- 제19조 총회는 매년 봄에 연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임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 총회에는 회원이 출석하여 전년도 회계 및 제반 보고를 받고, 이사회로부터 제출된 사항을 의결한다.
- 제20조 이사회는 매월 1회 이상 이를 열고 중요한 회무를 심의한다.
- 회원은 이사회에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 제21조 평의원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을 평의한다.
- 제22조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 찬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5장 회계

제23조 본 회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로 한다.

제24조 본 회의 예산은 평의원의 의견을 구하여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5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또는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앞 조와 동일한 수속이 필요하다.

제26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역년(曆年)에 따른다.

## 제6장 부칙

제27조 본 규약 집행의 방법 기타 본 규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8조 본 규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녹기연맹 임원 씨명(1937년 6월 16일 현재)

회장	쓰다 사카에(津田榮)
이사	아이바 간지(相羽桓次), 스에 모쿠지로(須江奎二郎), 다가와 고쥬(田川孝三), 다케무라 이사오(竹村勇), 츠지마 다케노부(津島武信), 쓰다 츠요시(津田剛), 나카지마 다다지로(中島唯次郎), 미야타 마코토(宮田實),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아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감사	노나카 겐조(野中健造), 히라토 세이지(平戸清治)
평의원	이시이 모토이치(石井素一), 우스이 겐고(臼井儉吾), 가메이 사다토(亀井貞人), 기나이 가츠오(木内勝男), 구니마츠 야타로(國松彌太郎), 겐삐이 요시로(源平義郎), 고이즈미 기쿠에(小泉菊枝), 고마다 마사츠키(駒田正次), 곤도 도시나카(近藤利伸), 사에키 기요시(佐伯穆), 사카타 세이지로(坂田政治郎), 사토 치요조(佐藤千代藏), 사이다 시게루(財田重), 다키가와 가즈에(瀧川一江), 다쿠마 료타(田熊良太), 다케무라 가츠미(竹村克己), 쓰다 세츠코(津田節子), 츠보이 고세이(坪井幸生), 츠보이 마사토(坪井正人), 야스 유미오(耶須弓雄), 하라구치 준(原口順), 히로가네 도라오(廣兼寅雄), 마츠자키 시즈미(松崎七美), 미야타 간(宮田寛)

### 녹기연맹 본부직원 씨명(○은 본부 상근직원)

사무국

주사	○아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서기	○고바야시 츠기쥬(小林次三)
국원	서무계 ○기도 다카오(木戸孝夫)

성광각숙(晟光閣宿) 직원 이마무라 소마(今村惣馬)  
동 ○이마무라 가즈에(今村カズエ)

교무국

주사 ○쓰다 츠요시(津田剛)  
서기 ○겐삐이 요시로(源平義郎)  
국원 녹기연구소 주사 ○쓰다 츠요시(津田剛)  
성인부 총무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동 나카지마 다다지로(中島唯次郎)  
동 츠지마 다케노부(津島武信)  
동 다가와 고쥬(田川孝三)  
학생부 총무 고마키 스케오(小牧祐夫)  
동 히라이 다케오미(平井武臣)  
부인부 총무 오쿠야마 다카미(奥山貴美)  
청화여숙(淸和女塾) 숙장 쓰다 요시에(津田ヨシエ)  
동 숙감 야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동 숙생 주사 쓰다 세츠코(津田節子)

편집국

주사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서기 ○현영섭(玄永燮)  
국원 편집위원 하라구치 준(原口順)  
동 고마키 스케오(小牧祐夫)  
동 다나카 지로(田中二郎)  
동 나카무라 도시코(中村年子)  
동 다카키 치요(高木ちよ)

〈출전: 「規約改正に関する趣意書, 綠旗聯盟規約」, 『綠旗』第2卷 第7號, 23~25쪽〉

#### 4. 녹기연맹의 정신

녹기연맹의 정신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표징(表徵)됩니다. 녹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봄에 풀과 나무가 파릇파릇 싹트는 그 신선한 녹색입니다. 희망으로 가득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발랄한 색입니다. 우리가 내걸은 녹기정신은 세상 모든 것을 생성 발전

시키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녹색은 절대 평화를 표징합니다. 종래 사회운동에 사용된 적색이나 흑색은 피를 연상시키고, 증오와 투쟁을 그 본질로 삼습니다. 녹기의 녹색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부드러운 녹색을 통해 원융통일(圓融統一)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또 녹색은 웅대심원(雄大深遠)을 표징합니다. 하늘 곳곳을 뒤덮은 옅은 녹색, 유리와도 같은 깊은 바다의 진한 녹색.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담은 웅대함, 어떤 것이라도 포용하는 구원성(久遠性)이 보이지 않습니까? 녹기연맹의 녹색은 그 심원한 사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이즘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입장과 주의부터 크게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것까지 다양하고 지극히 잡다할 정도로 착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이즘의 혼란 속에 새롭게 녹기정신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는 이즘과 동일한 지위에서 서로 그 우열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위에 서서 그 하나하나를 살리고, 더욱 커다란 목표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녹기연맹은 침체한 세상에 생명의 녹색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흩어진 개인에게 융화통일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효과와 감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久遠)한 생명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녹기연맹 강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웅대한 녹색 정신은 이 강령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낙토건설’, ‘건국의 이상실현’, ‘각자의 인격완성’. 이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연맹의 정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은 본지의 강령해설과 기타 논문을 읽고 우리가 말하는 바가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웅대심원한 최고 목표-결국에는 지상의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목표-의 이상을 잊어버리기 쉬운 현대인에게 강력하고 철저하게 주시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외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의 대지에 발을 굳건히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연맹의 사업에 아직 이해가 없는 분은 본지의 체험에서 나온 사색이나 읽을거리, 그리고 연맹의 행사를 정독해 주십시오. 연맹의 사업은 강령에 제시된 ‘사회발전의 법칙’, ‘일본국체의 정신’, ‘인간생활의 본질’, 이 세 가지를 모든 기준으로 삼습니다. 생활원리를 갖지 못한 현대인에게 우리는 광대(宏大)한 이상과 더불어 강력한 생활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녹기』를 정독하십시오. 『녹기』 속에 스며있는 녹색의 정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녹기』로부터 웅대한 이상과 올바른 생활원리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녹기』 정신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출진: 「綠旗聯盟의精神」, 『綠旗』第1卷 第2號, 1936년 2월, 79쪽〉

## 5. 주요단체 조사 - 녹기연맹(1938)

명칭	녹기연맹
취지 목적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르는 인류의 낙토건설 및 일본국체정신을 본받아 건국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본질적인 인격완성에 노력한다.
개황	1925년 1월 천업청년단(天業靑年團) 경성지부의 설립과 더불어 지부장이 된 쓰다 사카에(津田榮)는 동지를 모아 수양에 노력하였다. 이후 내지에 명치회(明治會)가 설립되자 천업청년단 본부는 이에 합류함으로써 동 지부는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본래 동 지부 및 많은 일련주의자(日蓮主義者)는 그동안 기대할만한 기관이 없는 것을 평소 유감으로 생각하였는데, 쓰다 사카에 등이 중심이 되어 1930년 11월 3일 명치절(明治節)을 계기로 전선녹화연맹(全鮮綠化聯盟)을 설립하고 부내 초음정(初音町) 국체회관에 본무소를 두었다. 1932년 5월에는 그곳에 신광각(晨光閣)을 건설하여 본무소를 옮기고, 두 세 개의 세포단체를 만들어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규합하여 전선단체주의연맹을 보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4월에는 이들 여러 단체를 통일하여 녹기연맹이라고 개칭하였다. 이후 강습회와 수양강습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여자수양을 목적으로 청화여숙(淸和女塾)을 설립하여 장기강습을 실시하였다. 한편 1938년 8월 5일에는 불용품정리회의 통제와 모집, 순금 90돈과 해간(海干) 16등을 모아 군부에 헌납하는 등 당국에 즉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 800명.
소재지	경성부 초음정 신광각 내
설립년월일	1932년 4월 3일
소속재산	부동산 약 5천원
유지방법	회원의 회비 및 임시 각출금
임원	쓰다 사카에(津田榮), 스에 모쿠지로(須江柰二郎), 야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쓰다 츠요시(津田剛), 하라구치 준(原口順)

(출전: 「附表 - 主要團體靑島綠旗聯盟」, 『治安情況(京畿道)』, 1938년 9월)

## 6. 쓰다 쓰요시(津田剛), 지나사변의 현대전적 성격 - 비약한 우리 국력의 진상

녹기연맹 주간 쓰다 쓰요시(津田剛)

지나사변 처리는 우리 국책의 중심문제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논의는 공론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사변의 현대전적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현대전은 커다란 입장에서 논할 때, 과거 백인 특히 앵글로색슨에 의해 수립된 세계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구상 아래 인류가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연속적인 세력 이동의 단면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국부적인 전쟁이 일정기간에 시

작되어 일정기간에 종결되어도 결코 그것은 그것만으로 고립된 완료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요컨대 긴 선상에서의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다.

현대전이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고, 또 과거처럼 항상 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래한다. 지나사변 또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래 지나사변은 거슬러 올라가면 만주사변으로 이어지고, 이를 장래로 연장하면 대동아공영권의 건설 속으로 몰입된다. 지나사변은 이들 일련의 선상의 점에 불과한 것이다. 만주사변이 시작되었을 당시, 국민의 일부는 오늘날보다도 훨씬 격렬하게 종래의 전쟁관과 평화관에 집착하여 그 신속한 종결에 마음을 애태웠다. 하지만 만주사변은 종결점이 없이 그대로 지나사변으로 확대되었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소위 정부가 계상(計上)한 만주사변비(滿洲事變費)가 지나사변비(支那事變費) 안으로 통합, 해소된 점을 들어 일단 고립된 만주사변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만주사변의 진정한 건설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만주사변은 이러한 낡은 국민의식에서 본다면 행위(行衛) 불명이 되었다.

지금 또한 지나사변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 국민의 일부는 낡은 전쟁관념에 따라 지나사변의 종결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설령 장개석이 진정으로 전향하여 일단 형식적인 지나사변의 해결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지나사변은 결코 종결되지 않는다. 지나사변 종결의 목표는 진정으로 일본과 지나 양 국민의 합작을 통한 동아신질서의 일환으로서의 새로운 지나의 건설이다. 그런데 지나사변의 현단계는 일본의 세력 하의 새로운 지나의 건설 지역, 장제스 세력 하의 앵글로색슨의 속령지역, 소비에트 세력에 의한 공산지대의 세 개로 분열되고 있다. 지나 대륙은 앞으로 각 블록의 세계 쟁패전의 축소(縮圖)로서 천하가 삼분되는 양상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지나사변은 표면적으로 항일 지나와 일본과의 정면 충돌의 형태로 개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에서의 동아공영권 편입운동과 세계구질서 유지운동 그리고 세계적화운동의 세 개로 나뉘어져 3자 모두 격렬한 본질적인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인 이들 세력의 하나 둘로의 합류와 분리는 본질관계를 뒤집을 수는 없다.

지나사변의 세계쟁패전의 일환으로서의 심입(深入)은 만주사변이 지나사변으로 해소된 것처럼 지나사변 그 자체의 세계전쟁으로의 투입(投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명시한 것은 작년 부터 갑자기 표면화된 남방문제의 긴박화이다. 남양권의 동아공영권으로 편입 없이는 진정한 동아공영권의 건설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남방권이야말로 명백한 앵글로색슨의 세력권이고, 이와 정면충돌 없이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에 삼국동맹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이 불행하게도 싸우게 된다면, 그 문제의 크기는 지나사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일부는 미국과의 정면충돌은 아주 큰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닌 자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우론(愚論)은 국민의 일부가 우리 국력의 진정한 실력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서 생긴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지나사변의 현단계는 표면상 1~2개의 세력의 이동만으로는 그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만주사변과 동일하게 더 커다란 사건을 통해 해소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만주사변이 우리 국력의 비약적 증대를 가져온 것처럼 지나사변 또한 우리 국력의 미증유의 증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지나사변을 뛰어넘어 일본은 더욱이 커다란 문제의 해결을 향해 지나사변도 그 가운데

로 포함하면서 돌진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더구나 우리 국력의 충실은 실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놀랄만한 착종의 하나는 적성국가에 의해 선전된 것처럼 지나사변을 통해 일본의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말을 정말로 믿으려하는 것이다. 만주사변 당시에도 사변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부 보수 계급에 이러한 관념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모든 국부의 축적 및 군비의 확충이 모두 비밀에 붙여져 이러한 착종의 발생에 대해 국책의 필요상 모두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착종에 빠진 것 같다.

일본은 실로 지나사변의 수행을 통해 놀랄만한 정도의 고도국방국가를 완성하고 있다. 먼저 지나사변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우수한 무장 국가가 되었다. 독일과 소련 등 현대적 국방국가가 지닌 고도한 군비와 놀랄만한 충실의 속도는 평시 편성의 데모크라시 국가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는 이번 대전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분명히 이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도 만약 일부 보수적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상을 지니고서는 불과 수년간에 이러한 국방의 충실을 이룰 수 없었을지 모른다. 더구나 지나사변은 육지에서 일거에 일본이 소련과 지나 두 나라에 대한 정면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군비의 충실을 가져왔다. 그 내용은 군사의 기밀에 속하는데, 아마도 그 전력은 전쟁 이전의 여러 배에 달할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한 시절의 돌발적인 전시체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영구성을 지닌 체제로 정비될 수 있었다. 이를 북방으로 사용할지 남방으로 사용할지는 우리의 자재이다. 또 한편 이러한 군비를 마련하면서 전시 하의 국민의 생활안정을 이루는 고도자급자족경제는 전쟁 이전의 일본에서는 매우 취약하였다. 만약 그 당시 일본이 파천황(破天荒)이라고 할 만한 커다란 비약을 일부러 이루지 않았다면, 곧바로 격렬한 열국의 고도국방국가건설 경쟁의 레이스로부터 밀려났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나사변은 거국일치로 결속한 국민을 통해 이 커다란 사업을 훌륭하게 궤도에 올려놓았다. 만주국의 건설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불패의 발판을 전략적, 경제적으로 쌓아올린 것처럼 지나 대륙의 파악(把握)은 고도국방국가건설을 위한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는 남방권의 편입을 통해 비로소 완벽한 것이 되겠지만, 만주사변 및 지나사변 없이 우리나라는 도저히 앵글로색슨에의 의존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의 정세는 전적으로 의존하던 우리나라의 국방경제의 영미 의존을 거의 모두 단절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더 이상 영미에 의존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수많은 모순이 연이어 생겼다. 국민의 일부는 석유와 철철(屑鐵) 등 그 모순 때문에 일어난 장애를 마치 지나사변에 의한 국력의 저하로 오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청산되어야 할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다. 더구나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커다란 비약을 국운의 미증유한 신장이라고 말하지 않고서 그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물적인 면에서 모든 물동계획은 기밀사항에 속하고 외부에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국력의 신장을 나타내는 1~2가지 실례를 들어보겠다.

근대전에서는 국내에서 모을 수 있는 전비(戰費)의 한도는 국민소득의 10할 내지 12할이라고 한다. 러일전쟁 당시 국민이 부담한 전비는 그 당시 소득의 8할 1분에 해당하였다. 통제경제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이전의 구주대전에서 영국은 11할 2분, 프랑스는 11할 4분, 독일은 10할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후 인류는 더욱이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겠지만, 가령 이전의 구주대전 그대로 한다면이라도 우



리나라가 현재 부담할 수 있는 전비의 총액은 실로 1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사변에서는 불과 그 4분의 1 정도만을 사용하였다. 더구나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소련에 대한 준비(형태를 바꾼 만주사변비)이자 또 군비의 충실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 비용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지나사변으로 일본의 국력이 소모되었다는 것은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유언비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은 1935년의 137억 원에서 1937년의 180억 원, 1938년 210억 원, 1939년 250억 원, 1940년 300억 원(추정)으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저축액은 최근 3년간 300억 원에 달하였고, 1941년도에는 13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위 지나사변비는 매년 거의 5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비약적으로 국부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어디를 보아 국력 소모라는 말이 가능한가.

이상을 통해 분명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국력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증대시킨 힘으로 새롭게 남방권 문제의 처리를 위해 매진하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국민은 깊이 우리나라 국력의 현실과 지나사변의 본질을 이해하여 강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

〈출전: 「綠旗聯盟主幹 津田剛, 支那事變の現代戰的性格, 飛躍した我國力の真相, 『三千里』 第13卷 第4號, 1941년 4월, 80~83쪽〉

## 7. 가룩한 총후미담, 녹기연맹부인회 폐품회수 헌납(기사)

### 첫달 월급을 국방헌금해

제주 세무서장(稅務署長) 나가무라(中村善助) 씨의 영운 풍명(豊明)군은 금년 봄 중 복강고등상업(福岡高商)을 졸업한 후 대판(大阪) 15은행에 취직하여 첫 달에 받은 월봉 중에서 5원을 그 부친에게 보내면서 국방헌금을 해 달라고 해서 광주병사부(光州兵士部)에 뜻 깊은 헌금을 하였다.

#### 녹기연맹부인회 - 폐품회수 헌납

녹기연맹부인회에서 폐품회수의 이익금 148원 40전과 또 능금엿 53개를 제20사단을 홀병부(恤兵部)에 보냈다 한다.

#### 직공으로 모은 돈 5원을 헌금

대판 왕풍구(往豊區) 촌상정(村上町) 6정목 3번지에 사는 삼천부단추제조공장(三千部飾製造工場)의 직공 경북 상주군 외남면(外南面) 근□리(斤□里)에 본적을 둔 윤수석(尹水石)은 1금 5원을 제20사단 홀병부(恤兵部)에 헌금해 왔다고 한다.

〈출전: 「가룩한 銃後美談, 첫달 月給을 國防獻金해, 綠旗聯盟婦人會 廢品廻收獻納 職工으로 모은 돈 五圓을 獻金, 『東亞日報』, 1940년 6월 25일〉



## XI. 배영동지회



## 1. 배영동지회 결성에 관한 외국인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경외비(京外秘) 제1769호

1939년 7월 13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경찰서장 귀하

### 배영동지회 결성에 대한 외국인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이번 달 12일 결성된 배영동지회는 사전의 정세 및 저번에 개최된 배영국민대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회장소인 부민관은 영국총영사관에 근접해 있고, 또한 시간적으로 오후 9시가 넘어 군중심리의 추세가 약간 걱정이다. 이에 대회장소 안팎은 물론 영사관 부근에 정사복원을 배치하고, 경찰부와 본정 및 서대문서는 극력 경계를 실시한 결과 아무런 사고 없이 종료하였다. 본 건에 대한 경성의 여러 공관원의 감상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호감을 품은 것처럼 사료된다. 또한 영국영사관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신문기사를 번역하는 것 이외에 외부와의 연락도 차압(差押)하고 행동을 자중하면서 정관(靜觀)하는 등 특이한 동정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기(記)

#### 1. 프랑스 영사, 추량

자신은 프랑스인으로서 일본인의 배영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더욱이 본 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그의 동정을 내사한 바, 오늘 아침은 영사관원 안응렬(安應烈)을 영사실로 불러 신문기사를 역독(譯讀)하여 내용을 들은 다음, 번역을 명령함과 동시에 양분(昂奮)된 얼굴 표정과 어조로 본 회의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를 묻는 등 본 회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였지만, 우선은 특이한 행동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1. 소연방 총영사관 서기관, 츠에트코프

어젯밤 부민관에서 배영대회를 개최한 모양인데, 천진(天津) 조계문제를 둘러싸고 영·일 양국은 가까운 시일에 도쿄에서 회담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 이러한 종류의 회합을 열어 영국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도쿄회담을 불리하게 이끌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은 이 대회 목적의 과연 도움이 되는지 양해하기 어렵다. 구주에서는 최근 단치히(Danzig) 문제<sup>1)</sup>가 심상치 않지만, 본년 2~3월경에 비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지금 영국을 자극하는 행위는 곧바로 동양에 위험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영국 세력을 양분하여 그 절반을 동양으로 유인하는 것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사전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행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 1. 미국 총영사관 영사, 존슨

경성에서의 배영동지회 결성에 대해 오늘 아침 신문지의 보도를 통해 그 대강을 찰지(察知)하였다. 하지만 영일동맹 이후 양국관계는 시종일관 매우 친선으로 일관하였다. 양국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국가조직도 유사하다. 또 양국의 문화 등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영일관계는 계속해서 영원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처럼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어 반영민중운동으로까지 노골화된 것은 제3국인인 우리 미국인으로서도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바라보건데 이번 천진 영국조계에서의 '테러' 범인 인도문제를 계기로 일본이 영국조계를 봉쇄한 이후, 일본의 영국에 대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외교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배영동지회를 결성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선 것은 잘못하면 감정문제로 번질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회의 취지 내용을 보건데, 영국이 항일 장개석 정권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지사변은 선전포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상태도 아니고, 또한 정치가와 법률가는 국제규약상 교전국이 아닌 나라에 무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양지(諒知)하는 바이다. 지난 번 나는 일본에서 발행한 영자신문을 구독한 바, 영국으로부터 지나의 장개석 정권으로 수출된 무기는 독일로부터 장개석 정권으로 수출된 무기의 수량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왜 오늘날 일본은 독일과 친선을 도모하고, 영국과는 배영을 운운하는지 우리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앞으로 약 3개월 예정으로 천진 영사관 일본어 통역으로 명령받아 잠시 부임할 예정이다.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천진 조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출전: 「排英同志會結成ニ對スル外國人ノ感想內查ニ關スル件(京外秘 第1769號)」, 1939년 7월 13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4)〉

## 2. 조선배영동지회연맹 결성되다

참석 기자

이번에 전 조선에 걸쳐 배영대회가 각지에서 개최되고, 각 지방에는 배영동지회가 결성되는 등 일대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영일도교회담'은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잠시 호전의 조짐이 보이는 부분

1) 단치히를 둘러싼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영토 분쟁.

도 있었지만, 노회(老獪)한 영국은 장투수단(長套手段)인 이중외교를 보여 말로는 우교(友交)의 보장을 말하면서도 실제 문제가 되면 법폐(法幣) 등의 문제가 된다면 마치 손을 뒤집는 행동으로 나서는 등 어디까지나 이기주의를 폭로하였다. 더구나 챔벌레인(chamberrlain)과 지나 주재 대사는 원장정책(援莊政策)의 강행을 종전과 변함없이 수행하겠다고 폭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 우리 일본국민은 이러한 폭려불손(暴戾不遜)한 영국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

이에 배영운동의 장기적 적극화가 절대로 필요하여 전 조선의 동지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그 통제지도와 연락을 도모하고자 배영동지회연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월 5일 조선호텔에서 전 조선 30개소의 지방동지회 이사대표가 모여 성대한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먼저 와키(脇) 당무이사의 개회 인사와 더불어 일동은 기립하여 궁성요배 및 전물자 영령에 대한 묵도를 올리고 식순에 따라 진행하였다.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를 좌장으로 천거하고, 마즈다(松田) 상무이사로부터의 경과보고와 연맹의 규약강령 등을 심의 결정하였다. 연맹 임원으로는 회장 윤치호, 부회장 야나베를 추천하여 각각 의미심장한 인사말이 있었다. 상무이사 12명과 평의원 등의 임원이 선출되었고, 이어서 6시부터는 식당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대표들의 불 뽑는 보고와 토론적인 간담이 이어져 연맹의 실천적 전도를 축하하였다. 8시 반부터 제1회 연맹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심의하였다.

## 선언

우리는 영국이 장개척에 대한 원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흥아대업(興亞大業)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국의 폭거에 대한 응징을 절규하고 영일도교회담을 엄중 주시하면서 그 추이에 심각한 주의와 경계해왔다.

역시 회담은 법폐(法幣)의 유통금지와 현은(現銀)의 인도 문제에 이르자 완전히 혼미하여 결국 압초에 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일반 원칙을 승인하여 우리의 주장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용인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나에 대한 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호언하는 등 유감없이 노회(老獪)한 양면외교의 본령을 발휘하고 있다.

즉 영국 외교의 본성은 음험사악(陰險邪惡)과 간지책모(奸智策謀)일 뿐이다. 우리는 누누이 이러한 부정세력의 배제를 외치면서, 동양의 흡혈귀인 영국을 구축하여 아시아인에 의한 대아시아 건설을 도모하였다. 이에 조선배영동지회연맹의 결성에 즈음하여 다시 소리 높여 아시아 교란의 거괴(巨魁)인 영국에 대한 응징을 절규하고, 전 조선적으로 일대 운동을 일으켜 그 세력을 분쇄하고자 한다.

1939년 8월 5일

조선배영동지회연맹

## 강령

하나. 우리는 영국의 모든 원장(援莊) 행동의 절멸을 도모한다.

하나. 동양화평의 공적(公敵)인 영국의 부정세력의 구축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일치협력하여 모든 장애를 배제하고 흥아대업의 달성을 도모한다.

1939년 8월 5일

조선배영동지회연맹

또한 당일 연맹결성식에서는 도쿄회담의 필승을 기원하는 다음과 같은 격려전문을 히라누마(平沼) 수상, 아리타(有田) 외상, 이타가키(板垣) 육군상, 요네우치(米内) 해군상 등 현지 대표에게 타전하였다.

〈격려전보〉 우리는 본일 2300만 대중의 총의를 대표하여 전조선배영동지회연맹을 결성하고 노회(老獯)한 영국에 대해 더욱 응징의 결의를 견고히 하는 바이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타당(妥當)을 배제하고 초지의 관철에 매진하기를 열망한다.

〈출전: 參列記者, 「朝鮮排英同志會聯盟結成さる」, 『東洋之光』 1939년 9월, 40~41쪽〉

### 3. 영국타도를 목적, 배영동지회 탄생

제국의 흥아대업을 방해하는 동아평화의 교란자 영국을 타도하자는 부르짖음은 조선 전도를 덮어 드디어 재경 여섯 신문사의 발기로 6월 12일 밤 7시 반부터 부내 부민관 대강당에서 배영동지회결성대회(排英同志會結成大會)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에는 정각 전부터 배영의 기세 높은 부민이 다수 모여 들어 참가자는 무려 수천에 달하여 장내를 넘치는데 정각이 되자 경성일보 마츠다(松田定久) 씨가 등단하여 개회를 선포하고 먼저 일동은 기립하여 국가합창 궁성요배를 마치고 황군전몰장병 영령에게 묵도를 올린 후 타구치(田口) 경성일보 사장이 발기인을 대표하여 인사를 말하자 회장은 박수의 우뢰로 이를 맞았다. 이어서 사이토(齋藤) 조선일일 사장의 결성 결과 보고가 있었고, 노자키(野岐) 조선신문 부사장 으로부터 대회 규약 초안을 낭독하여 찬부를 물으매 만장의 박수로 이에 찬의를 표하여 결정을 보고 매일신보 사장 최린(崔麟) 씨로부터 동지회 회장으로 윤치호(尹致昊) 씨를 추천하자 윤 회장은 등단하여 인사를 하고 다음에 역원 발표가 있었다. 이리하여 대회 결성을 보자 조선정신총동원연맹 전무이사 정교원(鄭橋源) 씨와 재향군인회 회장 아베(阿部良夫) 씨, 중화총상회 회장 정유분(鄭維芬) 씨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동경과 천진(天津) 등지로부터 온 축전피로가 있는 후 동지회로부터 수상, 외상, 해상, 동경에서 열리는 일영회담(日英會談) 현재 대표 천진방위사령관에 보내는 격려전보 타전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동지회선언(宣言)과 강령(綱領)을 낭독한 후 만세삼창을 하여 8시 반 결성대회를 성대히 마치었는데 결성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치호(尹致昊)

부회장 겸 이사장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전무이사 와키(脇鐵一) 마츠다(松田定久) 김인이(金麟伊)



- 상무이사 히로에(廣江澤次郎) 다나카(田中三郎) 고사카(小坂貞雄) 신타악(申泰嶽) 이성환(李晟煥)  
 히로하타(廣幡謙太郎) 고재욱(高在旭) 오키즈(沖津主稅) 함상훈(咸尙勳)
- 이사 쇼오지(庄司秀雄) 조병상(曹秉相) 쓰다(津田榮) 한만희(韓萬熙) 하준석(河駿錫) 이병길(李丙吉)  
 이토(伊藤正懿) 빈전호웅(濱田虎熊) 가노우(加納一采) 곤도(近藤確郎) 성원경(成元慶) 모리아  
 스(森安敏暢) 신용욱(慎鏞頊) 하시모토(橋本茂雄) 요시가와(吉川義弘) 시부야(澁谷體治) 마츠  
 자키(松崎又五郎) 조기간(趙基楨)
- 상담역 타구치(田口弼一) 최린(崔麟) 김갑순(金甲淳) 방응모(方應謨) 사이토(齋藤五吉) 백관수(白寬  
 洙) 하지(土師盛貞) 정교원(鄭橋源) 유카미 치사부로(由上洽五郎) 아베(阿倍良夫) 에다 노보  
 루(前田昇) 니노미야(二宮晉) 가다(霞田直治)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하야시(林繁藏) 한  
 상룡(韓相龍) 김연수(金季洙) 범한생(范漢生) 마츠모토 마코토(松本誠) 흥식(朴興植) 이승우  
 (李升雨) 아라이(荒井初太郎) 다니타(谷多喜磨) 다테(伊達四雄) 이시하라(石原礎次郎) 다가  
 와(田川常次郎) 윤덕영(尹德榮) 오쿠라(小倉武之助) 무사(武者鍊三) 상내언책(上內彦策) 고  
 바야시(小林采男) 다카하시(高橋省三) 노구치(野口遵) 우시지마(牛島省三) 닛타(新田留次郎)  
 이모리 메이지(伊森明治) 기쿠치(菊池一德) 미쿠라(美座流石) 어담(魚潭) 박두영(朴斗榮) 김  
 명준(金明濬) 김사연(金思演) 임무수(林茂樹) 구라하라(藏原喜藏) 송진우(宋鎭禹) 민규식(閔  
 奎植) 고원훈(高元勳) 호리(堀正一)
- 간 사 모리(森納郎) 이케다(池田敏) 가와베(川邊武郎) 김중원(金中源) 이종모(李鍾模) 이강성(李康  
 成) 구마가이(熊谷正己) 이나바(稻葉龍馬) 석전경조(石田祠市) 오치(越智兵一) 다나카(田中大  
 次郎) 야마모토(山本直一)
- 평의원 가와사키(河崎義男) 스즈키(鈴木正文) 가모이(鴨井悠) 야마모토(山本滋雄) 최창학(崔昌學)  
 박기효(朴基孝) 박희도(朴熙道) 서춘(徐椿) 정구충(鄭求忠) 노자키(野崎眞三) 니이즈마(新妻  
 莞) 형원(金炯元) 스키우라(杉浦洋) 이훈구(李勳求) 사사키(佐佐木忠衛門) 와타나베(渡邊四  
 朝) 차연정(車軟貞) 김계조(金桂祚) 임정엽(林正燁)(기타 단체 대표 및 개인유력자 다수를  
 추가 결정할 예정)

## 선언

황사(皇師) 대륙에 성전(聖戰)하기 2주년 아순충무비(我純忠無比)한 정에는 항일세력을 구축섬멸하여  
 그 무위(武威)는 중외에 퍼졌다. 국민 또한 거국일치하여 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하며 총후철벽(銃後  
 鐵壁)의 안고(安固)를 기하고 있다. 이때에 당하여 완미(頑迷)하고 노회한 영국의 거조(擧措)는 방약무인  
 (傍若無人)하여 언어에 절(絶)한다. 우리는 금일까지 절치은인(切齒隱忍)하였으나 천진조계 문제(天津租  
 界問題)는 드디어 제국의 단호한 조계격절(租界隔絶)을 보았다. 대개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 또  
 한 일치하여 일을 지지(支持)한다. 그러나 당황한 영국은 외교교섭으로써 일체를 호도하려 하여 일영동  
 경회담(日英東京會談)이 열리려 한다. 그러나 그 오만불손하고 음험사악(陰險邪惡)하며 간지책모(奸智  
 策謀)를 일삼는 그 암종(癌腫)을 척결삼제(剔抉芟除)하지 않으면 그 화해(禍害)는 마침내 백년에 미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굴하여 화(和)를 바라지 않는다. 이에 전국에 격(檄)하여 회우(回憂)의 사(士) 서로 모여 배영동지회를 결성하여서 동아교란의 거괴(巨魁) 영국을 응징하여 그 세력을 분쇄하기를 기(期)함.

1939년 7월 12일

배영동지회

## 강령

- 우리는 영국의 모든 원장행동(援蔣行動)을 배격함.
- 우리는 동양평화의 공적인 영(英)세력을 구축하기를 기함.
- 우리는 일치협력하여 장애(障礙)를 배제하여 흥아대업의 달성을 기함.

1939년 7월 12일

배영동지회

〈출전: 「英國打倒를 目的, 排英同志會 誕生」, 『朝光』 第5卷 第9號, 『朝鮮日報社』, 1939년 9월 90~91쪽 ; 「英國을 打倒하라! 排英同志會 誕生-憂國에 불타는 數千餘人士參集 下에 昨夜, 盛大하게 결성식을 舉行」, 『朝鮮日報』, 1939년 7월 13일〉

## 4.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조선사상 제 진영의 전망

### 1. 내선일체운동의 현실적 단계

‘내선일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내가 찾아본 범위 안에서는 1927년 『조선 및 조선민족』에 선우순(鮮于金筓)이 쓴 「내선일체에 대해서」라는 논문이 최초이다. 하지만 당시의 사상은 민족주의나 공산주의의 시대로 이러한 말은 일반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한 논의는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였다.

조선사상계에 ‘내선일체’라는 말이 구체적 지도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지나사변 이후이다. 미나미(南) 총독의 5대 정강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가의 의견은 아니었다.

만주사변 이후 특히 지나사변 이후 조선과 일본은 대립적 관계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 대륙에 대한 발전으로 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숙명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보아 소화(昭和)의 초년까지 조선은 내지의 식민지이었다. 즉 내지 상품의 판매시장이자 내지에의 원료 및 식료품의 공급시장이고, 그 관계에서 내지자본수출시장의 조선이었다. 그것이 언제인가 내지로부터 원료 및 원료제품을 이입하여 공업적 생산 시설을 설비하여 해외시장을 향하는 입장이 되었다. (녹기연맹 발행, 『금일 조선문제강좌』 및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대륙병참기지론해설』 참조)

지나사변 발발 이후 조선의 민중이 보인 적성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가.

황군의 환송, 의연금 모집, 충후의식의 강조 등의 미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강제도 아니

고 체제도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정성이었다. 편협한 민족적 감정도 아니고, 공리적인 타산도 아니었다. 이러한 조선 자체가 갖는 사실이 '내선일체'라는 말을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의 지위에서 보다 앞으로 나아가 문화적, 사상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지도원리가 되었다.

내선일체가 총독정치의 지도원리가 된 것은 재작년이다. 그리고 이 논리에 의거하여 지원병제가 실시되었고, 작년에는 학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관민일체의 조직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시국대응전조선사상보국연맹이 결성된 것도 작년이다. 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선일체의 구현화'에 있고 (미나미 총독의 말), 후자의 임무로서 첫 번째 정책으로 내건 것도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를 도모'하는 것에 있었다.

금년에 들어와 내선일체의 주장과 그 실천은 더욱 명확해졌다. 미나미 총독은 금년 봄 내지에서 귀국하자 내선일체의 근본방침은 일본의 변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관민일치를 강조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가와시마(川島) 총재의 지휘 아래 기구를 변혁한 것은 금년 봄 4월이고, 잡지 『총동원』이 발행된 것은 금년 6월이었다. 사상보국연맹에서 잡지 『사상보국』을 발간한 것은 작년 말이고, 금년 10월에 제1회 대회가 개최되어 향후 방향과 실천을 명확히 밝혔다.

지원병 가운데 명예스러운 전사자가 나오는 등 내지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충성은 각 방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 1200년 전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회상되어 부여신공의 창건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태도 변경과 관민일체 조직의 충실과 더불어 민간의 조선사상계에 건설한 내선일체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역시 금년에 들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사변의 발발을 전후하여 생겨난 많은 조직, 또 전향을 표명한 사상가들이 건설한 소견과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이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노력을 인정함과 더불어 기탄없이 희망을 말하는 것은 서로의 건설, 전진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이하에서 사상계의 제반 움직임에 대해 각 조직을 중심으로 전망을 서술하고, 이들에 대해 개인적인 희망을 피력하고 싶다.

## 2. 사상 제진영의 전망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관민일체의 조직으로서 가장 크다. 금년 봄 통계로 애국반 31만여 개, 반원 425만 명에 달한다. 결성된 당초에는 비상시 실천항목에 대해 셀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뼈라를 살포하였지만, 최근에는 가능한 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의 강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의 궁성요배, 연회는 오후 11시까지, 보수를 받지 않는 것, 의복을 새로 만들 때는 국민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곳은 무엇보다 총독부의 관료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만, 관공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명확히 관공서가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하는 일과 말하는 바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주로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잡지 『총동원』의 편집도 한 호마다 모두 잘 되고 있지만, 더욱 이 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전 조선적으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문화적으로 웅혼(雄渾)한 기개가 있었으면 한다. 생활면에서 절약하는 실천의 강조와 동시에 더욱 조선 자체가 지닌 사명의 고조와 내선일체론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신을 연구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 3천원을 경비절약을 위해 삭감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점에는 더욱 적극성을 갖고 돈을 써야하지 않을까.

조선인으로서의 창설 이후 주사로서 현영섭(玄永燮)이 있는데, 금년 전무이사로서 정교원(鄭喬源)이 들어왔다. 현영섭 씨의 글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금년 2월 「신생 조선의 출발」을 발표하였다. 현영섭 씨는 최초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용감히 내세웠다. 정신적으로 분명한 태도는 적도 많았지만 순정한 청년이 점점 그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다.

현영섭 씨의 밑에 석태우(石泰瑀)가 있다. 나이는 젊지만 아주 살아있는 정렬적인 일본주의자이다. 최근에는 김문집(金文輯)이 촉탁으로 들어왔다. 그는 일찍이 문인협회에서 활약하였다. 이곳의 일은 매우 많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회원 2,765명(금년 7월 말 현재)이다.

조선사회의 특이성으로 인해 조선 사상계의 중견지도자는 거의 젊은 전향자이다. 사상보국연맹은 이 점에서 특이한 분야에 서서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연맹의 간사 김두정(金斗禎)은 최근 「방공전선 승리의 필연성」이라는 글을 썼다. 이는 그가 옥중에서 집필한 것이다. 지금 복잡하고 괴이한 유럽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공'이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라도 나온다면 선전가치도 있고 잘 팔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열성적인 전향자의 연찬(研鑽)과 고백에 대한 단순한 저널리즘적인 비판은 피해야 할 것이다.

사상보국연맹을 중심으로 유억겸(俞億兼), 김한경(金漢卿), 장덕수(張德秀), 박영희(朴英熙)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연맹에는 사상으로서 '방공'이라는 점을 명확한 지도 원리로 삼고 있지만, 일본정신과 내선일체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기관지 『사상보국』을 보더라도 그 점에 대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민간 내지인 측에서 가장 유력한 문화단체는 녹기연맹(綠旗聯盟)이다. 지금까지 조선인 측과도 다양한 교섭접촉을 갖고 또 내선일체의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본년도 총회에서는 특히 '내선일체의 철저'를 결의하였다. 녹기연맹운동의 본지는 '생활운동'이고,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실천을 통해 내선일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장 쓰다 사카에(津田榮)는 경성제대 예과 교수로 화학교육에서는 일본적 권위자이고, 특히 일본적 화학교육 건설의 주장은 전 일본적으로 유명하다. 주간 쓰다 가타시(津田剛)는 쓰다 사카에의 동생으로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의 사색과 연찬의 정수를 모아 『초록빛 생활선언(綠の生活宣言)』이라는 책을 펴낸다고 한다. 『녹기』의 매호마다 글을 쓰고 있는데, 금년 1월에 발표한 논문 「동아협동체와 내선일체의 완성」은 각 방면에서 화제가 되었다. 총주사(總主事) 야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는 경성사회 각 방면에서 많은 접촉을 가지면서 명확한 사상과 생활태도에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의 일본문화연구소에서는 일본국체, 조선역사, 여러 사조, 내선일체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잡지 『녹기』에는 많은 새로운 조선인들의 소론(所論)의 소개와 지도에 힘쓰고, 내선일체를 위한 계몽적 연구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화여숙(淸和女塾)에서는 내지인 여성에게 일본국체의 입장에서 조선을 사랑하고 신장시킬 것을 가르치고, 부인부에서는 조선의 젊은이와 더불어 조선인의 생활을 조사 연구하여 좋은 점을 내지인의 생활에 반영시킬 것을 연구 실행하고 있다. 조선의 의복, 식사, 주거, 완구 등이 지금까지 문제되었다. 쓰다 세츠코(津田節子) 여사를 비롯해 많은 젊은 부인부원이 항상 조선복을 입고 있다.

학생부는 내선 학생이 여러 가지로 활동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내에서 일어난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년 4월 오류동에 녹기농장 오류동 농생숙(農生塾)을 설립하여 야나기사와 시치로(柳澤七郎)가 숙장(塾長)으로서 농촌 출신의 반도 청년의 지도에 힘쓰고 있다. 조선 민간에서의 유일한 농민도장이다.

최근에는 녹기연맹이 『오늘날의 조선문제 강좌』를 출판하였다. 전 6책으로 내선일체, 대륙병참기지, 지원병제, 학제개혁, 사상계, 생활개선, 국사와 조선사 등 각각의 전문가가 집필하였다. 새로운 조선을 말하려는 자는 필히 일독해야 할 책이다.

금년 10월에는 녹기연맹에 조선인으로서 하본용남(河本龍男)<sup>2)</sup>이 들어왔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출신으로 미국의 에모리 대학으로 유학했지만, 마침 지나사면 발발 직후에 일본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가운데, 일본의 진의와 조선 민중이 보여야 할 충후 적성을 주장하면서 내선일체의 이상을 강조하였다. 미국에 있는 민족주의적 조선인은 그의 소론(所論)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지만, 이러한 박해를 물리치고 특히 백인문화의 모순에 애상(愛想)을 품고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도쿄의 대일본청년단 본부에서 일본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체득하고, 금년 10월 경성으로 돌아와 연맹에 가입하였다. 고모토(河本)는 당시 그를 노리던 조선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이고, 다츠오(龍男)는 귀국 시의 선박 이름이 다츠오마루(龍男丸)여서 이를 붙였다고 한다.

동양지광사(東洋之光社)는 금년 1월에 생겨났다. 지금까지 조선인 측의 언론은 거의 조선어였다. 내지인의 대다수는 조선어를 알지 못하고 통역을 통해 그 언론을 볼 뿐이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여기에 종래의 조선사상계의 암운이 배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지광』이 조선인들에 의해 ‘내선일체’의 주장 아래 생겨난 것은 실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사장 박희도(朴熙道)는 신념에 찬 인물로 정치적 수완도 훌륭하다. 다대한 경제적 희생을 지불하면서 매호 발행을 계속하고 있다. 대체로 내선일체에 관해 내선인 쌍방의 주장을 신고 있다. 소위 종합적인 잡지로 아직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1년간의 체험이 말해주듯이 내년부터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장 박희도의 밑에는 편집주임으로 인정식(印貞植), 서무주임으로 김자평(金子平)이 있다. 4월부터는 김용제(金龍濟)가 들어오고, 8월부터는 김한경(金漢卿), 강영석(姜永錫)이 들어왔다. 지금은 경리부장 강영석, 편집부장 김용제, 서무부장 김자평의 체제로 일하고 있다. 김자평을 제외하면 모두 30세 전후로 공산주의운동에 열정을 바쳤던 사람들이다. 강영석은 열렬한 이론가이고 김용제는 열정적인 시인으로 잘 맞는 호흡으로 일하고 있다.

2) 이영근(李泳根)의 창씨명. 上田龍男은 또 다른 창씨명.

금년 8월 협동예술좌(協同藝術座)가 동양지광사의 전속이 되었다. 이는 신극 극단으로 1좌 40명으로 안기석(安基錫), 이백산(李白山), 김승구(金承久) 등 3명이 그 중견이다. 종래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의식을 지닌 조선극단으로부터 유능한 사람들이 전향 탈퇴를 표명하고 대동단결하여 '협동예술좌'를 만들어 동양지광사의 전속이 되었다. 그 구성원의 대부분은 도쿄 혹은 경성에서 연극 활동에 10년 이상의 체험을 지닌 자로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금년 9월 25, 26일에는 부민관에서 공연하고 일반으로부터 대호평을 받았다. 만약 공연이 국어였다면, 도쿄에서 공연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경성 공연을 마치고 함□에서 간도를 순회하고, 또 상하이의 조선인실업구락부에 초빙되어 상하이 난징으로부터 제남(濟南)까지 순회하고 있다. 제1회 공연은 몰리에르(Moliere) 원작인 '조르주 자크 당통(Georges Jacques Danton)'과 김승구의 '동풍(東風)'이었다. 이는 서양과 지나의 것이 아닌 생생한 현실의 조선인의 고통과 기쁨을 언급한 것이다.

또 목요회(木曜會)라는 모임이 있다.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작년인데, 금년에 들어와 회원도 증가하고 활기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회는 별도로 회로서의 조직을 갖지 않는다. 회장을 두지 않고 회합을 가질 뿐으로 경성 사회의 제일선에 있는 내선인 60명을 망라한 친목수양단체이다. 주요 인물은 삼영상점(三永商店)의 손홍원(孫弘遠), 대동광업(大同鑛業)의 이성환(李晟煥), 녹기연맹의 아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조선군사령부 육군소좌 정훈(鄭勳, 圃勳), 삼천리사의 김동환(金東煥) 등이다.

손홍원의 말에 의하면 "목요회라는 것은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닌 한 주간의 중앙인 목요일을 골랐습니다.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회에서는 내선인이 반반으로 군, 관, 민 각 방면의 유력자가 모여 서로 가슴을 열고 그 무엇이라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감정의 충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라고 한다.

이러한 기분으로 월 1~2회 모임을 개최하여 어떤 사람의 강화를 중심으로 상호 내선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모임 덕분에 각자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내선 관민의 중견층이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다.

손홍원은 그가 살고 있는 삼각정(三角町)에 정연맹을 만들고, 여자청년단을 조직하여 조선인 생활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의 회원인 서춘(徐椿)은 과거 조선일보의 주필로서 경제에 관한 평이한 해설은 그를 감히 따라올 자가 없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조선문화사를 설립하고 스스로 사장이 되어 잡지 『태양』을 창간할 계획이다. 잡지 『삼천리』의 주간인 김동환도 열성적인 회원이다. 『삼천리』는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충분한 자금도 없이 악전고투하면서 그 명성을 잘 지켜왔는데, 최근에 주식회사가 되어 앞으로 더욱 충실한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포훈(圃勳)의 이전 조선명은 정훈(鄭勳)이다. 그는 열렬한 일본주의자로 항상 조선인들에게 진정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절규한다. 군사령부의 이색적인 인물이다. 또 이 모임의 회원으로 나가사키 유조(長崎祐三)가 있다. 그는 지금 신의주지방법원의 검사인데 사상보국연맹의 지도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조선문인협회는 금년 10월 29일에 설립되었다. 종래 가장 소극적이었던 조선문단이 내지인층 문인과 함께 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장보국의 집단을 결성한 것이다. 회장은 이광수(李光洙)이고, 내지인

측으로부터는 경성제대 교수인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녹기연맹 주간인 쓰다 가타시(津田剛), 가인 모모세 치히로(百瀬千尋), 조인인 측으로부터는 박영희(朴英熙), 정인섭(鄭寅燮), 유진오(俞鎭午), 김동환(金東煥) 등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수는 조선문단의 창설자로 현재 문예계의 최고봉이다. 그는 예전에는 민족주의운동 시대의 중심적인 인물의 한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지한 일본주의자로서 반도 총후의 쟁쟁한 지도자이다. 최근 발표한 『무명』은 조선 창작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데 『모던 일본』의 조선 특집호에 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협회는 이제 막 설립되었지만 내선 문화인의 중견이 마음과 마음을 아름답게 맺어 내일의 새로운 조선문화의 방향을 검토 지시하고 있다.

박영희는 금년 봄에 임학수(林學洙)와 함께 펜 부대로서 북지 전선에 나갔다. 그 기행문을 『전선기행』으로 발행하였고 국어도 나왔다. 임학수는 『전선시집』을 간행한 바 있다. 박영희가 만든 『지원병』은 이번에 동아영화제작소의 첫 번째 작품으로 영화화되었다. 유진오는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그의 작품과 평론은 일본적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인섭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영국어학으로 유명하고 명석한 인물이다. 김문집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부터 『신민의 서-지상국민의 자기인식』라는 팸플릿을 간행하여 순수한 일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문단에서는 국민문학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어의 표현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 점에 관해 조선문인협회 관계자 사이에서 올바른 답과 해설이 제시될 것이다. 문인협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이다.

조금 다른 방향을 살펴보면 시천교를 개조한 대동일진회는 금년에 설립되었다. 이 모임의 중심인물은 이석규(李碩奎)이다. 그는 30년 전에 일한병합을 상서한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의 영식이다. 이 모임의 주장은 한국병합에 즈음하여 이를 열망한 조선인들의 심경을 역설하고, 조선이 스스로 합방한 정신을 회고하는 것에서부터 내선일체는 출발한다는 것이다. 일진회의 중심에 동학원(東學院)이 있는데 동학의 사상과 황도가 일치한다는 입장에서 황(皇)의 표상인 국기를 중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임의 중견이 부자상전의 일진회의 직계분자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견실한 전진이 예상된다.

단, 이 모임은 오랜 종교형태로부터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좋은데, 특히 황도와 동학을 근본사상으로 삼은 채 불도의 3학(三學)과의 관련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실천에 많이 힘쓰기보다 우선 이러한 근본사상을 확립해야 한다.

조선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부인문제연구회가 있다. 회원은 손정규(孫貞圭), 이숙중(李淑鍾), 조기홍(趙圻烘), 송금선(宋今璇), 김활란(金活蘭), 고헌경(高鳳京), 홍승원(洪承源) 등이다. 금년과 같은 비상시에 의식의 고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개조를 단행해야 할 때, 이들이 글과 말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크게 인정해야 한다. 조선의 사상가들은 의식주부터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장 잘못된 것이다. 남성 측으로부터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녹기연맹 부인부는 이 연구회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녹기연맹이 발행한 강좌에 이들의 주장을 기록한 『현대 조서의 생활과 그 개조』가 있다.

금년 여름에는 국민문화연구소와 내선일체실천사가 연이어 결성되었다. 전자는 구을회(具乙會)가 자금을 각출하여 내선일체 문화운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처음에는 유력한 문화인이 모였지만 곧바로 없

어졌다. 뒤이어 김성율(金聲律, 『사실로 본 내선일체』의 저자)이 들어왔지만 역시 이어지지 못하고 전라남도로 내려가는 등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런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은 자금이 부족하면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중요하다.

내선일체실천사는 ‘내선일체는 먼저 내선결혼부터’라며 내선결혼을 다루고 있다. 지금부터 더욱 번성할 것이다.

가마다 자와이치로(鎌田澤一郎)가 주재하는 대륙경제연구소는 동양지광사의 2층에 편집사무실을 두고 이정우(李滄雨)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월간잡지 『조선경제』도 내년부터 간행하는 모양이다.

조선대아시아협회에는 히로에 자와지로(廣江澤次郎)가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말하는 하지만 실제로 지나인들이 왔을 때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심했던 것은 9월에 개최된 대일본청년단체대회에서 너무나 형편없는 대우로 인해 지나 대표가 분개하여 돌아가 버린 일이다. 당시의 히로에의 활동은 실로 훌륭했다. 내년부터는 더욱 관민 모두가 주의하여 금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 8월 전 조선 각지의 대표가 모여 전국적인 단위로 조선배영동지회연맹을 결성하였지만, 당시에만 기쁨을 토했을 뿐 독소불가침조약 이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질없이 기쁨을 토하는 일은 대국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배격을 외친다면 말뿐이 아닌 영국과의 전쟁 준비태세를 촉진하고, 조선에서 영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격할지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아베(阿部) 내각이 들어서면서 아시아의 적 영국은 어디까지나 배격해야 할 대상이다. 이 연맹의 건설한 실천을 바라마지 않는다.

## 결론

나는 조선사상계의 여러 진영을 ‘내선일체’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았다. 이 사상 이외에도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국체를 중심으로 내지인도 조선인도 일체가 되어 황국신민의 적성을 다하는 것이 내선일체의 본의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 사상과 실천의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수많은 비판보다 구체적이고 건설한 하나의 건설적 실천이다. 일시적인 흥분보다는 느리더라도 영원성을 지닌 건설한 발걸음이다.

1939년 조선사상계는 방향이 정해졌다. 여러 분야에 걸쳐 밑바탕은 만들어졌다. 일은 지금부터이다. 내년은 병합된 지 만 30년, 일본 또한 빛나는 2600년을 맞이한다. 금년에 정해진 방향과 구축된 밑바탕 위에서 내년에는 정말로 건설한 건설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손과 손을 잡으면서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녹기연맹에 속한 사람이다. 따라서 녹기연맹을 소개하는 것이 비록 적절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생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믿기에 기술하였다.)

〈출전: 森田芳夫, 「朝鮮思想都陣營의 展望」, 『東洋之光』, 1941년 1월, 51~59쪽〉



## 5. 배영동지회 결성 관계 기사

5-1)

배영국민대회(排英國國民大會) 응징운동(膺懲運動)의 봉화, 평양 대구서도 꺾기, 미망의 가면을 지탄

평양

동양영원의 평화권 수행에 대하여 입(立)을 위한 □□ 영국의 가지가지의 음모와 기괴 천만한 방해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천진(天津) 영국 조계 당국의 해괴한 태도는 필경 전 국민의 분격(憤激)을 사게 되어 15일 경성의 '배영국민대회'를 필두로 하여 평양에서도 단호히 이를 개최하고 영국의 배격을 표명하고자 15일 오후 2시부터 평양철도 '호텔'에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그 준비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종 협의한 결과 17일 오후 9시 평양 신공회당 대 '홀'에서 평양의 전 부민을 거하여 단연 '배영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배영의 일대 결의를 표명하기로 되었다.

이날 사회자는 이나바(稻葉善之助) 씨, 연사는 이기찬(李基燦) 채곡실(蔡谷實) 최정묵(崔鼎默) 박상□(朴尙□) 4씨로 각기 5분내지 10분간씩의 동양을 망쳐놓으려는 영국 배격 응징의 열변을 토한 후 복도영삭(福島英朔) 씨로부터 국민의 일대결의를 표명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고 그로부터 다시 행렬을 지어 평양신사 앞까지 일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후 평양신사에 참배봉고(參拜奉告)하고 해산하기로 되었다.

대구

대구부민대회는 15일 오후 8시 대구공회당에 개최하여 타도 영국이란 현하에 연사 조선민보사원이사, 대구일보사 홍곡(鴻谷)주필, 도회의원 문명기(文明琦), 재향군인연합회장 오오시마(大島利), 고우(府議小野) 영용부회 부의장 오노(小野元太) 제씨의 순서로 열변을 다하여 17만 부민의 찬동으로 최후에 배영선언을 결의하고 동 오후 11시 산회하였다. 오랜 내선(內鮮)의 연유, 상호일체의 사실에 대어심을 기(壽)하옵시와 당시 아국과 백제, 신라, 고구려의 관계에 있어서 교섭의 특히 심절(深切)하였던 오진(應神)천황 사이메이(齊明)천황 텐지(天智)황후의 어사주(四柱)의 신(神)을 은혜의 땅 부여(夫餘)에 삼가 □청하여

일(一)□□ 내선일체강화(內鮮一體強化)철저의 정신적 전당이 되도록 하옵시는 처분에 출(出)하옵신 줄로 삼가 공찰(恐察)하는 차제이다.

때마침 정히 미증유의 비상시국에 제회하여 반도의 사명은 더욱더 가중하여 혼연일치(渾然一致)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중대사명 달성에 매진할 때에 당하여 만민일치 협력 도상의 성지(聖旨)를 봉례하여 더욱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사보공(一死報公)의 지성을 새로이 하여서 황은의 만일에 봉부(奉副)할 일을 기필하는 차제이다.

〈출전: 「排英國國民大會, 膺懲運動의 烽火 平壤, 大邱서도 蹶起」, 『매일신보』, 1939년 6월 17일〉

## 7일 '배영동지회'를 결성, 동지의 분기 요망, 결성식은 12일 부민관서

일역 동포가 그의 흥망을 부(負)하고 쫓기의 흥아대업을 방해하면서 원장(援蔣)의 마수를 휘두르는 노회 영국을 단호배격하고 동아에서 구축하려고 일어난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 재경성(在京城) 육신문사(六新聞社) 공동 주최의 배영국민대회의 응구(雄叫)는 전조선 각지에 확대, 이제 한반도의 배영열(排英熱)은 현재 천진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북지(北支), 몽강(蒙疆)<sup>3)</sup>, 중지(中支)에도 철화(鐵火)의 염(炎)으로 되어 연상(然上)하여 단호히 이 기회를 포착하여 적성(敵性) 현저(顯著)한 영국을 응징하지 않으면 그 화근은 백년에 미친다 하여 배영국민대회의 여진(餘塵)은 각 방면에서 이에 동지를 결성할 것을 간망(懇望)하여 왔으므로 춘추회(春秋會) 재경성(在京城) 육신문사장(六新聞社長)은 이의 창립 준비차 가끔 협의 국민대회의 실행위원을 창립준비위원으로서 이의 구체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전(聖戰) 2주년기념일의 7일 최후적 타협회를 개최, 배영동지회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배영동지회의 결성식은 12일 오후 7시 반부터 부민관(府民館) 대강당에서 거행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하役員(役員)을 결정하고 이 진용(陣容)을 정비, 소기의 목적에 향하여 매진하기로 되어 계속하여 이의 기념강연회를 개최, 가면을 쓴 영국을 폭로할 것이다. 또 이의 참가는 각 단체 개인으로서 국우(國憂)의 뜻(志)은 경성일보사 내 배영동지회 가(假)사무소에 신청하기를 희망한다.

## '배영동지회' 결성 취의서

세기의 대위업인 성전(聖戰)은 이에 2주년을 맞이한 바 순충무비(純忠無比)한 황군 정예는 해(海)에 육(陸)에 공(空)으로 용맹 과감 혁혁한 전과를 획득하여 그의 무위는 정히 대륙을 제압 항일의 장(蔣)정권도 변경에까지 둔□(遁□), 개전의 당초 호힐(豪詰)하던 세위는 전혀 상실 일개 지방정권으로 실추되어 급전 되기되고 있다. 동아도의(東亞道義)의 현현(顯現)한 신질서의 건설 성립의 날도 재근(在近)하다. 그런데 노회한 영국은 음으로 양으로 장개석(蔣介石)의 망거(妄舉)를 원조, 그의 폭상(暴狀)은 언어도단이다. 즉 그들의 폭상은 매사에 그 예를 매거(枚舉)키 어렵다. 특히 천진상계문제(天津上界問題)에 이르러서는 절치액완(切齒扼腕)<sup>4)</sup>할만하다. 그 오만불손한 것은 참으로 천인(天人)이 함께 불허하는 바이다. 이제 그의 암종을 척결하지 않으면 그 화해는 장차 아손(兒孫)에까지 미칠 것은 필연하다. 이에 있어 근간 동경(東京)서 개시되는 일영회담에 있어 다행히 초기의 주장과 목적을 관찰한다면 몰라도 그의 전도(前途)에 수많은 난관 장애가 있어, 결렬하여 싸울 뿐이다.

그리고 지나사변(支那事變)<sup>5)</sup>의 전도는 더욱 복잡다난한 상모(相貌)를 노정(露呈)하고 아구(亞歐)의 간형영(間形影)은 서로 관련하여 일소국지(一小局地)의 사단도 항상 전국을 요동시켜 이제 전 세계는

3) 현재 내몽고 자치구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

4) 이를 갈고 팔을 걷어붙이며 주먹을 꼭 쥐다는 뜻으로 매우 분해 버리는 모습을 이르는 말.

5) 중일전쟁을 뜻함.

모두 대변혁의 기운을 잉태 격동의 와중에 있다. 이번 가을에 당하여 우리 동애(同愛)의 지사(志士)는 항일지나(抗日支那)를 지원하는 제삼국의 적성에 대하여 단호철퇴를 가할 결의를 명시하고 우선 당면의 원장적국인 영국으로서 반성자숙시키려는 거사에 출(出)한 것이다. 유구(悠久) 2천 6백년, 조국 일본의 상모(相貌)를 회고하면 만여(萬餘)의 생명(生靈)과 거역(巨億)의 부를 희생하고 대아시아의 천지에 수행하고 있는 성전이야말로 팔굉일우(八紘一宇) 천업(天業)을 회홍(恢弘)하는 황국약진의 거보로서 금후에 비할 국민적 태세는 다시 일단의 공고한 결의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즉 이에 불퇴전(不退轉)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동우(同憂)의 지사에 격(檄)하여 배영동지회를 결성, 흥아대업의 달성상 방해되는 영국의 간악한 행동을 배척하려는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들과 동지인 제씨들이 와서 꺾기하여 동아의 각란자인 영국에 일대 통봉(痛捧)을 내리자.

〈출전: 「七日 '排英同志會'를 結成, 同志의 憤起 要望, 結成式은 十二日 府民館서, 『東亞日報』, 1939년 7월 9일〉

### 5-3)

#### 배영동지회를 결성, 대구 평양 등지에서 참가신청이 쇄도, 12일 오후 부민관 강당에서

흥아대업(興亞大業)을 방해하며 은근히 흉한 손길을 뻗쳐 장개석을 돕고 있는 흉칙한 영국을 배격하여 새로운 동아 천지에서 내쫓고자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 소속으로 서울에 있는 육개 신문사 주최의 저번 배영국민대회는 마침내 그 물결이 전조선 방방곡곡에 퍼지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선의 배영열은 천진(天津)의 현지를 비롯하여 북지(北支), 몽강(蒙疆), 중지(中支)만 못할 것이 없는 터이다. 이 끊어 오르는 배영열은 이제 아주 영국을 응징하여 그 화근을 뽑지 아니하면 후회가 백년 후에까지 미칠 것이라 하여 지난번 배영국민대회 뒤 끝에 각 방면으로부터 이러한 동지들로 함께 뭉치자는 소리가 높았으므로 드디어 배영동지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서울 6개 신문사 사장이 창립준비로 여러 번의 논한 결과 국민대회 때 실행위원을 그대로 창립준비위원으로 삼아 그 구체안을 세우던 중이었는데 마침내 성전 두 돌맞이인 7일 마지막의 의논이 끝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결성식은 오는 12일 오후 7시 반부터 시내 부민관 대강당에서 거행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하 역원을 뽑아서 진용을 바로 잡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 나가기로 되었다. 이와 아울러 기념강연회를 열고 영국이 뒤집어쓰고 있는 탈바가지를 벗겨 버릴 작정인데 단체로나 개인로나 나라를 근심하는 이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터인즉 참가할 이는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에 있는 배영동지회 임시사무소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하며 참가신청은 멀리 대구(大邱), 평양(平壤) 방면으로부터 쇄도하는 상태로 계원들은 이의 정리에 분망 중이라 한다.

〈출전: 「排英同志會를 結成, 大邱 平壤 等地에서 參加 申請이 殺到, 十二日 午後 府民館 講堂에서, 『東亞日報』, 1939년 7월 11일〉

5-4)

동우(同憂)의 인사운집 배영동지회 결성, 노회 영국의 원장행동(援蔣行動) 배격,  
작야(昨夜) 부민관에서 성거(盛舉)

조선반도에 물일 듯 하는 배영의 기운이 열매를 맺어 결국 어제 12일 오후 7시 3분부터 시내 부민관(府民館) 대강당에서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발기인은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를 중심으로 참가 가맹이 전조선 각지에서 쇄도하여 운집한 동우 의사가 2천여 명을 돌파, 만당에 배영열이 넘치는 가운데 정각이 되자 마츠다(松田定久) 씨 경일<sup>6)</sup>의 개회를 선언하고 국가합창, 궁성요배, 목도를 한 후 다구치(田口) 경일사장이 발기인 대표로 인사를 말하고 사이토(齋藤) 조선일일 사장의 경과보고, 노자키(野崎) 조선신문 부사장의 규약 결정, 윤치호(尹致昊) 씨를 동지회 회장으로 추거, 동회장의 인사가 있는 뒤에 역원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 선, 만 각지로부터의 축전(祝電)을 읽고 수상(首相), 외상(外相), 육상(陸相), 해상(海相), 동경회담(東京會談)의 현재 대표, 천진방위사령관(天津防衛司令官)에서 격려 전보를 타전, 끝으로 동지회 선언문 낭독, 만세를 삼창하고 동 8시경에 성황리에 이의의있는 결성대회를 마쳤는데 뒤이어 재향군인회 회장 아베(安倍良夫) 소장의 배영 연설, 유지의 10분간 연설, 사변 뉴스의 상영 등으로 배영기세를 촉진하였다.

선언

황사(皇師) 대륙에 성전(聖戰)하기 2주년 아순충무비(我純忠無比)한 정예는 항일세력을 구축섬멸하여 그 무위(武威)는 중외에 퍼졌다. 국민 또한 거국일치하여 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하며 총후철벽(銃後鐵壁)의 안고(安固)를 기하고 있다. 이때에 당하여 완미(頑迷)하고 노회한 영국의 거조(擧措)는 방약무인(傍若無人)하여 언어에 절(絶)한다. 우리는 금일까지 절치은인(切齒隱忍)하였으나 천진조계 문제(天津租界 問題)는 드디어 제국의 단호한 조계격절(租界隔絶)을 보았다. 대개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 또한 일치하여 일을 지지(支持)한다. 그러나 당황한 영국은 외교교섭으로써 일체를 호도하려 하여 일영동경회담(日英東京會談)이 열리려 한다. 그러나 그 오만불손하고 음험사악(陰險邪惡)하며 간지책모(奸智策謀)를 일삼는 그 암종(癌腫)을 척결삼제(剔抉芟除)하지 않으면 그 화해(禍害)는 마침내 백년에 미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굴하여 화(和)를 바라지 않는다. 이에 전국에 격(檄)하여 회우(回憂)의 사(士) 서로 모여 배영동지회를 결성하여서 동아교란의 거괴(巨魁) 영국을 응징하여 그 세력을 분쇄하기를 기(期)함.

1939년 7월 12일

배영동지회

강령

- 우리는 영국의 모든 원장행동(援蔣行動)을 배격함.

6) 경성일보.

- 우리는 동양평화의 공적인 영(英) 세력을 구축하기를 기함.
- 우리는 일치협력하여 장애(障碍)를 배제하여 흥아대업의 달성을 기함.

1939년 7월 12일

배영동지회

〈출전: 「同憂의 人士雲集 排英同志會 結成, 老耄 英國의 援蔣行動排擊, 昨夜 府民館에서 盛舉」,  
『東亞日報』, 1939년 7월 13일〉

## 6. 배영동지회연맹 결성 관계 기사

6-1)

### 전조선, 배영동지회연맹 8월 1일 결성식, 어제 상무이사회 실행방법 토의

일영동경회담(日英東京會談)은 원칙론에 있어서 협정을 보았으나 금후 절대로 낙관을 허하지 않는 정세에 처해 있으므로 전조선배영대회에 출석한 각지 대표의 요망인 전조선배영연맹결성은 드디어 경성배영동지회가 앞선역이 되어 26일 오후 3시부터 부민관에서 야나베(矢鍋) 부회장 겸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무, 상무이사 출석 아래 상무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성배영동지회에 총무부, 조직연락부, 조사선전부의 3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담하고 금후의 운동에 매진기로 되었다. 그리고 전선배영동지회연맹은 즉시 연맹규약을 작성하여 참가 신입을 받아 8월 1일을 기하여 경성에 전선배영동지회연맹의 결성식을 거행하여 전반도의 배영동지회는 일사불란의 통제 하에 날로 배영에 매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전반도 대중에 배영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2백년래의 영국의 동아 침략의 죄악의 가지가지를 예거한 팜플릿 백만 책을 작성하여 전선에 배포하는 등 실행방법을 토의하고 오후 6시경에 산회하였다.

〈출전: 「全朝鮮, 排英同志會聯盟 8月 1日 結成式 - 昨日, 常務理事會 實行方法 討議」,  
『朝鮮日報』, 1939년 7월 27일〉

6-2)

### 배영동지회연맹, 각지 대표 참집(參集) 하 어제 결성식

노회한 영국의 가면을 벗기고 흥아의 대사업에 방해하는 오만한 태도를 때려부수자는 전조선 민중의 총의로써 각지에서 결성된 배영동지회의 강화와 정비를 위한 연맹결성식은 드디어 어제 오후 5시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각지 배영동지회 대표를 비롯하여 경성동지회 관계자 등 칠십여 명 대표가 모여 먼저 궁성을 요배하고, 목도를 한 다음 경성동지회 윤(尹) 회장으로 부터 발기인을 대표하여 인사가 있었고 동 야나베(矢鍋) 부회장이 좌장(座長)에 나아가 의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경과보고, 규약 결정, 선언 강령을 결의하고 역원선거에 들어가 경성동지회 역원 전부와 참석한 동지회 역원 중에 이사

(理事) 1명, 평의원 2명씩을 뽑기로 되어 윤회장과 시과 부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그 다음 총동원연맹 유카미(由上) 이사와 평양 구와타니(桑谷) 씨의 축하, 각지에서 들어온 축전의 피로가 있는 후 총리대신, 육군대신, 해군대신, 현지 군사령관에게 각기 격려전보를 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다.

## 선언

우리는 일찍이 원장영국(援蔣英國)의 적성을 삼제(芟除)치 않으면 “홍아대업의 달성없다”고 결단하여 폭영 응징(膺懲)을 절규, 일영동경회담을 엄중 감시, 그 추이에 심심한 주의와 경계를 하여왔다.

과연 회담을 법폐(法幣)의 유통금지와 현은(現銀)의 인도(引渡)에 미치자 전혀 교착, 마침내 □응(□應)에 걸려 역도(逆睹)를 불허할 형세가 되었다. 더구나 일반원칙을 승인, 우리 주장을 공정 타당하다고 용인하면서 일면대지방침불변경(一面對支方針不變更)을 호어(豪語)하여 유감 없이 노유이면(老猶二面) 외교의 분령(分領)을 발휘하고 있다.

즉 영국외교의 본성은 음험사악(陰險邪惡) 간지책모(奸智策謀) 일어(一語)에 □한다. 우리는 □□히 이 부정세력 배제를 부르짖고 동양의 흡혈귀인 영국을 구축(驅逐) 아시아인에 의한 대아시아 건설을 기도해왔다. 이에 조선배영동지회연맹의 결성에 즈음하여 다시 소리를 높여 아시아 교란의 거괴(巨魁) 영국 응징을 절규하고 전선적(全鮮的) 일대 배영운동을 꺾기하여 그 세력을 분쇄할 것을 기하는 바이다.

1939년 8월 5일

조선배영동지회연맹

## 강령

- 우리는 영국의 모든 원장행동(援蔣行動)의 절멸을 기함.
- 동양평화의 공적인 영국의 부정세력을 구축(驅逐)하기를 기함.
- 우리는 일치협력, 일절의 장애(障害)를 배제하여 홍아대업의 달성을 기함.

1939년 8월 5일

조선배영동지회연맹

## 격려전보안(激勵電報案)

우리는 금일 2천 4백만 대중의 총의(總意)를 대표 전조선배영동지회연맹을 결성 노회 영국에 대하여 다시 응징의 결의를 공고히 할 정부는 끝까지 타협을 배제하여 초지 관철에 매진하기를 열망함.

## 규약

제1조 본 연맹은 조선배영동지회연맹이라 칭함. 본 연맹은 경성부(京城府) 내에 이를 설치함.

제2조 본 연맹은 홍아대업의 달성을 방해하는 영국의 행동을 배격하기 위하여 각지 배영동지회와 연락 및 통제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본 연맹은 전조선각지의 배영동지회로서 조직함.

제4조 본 연맹은 다음의役員(役員)을 설치함.

- 회장 부회장
- 이사장 1명
- 이사 약간 명(호선)으로써 상무이사 약간 명을 정함
- 평의원 약간 명

제5조 회장은 본 연맹을 통리(統理)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함. 이사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장리(掌理)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함.

제6조 본 연맹에 상담역 약간 명을 두고 회장이 이를 위촉함. 상담역은 본 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

제7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함.

상무이사는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會務)를 처리함. 이사장 유고시는 상무이사 그 회무를 대리함.

상무이사는 상무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장 이를 □시초집□時招集)함.

제8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본 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으로부터 부의(附議)한 것을 심의(審議)함.

제9조 이사의 약간 명을 감사(監査)로 하고 본 연맹의 경리를 감사(監査)함.

제10조 役員(役員)은 회장이 이를 위촉함.

제11조 이사회 및 평의원회는 회장 이를 초집(招集)함.

제12조 본 연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 전항직원(前項職員)은 회장 이를 임면함.

제13조 본 연맹은 소기 목적 달성에 의하여 해산함.

〈출전: 「排英同志會聯盟 各地 代表 參集 下 昨日 結成式」, 『朝鮮日報』, 1939년 8월 6일〉

## 7. 강연회 등 활동 관계 기사

7-1)

대표를 동경에 파견, 일영회담추이, 조선의 배영열(排英熱)을 전해 정부를 격려하고,  
26일경 전조선배영대회

일영회담(日英會談)을 앞두고 결성식을 거행한 배영동지회는 어제 17일 오후 3시부터 조선히텔에서 제1회 役員총회를 열었다. 윤(尹) 회장, 야나베(矢鍋) 부회장을 비롯하여 상담역, 이사, 평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먼저 윤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시과 부회장이 전조선배영대회를 개최

할 것과 앞으로 실행운동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역원들이 의견을 말한 뒤에 타구치(田口) 경성일보 사장을 동지회 대표로 18일 오후 4시 15분 경성역 발차로 동경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각 요리를 방문하고 조선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배영열의 정세를 알려 정부를 격려하는 동시에 일영회담의 진행경과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조선적 배영대회와 그 실행방법은 이사에게 일체를 맡기기로 하고 동 오후 4시 20분에 헤어졌다. 그 다음 계속하여 상무이사회를 열고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전조선 각지와 연락을 취하여 가지고 동경일영회담의 한 고비라고 할만한 오는 26일(토요일)쯤 성대한 배영대회를 조선신공에서 거행하기로 내정하였는데 이 준비는 18일부터 착수하기로 되었다.

〈출전: 「대표를 동경에 파견, 일영회담추이, 조선의 排英熱을 전해 정부를 격려하고, 이육일경 전조선배영대회」, 『朝鮮日報』, 1939년 7월 18일〉

## 7-2)

### 계속 기념강연, 각 연사의 열화 같은 사자후

경성대회를 마친 후 재향군인회 회장 아베양부 소장은 등단하여 영국이 동아에 있어서 어떻게 평화교란을 획책하여 노획한 수단을 썼는가를 예를 들어 의의 깊은 배영연설을 하고 뒤이어 유지의 10분간 연설에 들어가 쇼오지(庄司秀雄), 추마(中馬越之助), 느마(沼丈吉), 이토(伊藤奉奎) 등 제씨는 타도 영국의 부르짖음도 힘차게 ‘동아로부터 영국을 물리치자’고 외치자 만장은 이에 박수로 호응하였고 끝으로 사변 「뉴스」 영화상영이 있어 배영의 기세를 높이고 밤 10시를 지나서야 산회하였다.

〈출전: 「繼續記念講演 各 演士の 熱火 같은 獅子吼」, 『朝鮮日報』, 1939년 7월 13일〉

## 7-3)

### 배영동지회연맹, 실행운동에 착수, 우선 ‘영어(英語)배격’의 지령

전조선의 32개소의 배영동지회를 한데 뭉치어 결성된 조선배영동지회연맹은 지난 8일 경성부민관에 서 제1회 연맹상무이사회를 개최하고 금후의 운동방침을 협의한 결과 흥아대업의 달성에 매진키 위하여 영국의 세력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이 실행운동으로서 현재의 구미추수주의적 사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영어의 배격’을 근본 목표로 하기로 결정하고 전반도로부터 일체의 요긴치 않은 영어를 말살하지는 봉화를 들어 실행운동에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연맹본부에서는 10일에 각지의 배영동지회에 대하여 ‘영어배격’의 지령을 내리는 동시에 윤(尹) 회장 야나베(矢鍋) 부회장은 미나미 총독, 대야 정무총감, 삼교 경무국장, 증춘 군사령관, 가츠오(勝尾) 군보도부장, 헌병사령관 등을 역방하고 보고를 겸하여 금후의 실행운동의 양해를 구한 결과 전적으로 찬의를 얻었으므로 영어배격의 제1단계로 방금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영어의 배격’을 먼저 하기로 하고 10일 미나미 총독과 증춘 사령관한테로 민간에게 모범을 보이는 의미로 불필요한 영어를 말살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 관청의 철도, 전매,



체신의 각 국장한테도 서면으로 보내었는데 다시 와키(脇), 마츠다(松田) 양 상무이사는 국장을 방문하고 가장 영어 사용이 많은 철도국의 반성을 구하여 각 정거장과 열차에서 이것을 말살하도록 이야기하고 이어서 스즈가와(鈴川) 전매국장을 방문하고 조선산 연초에 영어 사용의 모순을 지적한 다음 이것을 말살하도록 희망하였다. 이에 전매국장은 곧 동의하여 전매국으로서는 영어 폐지는 이미 내정한 사실로서 곧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 야마다(山田) 체신국장과 경성중앙방송국 서무과장을 만나 대체로 만족한 답변을 얻었으며 이와 동시에 전조선 각 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희망을 말하여 구미를 따라가는 사상을 배제하여 흥아대업에 매진할 근본사상의 확립에 협력하여 달라고 하였다. 연맹에서는 계속하여 항간의 영어 말살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사부는 전선 각지 배영동지회에 이 조사를 통지하여 민간 각 회사, 은행상점, 여관 등에서 불필요한 영어말살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협, 송전 양 이사는 다음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흥아대업 달성의 근본사상의 확립은 일본정신의 파액이라고 생각된다. 그런고로 구미를 따라가는 사상을 제거하는 것이 흥아대업 달성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전폐하라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학자, 무역상들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운동은 반드시 일본에까지 미쳐야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이다.’

〈출전: 「排英同志會聯盟, 實行運動에 着手, 于先 ‘英語排擊’의 指令, 『朝鮮日報』, 1939년 8월 12일〉



## XII. 국민동원총진회



## 1. 설립 관계 기사

### 1-1)

#### 근로의 진의를 계몽, 결전국민동원총진회 탄생

이미 본토의 주변에까지 침공하여 온 적을 일격으로써 무찔러버릴 황군의 장도는 절박한 전기를 놓치지 않고 웅혼하게도 전개될 터인데 이제 총후반도는 여력 있는 노무를 총동원시켜 전력의 급속 증강에 동참치 않으면 아니된다. 이미 반도의 청장년층은 영예롭게도……(판독불가)……활발히 진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광영스러운 징용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헛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방면의 계몽을 위하여 이번 중견층과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인물들이 망라되어 결전국민동원총진회라는 계몽단체가 탄생케 되었는데 22일에 열린 정례 국장회의 석상에서 시라이시(白石) 농상공장으로부터 이 단체가 조직된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베(阿部) 총독과 엔도(遠藤) 총감도 금후 이 단체에 많은 활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여 전의양양과 근로동원에 관한 취지를 철저히 보급하고자 이번 새로이 조직되는 동 결전국민동원총진회는 커다란 기대 속에 진발하게 되었다.

〈출전: 「勤勞의 眞義를 啓蒙, 決戰國民動員總進會 誕生」, 『매일신보』, 1944년 9월 23일〉

### 1-2)

#### 24일에 총회, 역원 등도 결정

일각이라도 여유를 두지 말고 총무장, 총돌격이 요구되는 이때 반도의 전의양양과 근로동원의 철저를 위하여 조직되는 결전국민동원총진회는 송촌굉일(松村絃一),<sup>1)</sup> 미쓰이(三井泰三),<sup>2)</sup> 석전경조(石田耕造),<sup>3)</sup> 김기전(金起田), 안흥성환(安興晟煥)<sup>4)</sup> 씨 등이 발기인이 되어 24일 오전 10시 부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서 정식으로 역원 등을 결정하여 활동을 개시할 터인데 발기인회의 준비안에 의하면 이 단체의 존속기한은 설립일로부터 약 반개년간으로 하고 총회비 약 10만 원으로서 전의양양과 근로동원에 관한 정신운동을 전선적으로 전개하여 총력연맹의 한 별동체로서 이 방면에 정진하기로 되었다. 금후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와 역원회의에서 결정할터인데 금후 근로동원을 자발적인 국민운동으로서 명랑하게 전개시켜 적을 물리치고 최후승리를 획득할 전력 증강에 총진군할 일대 추진력이 될 터인데 내정된 역원진용은 다음과 같다.

△ 상무이사 송촌굉일(松村絃一), 미쓰이(三井泰三), 유광렬(柳光烈), 석전경조(石田耕造), 김기전(金起田), 안흥성환(安興晟煥)

- 1) 주요한의 창씨명.
- 2) 유광열(柳光烈).
- 3) 최재서의 창씨명.
- 4) 이성환의 창씨명.

△ 고문 이동치호(伊東致昊),<sup>5)</sup> 가산린(佳山麟, 형산광랑),<sup>6)</sup> 박택상준(朴澤相駿),<sup>7)</sup> 여운형(呂運亨), (이하 판독불가)

〈출전: 「廿四일에 總會, 役等도 決定」, 『매일신보』, 1944년 9월 23일〉

## 2. 역원대회 관계 기사

### 2-1)

#### 확대역원대회 16일 경성서 개최

반도의 인적 전력화를 일층 더 촉진하고자 하는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이 운동의 전선적인 침투를 피하고자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부민관 중강당에서 전선확대역원대회를 열기로 되었는데 이날 대회에는 전선의 중요 역원이 다수 모여서 운동의 구체안에 대하여 중요협의를 행할 터이다.

〈출전: 「擴大役員大會 十六日 京城서 開催」, 『매일신보』, 1944년 10월 6일〉

### 2-2)

#### 국민동원총진회, 내일 전선 역원대회

지난번 결성된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근로동원’, ‘응징사 원호’ 등 실제운동의 구체방책을 결정하고자 오는 16일 부민관 중강당에서 엔도(遠藤) 총감 참석아래 전선 역원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날은 본부의 고문, 이사를 비롯하여 지방이사, 시도위원, 간사 등 전선의 역원 1백여 명과 군관민의 유력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안흥성환(安興)<sup>8)</sup> 이사장의 인사와 경과보고가 있고 엔도 정무총감의 고사와 조선군 및 경성해군무관부 등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서 「전의양양과 국민운동전개」, 「근로동원」, 「응징사 원호」, 「응징사 가족의 생활 상태 조사」, 「응징사의 위문격려」 등 의사(議事) 내용에 관하여 활발한 토의가 있는 뒤 본회의 선언서와 격문을 결정 발표하고 산회할 터이다.

〈출전: 「國民動員總進會, 明日 全鮮 役員大會」, 『매일신보』, 1944년 10월 16일〉

---

5) 윤치호의 창씨명.

6) 최린의 창씨명.

7) 박상준의 창씨명.

8) 이성환의 창씨명.

2-3)

### 총진회 역원대회

국민동원의 민간측으로부터의 단체인 국민동원총진회 황해도연락부에서는 전번 도내 전반에 걸쳐 제1회 유세행각을 끝내고 아울러 봉산군 내에서 40명, 기타 각 군에서 5명씩의 간사를 선임하였는데 드디어 오는 25, 26 양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제1회의실에서 신임 간사를 포함한 역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활동방침을 결정하여 힘찬 운동을 개시할 터이다. 더욱 이날 총진회 본부로부터는 이성환 이사장, 신태약 이사가 참석할 터이다.

〈출전: 「總進會役員大會」, 『매일신보』, 1944년 11월 21일〉

2-4)

### 총진회 역원대회

가열한 정국 아래 무엇보다도 절박하고 긴급한 국민동원을 민간 쪽에서 돕자는 총진회 □□도 연락부는 그동안 진용을 정비하고 활발한 운동을 개시할 준비를 급히 하고 있는데 지방 역원의 선임을 마치고 운동의 요강도 일단락을 보게 되었으므로 25일 오전 10시 총진회 역원대회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장에는 □□지사를 비롯하여 각 부장 야스다(安田) 지방역원 등 약 120 명이 참석하여 우선 국민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안흥성환(安興晟煥) 이사장의 고사, 도지사 고사, 야스다 법원장의 축사가 있는 다음 일동 선서문을 낭독하고 황국신민서사, 성수만세를 봉창한 후 오전 11시 30분 경 오전의 순서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회의를 계속하여 야스오까 이사장의 강연이 있는 다음 □□□□□□□□

〈출전: 「總進會 役員大會」, 『매일신보』, 1944년 11월 30일〉

## 3. 강연 및 간담회 관계 기사

3-1)

### 국민동원대강연

결전에 돌입하여 전력 결전에 증강에 반도청장년의 분기를 외치는 국민동원총진회 주최와 본사 및 경성일보사 후원의 ‘국민동원대강연회’는 예정과 같이 금 18일 오후 6시부터 부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장덕수 씨 등 연사 다섯 명의 열변을 청장년들에게 큰 감격과 감명을 줄 것으로 성황이 예상된다. 입장은 무료이며 연사 씨명과 연제는 다음과 같다.

- △ 대의에 철저히하라 - 장덕수(張德秀)
- △ 원호운동(援護運動)에 대하여 - 신태악(辛泰嶽)
- △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 석전경조(石田耕造)<sup>9)</sup>
- △ 부산부두유감(釜山埠頭有感) - 백산청수(白山靑樹)<sup>10)</sup>
- △ 2천 6백만의 총진군 - 야쓰오카(安興晟煥)

〈출전: 「國民動員大講演」, 『매일신보』, 1944년 10월 18일〉

### 3-2)

#### 국민동원총진회 강연회 성황

절박해 온 결전에 반도 2천 6백만 동포도 총력을 지우려 오직 전력증강에 바치고자 그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18일 오후 6시 반부터 부민관 대강당에서 경일<sup>11)</sup>과 본사 후원으로 강연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개회에 앞서 일동은 먼저 국민의례를 행하고 「이천육백만의 총진군」이라는 연제로써 안흥성환(安興晟煥) 씨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 도적놈이 침입하여 부모와 형제를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 도적과 서로 결탁하여 “다음에는 그러하지 마시오” 하고 손을 마주 잡겠습니까. 현재 적 미국은 우리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또한 살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악귀 미국을 쳐부수기 위하여 직접 무기를 잡고 또는 생산전열에 참가하여 돌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를 역설하고 이어서 ‘부산부두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시라야마(白山靑樹) 씨는 “우리들이 전력증강에 정신하는 것은 크게는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기를 위하여서는 조선사람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외쳤다. 다음에 신태악(辛泰嶽) 씨는 ‘원호사업에 대하여’라는 연제로 금후 응징사의 원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하였다. 이어서 석전경조(石田耕造) 씨가 등장하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를 일미개전 직전의 국제정세와 최근의 추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끝으로 장덕수(張德秀) 씨는 ‘대의에 철저히하라’는 연제로 대의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곤란을 당하더라도 성전완수에 전력을 바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 9시 반쯤 강연회는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원만히 끝났었다.

〈출전: 「國民動員總進會 講演會 盛況」, 『매일신보』, 1944년 10월 20일〉

### 3-3)

#### 근로동원의 취지를 알라, 총진회에서 각지의 유세행각

결전하 전의양양과 근로동원에 관한 취지를 일반에 보급철저시켜 국민근로 동원 사무에 민간측으로

- 
- 9) 최재서의 창씨명.
  - 10) 김동환의 창씨명.
  - 11) 경성일보사.



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위하여 발족한 국민동원총진회는 지난 9월 발회 이래 활발한 운동을 전개 중인데 황해도에서는 본부와의 연락부를 부(府)내 공영정 일신병원에 두고 (중략)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던 바 드디어 26일 오후 6시 제1차 위원회를 동 연락부에서 개최하여 각 위원의 팀당 구역을 결정하고 6일간 각 지방으로 유세행각을 떠나게 되었다. 더욱 각 위원의 □실에 있어서는 담당군의 군수, 서장의 추천을 받은 간사 2명 내지 3명이 가세한다.

〈출전: 「勤勞動員의趣旨알라, 總進會에서各地의遊說行脚」, 『매일신보』, 1944년 10월 27일〉

## 4. 응징사(應徵士) 관계 기사

### 4-1)

#### 응징전사(應徵戰士) 위문반

국민동원의 추진을 목적하고 지난번 씩씩하게 발족을 본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운동의 구체안을 연구 중인데 먼저 응소와 똑같은 중요임을 짊어지고 생산전열로 나서는 응징사들의 출발을 한층 더 감명 깊게 하고자 「위문반」을 조직하여 장도를 축하하기로 되었다. 이를 위하여 총진회에서는 위문반원의 단기 훈련을 쌓은 뒤에 승차반과 부산 주재반의 2개 반으로 나뉘서 승차반은 경성-부산 간의 수송열차에서, 주재반은 부산에서 직접 응징사들을 만나서 오는 20일부터 위문격려를 실시하여갈 터이다.

〈출전: 「應徵戰士 慰問班」, 『매일신보』, 1944년 10월 6일〉

### 4-2)

#### 격려에 감사, 응징사 헌금

중산전열에 나아가 전력증강에 정신하고자 먼 타향으로 떠나는 응징사들의 여정을 위로하고 아울러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국민동원총진회에서 경성과 대전간의 응징사 열차에서 음악강연, 차 접대 등으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감격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지난 13일 대전을 통과하여 오사카 ○○으로 떠난 평남출신 응징사들은 위문대의 열성에 감격하여 「적은 돈이나마 군용기 기금으로 바치겠다」고 차중에서 81원 50전을 모아 동 총진회에 기탁하여 육해군 당국에 각 40원 75전씩 헌금하였다.

〈출전: 「激勵에 感謝, 應徵士 獻金」, 『매일신보』, 1944년 11월 24일〉

#### 4-3)

### 응징 가족 위안, 원호 가정 조사

영예의 노무동원과 그 가족의 원호 철저에 적극적인 협력추진단체로서 조직되어 부(府)내 관철정 284번지에 본부를 둔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15일 부내 부민관에서 응징사가족위안대회를 열고 조택원(趙澤元)무용단과 이복본(李福本)가극단이 출연하여 무용, 가극, 음악, 영화 등으로 부내 출신 응징가족에 하룻밤의 위안을 주기로 되었다.

위안회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의 두 차례로 나누어 열 터인데 초대권은 각 정회를 통하여 각 응징사 가정에 나누어주기로 되었다. 그리고 동회 본부에서는 안흥성환(安興晟煥)<sup>12)</sup>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태악(辛泰嶽), 유광열(柳光烈), 송촌굉일(松村絃一),<sup>13)</sup> 백산청수(白山靑樹), 석전경조(石田耕造) 씨 등 상무이사과 간부들이 부내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부내 출신의 응징사 가정을 호별 방문하여 응징된 뒤의 생활형편을 조사하는 한편, 실정에 따라 조선근로동원원호회와 경성부 원호과에 연락하여 원호에 만전을 다하도록 되었다. 방문일자와 그 구역은 근근 결정할 터이며 원호에 대하여서는 각 가정에서 자진하여 동회 사무소로 의문하여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출전: 「應徵家族慰安, 援護家庭調査」, 『매일신보』, 1944년 12월 14일〉

#### 4-4)

### 응징사 원호의 꽃

백지의 소집영장을 손에 쥐고 우리 응징사들은 전력증강의 각 중요공장과 또는 광산 등에서 정신하고 있는데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서 부민관 대강당에서 부내 출신 응징사의 가족을 초빙하여 위안대회를 열었다. 제1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였는데 먼저 국민의례를 행하고 안흥성환(安興)<sup>14)</sup> 총진회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는 다음 오다 근로동원원호회 동원부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독창과 무용 또는 「감격의 일기」, 일본 「뉴스」 등의 영화를 관람하고 정오 반쯤 되어서 끝마쳤다. 그리고 제2회는 오후 3시부터 또한 시작하여 동 4시 반경에 원만히 끝마치었다.

〈출전: 「應徵士 援護의 꽃 - 總進會서 遺家族慰安」, 『매일신보』, 1944년 12월 16일〉

---

12) 이성환의 창씨명.

13) 주요한의 창씨명.

14) 이성환의 창씨명.

## 5. 기타 활동 관계 기사

### 5-1)

#### 지방유지와 연락, 국민동원총진회서 이사, 간사 파견

반도가 담당하고 있는 최대의 전력인 노무동원에 협력하며 아울러 민중의 전의를 양양하기 위하여 지난 달 24일 창립된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전선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개시하고자 우선 각 도 당국과 지방유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운동 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동회 상무이사와 간사를 일제히 지방으로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부산 10월 7일 백산청수(白山靑樹),<sup>15)</sup> 안흥성환(安興晟煥)
- 대구 10월 5일 동상(同上)
- 광주 10월 8일 유광렬(柳光烈), 박준신□(朴準申□)
- 전주 10월 10일 동상
- 대전 10월 6일 안흥성환(安興晟煥)
- 주 10월 5일 동상
- 천 10월 11일 동상
- 청주 10월 9일 길본원준(吉本元俊)
- 평양 10월 5일 석전경조(石田耕造),<sup>16)</sup> 길본원준(吉本元俊)
- 신의주 10월 7일 동상
- 10월 5일 신태악(辛泰嶽)
- 10월 7일 동상

〈출전: 「地方有志와 連絡, 國民動員總進會서 理事, 幹事 派遣」, 『매일신보』, 1944년 10월 2일〉

### 5-2)

#### 총진회에서 청년 선발 연성(鍊成)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이번에 전 조선 각지에서 민중의 궤기를 촉구하는 강연, 좌담회 등을 열기로 되었는데 이에 앞서 이 운동에 정신했 지방의 유위한 청년 약 50명을 단기간 훈련하기로 되어 오는 17, 18 양일 경성에서 연성회를 열 터이다.

〈출전: 「總進會에서 靑年 選拔 鍊成」, 『매일신보』, 1944년 10월 8일〉

15) 김동환의 창씨명.

16) 최재서.

## 6. 해산 관계 기사

6-1)

### 승리는 근로에서, 나가자 이천육백만

절박해 온 결전에 반도 2천 6백만 동포도 총력을 지우려 오직 전력증강에 바치고자 그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국민동원총진회에서는 18일 오후 6시 반부터 부민관 대강당에서 경일<sup>17)</sup>과 본사 후원으로 강연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개회에 앞서 일동은 먼저 국민의례를 행하고 ‘이천육백만의 총진군’이라는 연제로써 안흥성환(安興晟煥) 씨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 도적놈이 침입하여 부모와 형제를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 도적과 서로 결탁하여 “다음에는 그러하지 마시오” 하고 손을 마주 잡겠습니까. 현재 적 미국은 우리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또한 살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악귀 미국을 쳐부수기 위하여 직접 무기를 잡고 또는 생산전열에 참가하여 돌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를 역설하고 이어서 ‘부산부두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백산청수(白山靑樹) 씨는 「우리들이 전력증강에 정신하는 것은 크게는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기를 위하여겠지 마는 조선사람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외쳤다. 다음에 신태약(辛泰嶽) 씨는 ‘원호사업에 대하여’라는 연제로 금후 응징사의 원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하였다. 이어서 석전경조(石田耕造) 씨가 등장하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를 일미개전 직전의 국제정세와 최근의 추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끝으로 장덕수(張德秀) 씨는 ‘대외에 철저히 하라’는 연제로 대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곤란을 당하더라도 성전완수에 전력을 바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 9시 반쯤 강연회는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원만히 끝나치었다.

〈출전: 「勝利는 勤勞에서, 나가자 二千六百萬」, 『매일신보』, 1944년 10월 19일〉

6-2)

### 6천원을 총진회에, 고전정일(高田正一) 씨의 특지

전기 총진회 황해도 연락부에서는 드디어 역원기구를 정비하고 근일 중 제1차 유세행각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취지에 감분한 부(府)내 남행정 식산회사 사장 고전정일(高田正一) 씨는 즉석에서 일금 6천원을 던져 총진회 기금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여 일반을 감격케 하였다.

〈출전: 「六千圓을 總進會에 高田正一氏의 特志」, 『매일신보』, 1944년 10월 27일〉

---

17) 경성일보사.

6-3)

금후 운동을 평정

영예의 징용에 대한 취지 선전과 징용가정 원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오는 국민동원총진회에서 27일부터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총독부 오다 근로부장을 비롯하여 동회 이사들과 도내 각 군부의 지도원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 역원대회를 열고 금후 운동에 대한 협의를 하여 새로운 박차를 가하기로 되었다. 회의는 오전 10시 반부터 열리어 국민의례에 이어 신태악(辛泰嶽) 이사로부터 동회의 경과보고와 안흥성환(安興晟煥)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는 다음 경기도지사의 고사를, 요비사와 지방과 장이 낭독하고 나까하라(中原) 조선총독부 근로동원부장의 축사가 있고 금후의 운동 방침을 협의하고 별항과 같은 선서로 역원의 궐기를 촉구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1시부터 가와사키 육군대좌의 '최근전국해설', 오다 근로동원부장의 '근로동원에 대하여'와 조선근로동원원호회의 시오이사카 이사장의 '근로원호에 대하여서'라는 강연을 듣고 일동은 다시 총진회 간부들과 금후 운동 추진에 대한 세세한 질의문답이 있는 후 4시에 폐회하였다.

선언

□하□의 포탄이 황토(皇土)에 날아오는 중대하고 □□□는 이때를 당하여 우리들 결□한 동지는 확 호 분격을 새롭게 하여 우리 회의 본래의 목적인 전의양양과 및 근로동원, 응징사원호의 철저화에 일로 정신하여 전시 우리들이 결정한 제사항에 대하여 공행실천함으로써 군국에 봉사할 것을 기함.

우(右) 선언함.

1945년 2월 27일  
국민동원총진회 경기도역원대회

<출전: 「今後運動을 評定 -國民動員總進會京畿道役員大會」, 『매일신보』, 1945년 2월 28일>

6-4)

많은 성과와 공적, 국민동원총진회 해산

전의양양과 근로동원에 협력을 목표로 작년 9월 창립되었던 국민동원총진회는 금년 3월 말로 회기가 끝나게 되어 31일에 해산되는데 이에 대하여 니시히로(西廣) 경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 위급한 때에 반도민간 유지의 자발적 애국운동으로서 발족한 국민동원총진회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만기가 되어 해산하기로 되었는데 그동안 각 역원이 글자 그대로 침식을 잊고 활동한데 대하여서는 총후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는 하나 그 수고에 대하여서는 깊이 감사하며 공적이 큰 것을 회고하는 바이다. 시국은 더욱더 위급한 이때 동회는 해산하였으나 동회 역원 각위는 그동안의 열심과 경험을 살려 총후국민의 추진력으로서 일층 분투하기를 열망한다.

<출전: 「만흔 成果와 功績 國民動員總進會解散」, 『매일신보』, 1945년 3월 31일>



### XIII. 애국금차회





## 1. 설립 관계 기사

### 1-1)

####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 조직 계획 진행

시국이 긴박한데 감하여 각 방면의 활동이 비상한 바 있는데 종래로 조금도 사회와 관련이 없는 상층류가 정부인간에서 애국금차회를 조직하여 군인가족의 위문 현금 중의 취급 등을 알선하기로 하고 중추원고문 윤덕영(尹德榮)·민병석(閔丙奭) 씨의 부인의 제씨(諸氏)가 발기인이 되어 오는 16일 경성부청에서 발기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고 그 회원 후보자는 현재 총독부 사회과에서 조사 중으로 다음에 열거한 명사 제씨의 부인과 여사들이 중요한 멤버가 되리라 한다.

윤덕영(尹德榮), 민병석(閔丙奭), 민대식(閔大植), 윤태빈(尹泰彬), 김대우(金大羽), 김영상(金永祥), 한상룡(韓相龍), 박영철(朴榮喆), 김관현(金寬鉉), 이상협(李相協), 백관수(白寬洙), 방응모(方應謨), 김명준(金明濬), 최린(崔麟), 김윤정(金潤晶), 박흥식(朴興植) 부인 외 제씨 □□□, 손정규(孫貞圭), 김활란(金活蘭) 여사 외 제씨

〈출전: 「愛國金釵會 組織計劃進行」, 『東亞日報』, 1937년 8월 14일〉

### 1-2)

####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작일(昨日) 발기인 총회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의 발기 총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경성부 응접실에서 좌장 한상룡(韓相龍) 씨 사회로 석진형(石鎭衡) 씨의 취지 설명이 있는 후 규약을 통과하고 금후 진행 방침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창립총회를 불원간 열기로 하고 그 준비 위원으로서 엄채덕(嚴彩德) 씨 외 8인을 선거하고 알선역으로 윤태빈(尹泰彬), 김대우(金大羽), 석진형, 김영상(金永祥) 등 4씨를 좌장이 자백하고 동 5시 20분경에 폐회 하였는데 동 발기회에 출석한 인사는 이윤용(李允用), 한상룡(韓相龍), 조성근(趙性根), 김윤정(金潤晶), 신석린(申錫麟), 김관현(金寬鉉), 이진호(李珍鎬), 남궁영(南宮營), 조병상(曹秉相), 김대우(金大羽), 윤태빈(尹泰彬) 씨 등 30여 명이였다.

〈출전: 「愛國金釵會 昨日 發起人總會」, 『東亞日報』, 1937년 8월 17일〉

### 1-3)

#### 조선부인 중심으로 애국금차회 결성, 시국에 대한 활동 촉진시키고자 20일에 창립총회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는 조선부인의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강화 철저히 하며 아울러 시국에 대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애국금차회를 조직하게 되어 준비 중이라고 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16일 오후

3시부터 경성부청 부윤을 응접실에서 약 30명이 모여 이 회의 조직에 대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발기인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 회의는 현하 비상시국에 계속하는 동안 존립하게 하되 회의 사업으로서는

- 황군의 환송영(歡送迎)
- 총후(銃後) 가정의 위문 격려
- 일반 조선부인에 대한 시국인식의 강화 철저와 국방헌금 황군위문금품의 헌납

등으로 창립총회는 오는 21일경에 부민관에서 열게 될 터인데 관민 각 방면 유력자의 부인 약 200명을 회원으로 망라할 터이라 한다.

회의 간부로는 간사와 서기를 각기 약간 명씩 두게 되었는데 모두 무보수라 한다.

#### 발기인 씨명

윤태빈(尹泰彬), 백관수(白寬洙), 박영철(朴榮喆), 방응모(方應謨), 조병상(曹秉相), 이운용(李允用), 이상협(李相協), 한상룡(韓相龍), 김윤정(金潤晶), 김영상(金永祥), 김활란(金活蘭), 김대우(金大羽), 신석린(申錫麟), 석진형(石鎭衡)

〈출전: 「朝鮮婦人中心으로 愛國金釵會結成. 시국에 대한 활동촉진시키고저」, 『매일신보』, 1937년 8월 17일〉

#### 1-4)

#### 애국금차회 탄생, 조선 부녀로 결성된 황군 원호단체 창립총회는 20일 거행 발기준비회 종료

배신(背信)과 모일(侮日)을 일삼는 지나(支那)를 응징하는 동시에 동아(東亞) 영원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방금 전선(戰線)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군(皇軍)에 대한 총후(銃後)의 가정을 위문하는 동시에 국방(國防)에 대한 비용에 만분의 하나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는 취지하에 탄생되려는 애국금차회 발기인회를 준비하는 회합이 16일 오후 3시부터 경성부청내의 부윤 응접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한 인사는 여자 9명 남자 측 30여 명이 모여서 한상룡(韓相龍) 씨를 좌장으로 석진형(石鎭衡) 씨와 윤태빈(尹泰彬) 씨의 동회 설립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만장일치로 원안(原案)에 대한 찬성과 규약 통과가 있고 취지 작성은 특별 위원에게 일임한 후 다시 정식으로 창립총회는 2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개최하기로 하고 동 5시에 폐회 하였는데 규약과 발기인 씨명은 아래와 같다. (사진은 동회 광경)

#### ◇ 규약

제1조 본회는 애국금차회라 칭하고 황군건설(皇軍建設)의 목적으로써 좌기(左記)사안을 행하는 것으로 함.

- 황군의 환송영(歡送迎)
- 총후가정의 위문격려(慰問激勵)
- 총후가정의 조문(弔問)

- 전(前) 각항 외 일반조선부인에 대한 황군 원호(援護)의 강화 및 국방비의 헌납
- 제2조 본회의 회원은 제1조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함.
-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경성부윤 내에 설치함.
- 제4조 본회의 존립기간은 황군의 군사행정 종료 시까지로 함.
- 제5조 본회는 회장 1인,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 단 무보수로 함.
- 제6조 본회의 회장, 간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임(選任)하고 서기는 간사회(幹事會)에서 이를 □탁함.
- 제7조 헌납금품은 경성군사후원연맹(京城軍事後援聯盟)을 통하여 군 당국에 헌납할 것으로 함.

◇ 발기인

홍승원(洪承媛) 이숙중(李淑鍾) 김활란(金活瀾) 나숙하(羅淑河) 민채덕(閔彩德) 손정규(孫貞圭) 송금선(宋今璇) 고헥경(高凰京) 김희인(金禧仁) 유각경(兪珏卿) 차사백(車士百) 서은숙(徐恩淑)

이상 제씨 외에 아래와 같은 사회 지명인사의 부인들도 전부 발기인으로 참여함이 이와 같다.

윤덕영(尹德榮) 박영효(朴泳孝) 이운용(李允用) 민병석(閔丙奭) 한상룡(韓相龍) 박영철(朴榮喆) 김홍정(金鴻鼎) 장현식(張憲植) 한규복(韓圭復) 김관현(金寬鉉) 최린(崔麟) 장직상(張稷相) 석명선(石明瑄) 이범익(李範益) 윤태빈 김영상(金永祥) 김대우(金大羽) 김사연(金思演) 조병상(曹秉相) 이승우(李升雨) 이응준(李應俊) 김명준(金明濬) 석진형(石鎭亨) 조성근(趙性根) 민대식(閔大植) 이진호(李軫鎬) 방태영(方台榮) 현현(玄櫛) 고원훈(高元勳) 고 유성준(俞星濬) 박흥식(朴興植) 안종철(安鍾哲) 이강혁(李康赫) 조□예(趙□睿) 오건영(吳健泳) 유□(劉□) 유홍중(劉泓鍾) 이경식(李敬植) 박희도(朴熙道) 박호영(朴鎬榮) 서상천(徐相天) 박부양(朴富陽) 최두□(崔斗□) 김희□(金禧□) 심우섭(沈友燮) 서춘(徐椿) 김규진(金逵鎭) 김□이(金□伊) 임흥순(任興淳) 노창성(盧昌成) 윤치호(尹致昊)

<출전: 「愛國金釵會誕生, 朝鮮靑婦女로 結成된 皇軍援護團體 창립총회는 二十일 거행 -發起準備會終了」, 『매일신보』, 1937년 8월 18일

1-5)

**규방심거(閨房深居)들 뛰어나와 ‘애국금차회’ 결성,  
국난에 안연할 수 없다 하여 조선부인 공전(空前) 장거(壯擧)**

중일전쟁이 발생한 이래 조선내의 애국의 적성은 도시와 농촌을 물론하고 도처에서 발로하여 전 조선 2천 3백만 대중은 마침내 애국심으로 물들기 듯하여 하여 남자뿐만이 아니라 부인들의 활동도 맹렬한 바이다.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에는 조선부인도 다수가 참가하여 설혹 언어는 불통한다 하여도 적성이 넘치는 일편단심(一片丹心)은 같다는 맘으로 내선(內鮮) 부인들이 같이 가두에 다니면서 황군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성은 일반 인사에게 비상한 감격을 주었다.

그런데 한편 8월 20일에는 애국금차회라는 단체가 조선명문 부인들의 발기로 결성되어 금비녀·금가락지들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여 회를 결성한 이래 벌써 1만 원에 가까운 돈이 모이었다. 종래에는 깊은 방에 들어앉았던 조선 부인이 가두로 나아가 국방헌금과 황군후원의 운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일반부인계의 자랑이라 할 수 있어 특히 창덕궁이왕대비(昌德宮李王大妃) 전하(殿下)께옵서는 하사금을 주시었다는 등 실로 감격하기 짝이 없으며 또 획기적 현상이라 하겠다.

〈출전: 「閨房深居를 뛰어나와 ‘愛國金釵會’結成 국난에 안연할 수 업다하야 朝鮮婦女空前壯舉」, 『매일신보』, 1938년 1월 5일〉

## 1-6)

###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20일 성대히 발회식

미나미(南) 총독이 시국에 응하여 반도 부인의 각성을 촉구한 이래 반도 부인의 분기(奮起)는 현저하여 금잠(金簪)의 헌납운동, 국방부인회(國防婦人會),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등의 적극적 참가 등이 맹렬하다. 특히 ‘애국금차회’의 결성준비는 조선상류 부인 간에 착착 진행되어 마침내 오는 2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경성여고보 강당에서 성대한 발회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발기인은 조선상류 부인 27명을 망라하고 그 취지는 ‘우리들 조선인여성이 여하(如何)히 박약(薄弱) 하다고 하나 어찌 안한(安閑)히 좌시할 수 있을까 보냐고 그 결의를 명백히 하였다. 발회식 당일엔 미나미 총독 고이소(小磯) 군사령관 및 총독부 각 부장부인도 열석(列席)하여 약 3,000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출전: 「愛國金釵會, 廿日盛大히 發會式」, 『朝鮮日報』, 1937년 8월 19일〉

## 2. 부녀헌금 관계 기사

### 2-1)

#### 애국금차회 헌금자 명부(名簿)

금차(金釵) 1본(一本) 금이□□(金耳□□) 1본, 금지환(金指環) 1개  
 김종완(金鍾完)부인, 10원 민희식(閔熙植)부인 10원, 김추봉(金秋鳳) 1원 한희명(韓姬命), 1원 정희로(鄭嬉魯), 1원 황인경(黃仁京), 1원 문남식(文南植), 1원 장유근(張柔根), 1원 박용경(朴容卿)  
 금일계(今日計)

〈출전: 「愛國金釵會 獻金者名簿」, 『朝鮮日報』, 1937년 8월 28일〉

2-2)

### 애국금차회 헌금

금(金) 50원씩 김□□, 이해임(李惠姪), 금(金) 30원씩 최석(崔錫), 금 20원씩 박□희(朴□禧)·오순영, 금(金) 50원씩 유숙경(劉淑卿)·기정자(奇貞子)·차미리사(車美理士)·박복례(朴福禮), 금(金) 3원 □정섭(□貞燮), 금(金) 1원 김선(金善)

합계(合計) : 현금 219원

누계(累計) :

1. 현품(現品)(1), 금채(金釵) 14본(本)(2), 은채(銀釵)1본(3), 금제이소(金製耳搔)3본(4), 금제지환(金製指環) 3개(5), 백금제지환(白金製指環) 2개, 우(右) 추산금(推算金) : 1,657원

2. 현금 1,910원

교동공보(校洞公普) 부형회(父兄會)

시국강연개최

부내 교동공보교(校洞公普校) 학부형회에서는 일반 학부형에게 대하여 시국에 관한 인식을 깊이하기 위하여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부민관(府民館)에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는데 강사는 다음과 같다 한다.

▲시국에 대하여

경성부윤 촉탁(囑託) - 이대영(李大永) 대좌

부회의원- 한만희(韓萬熙) 씨

장신구(裝身具) 헌납

부내 병목정(井木町) 276 임인순(任寅順)에서 농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만주 방면의 황군의 활약상을 듣고 감사에 견디지 못하여 순금비녀 2개, 금가락지 1개 금귀개 2개, 금뿔고지 1개, 은비녀 한 개(가격 약 300원)의 장신구를 경성군사후원동맹의 자금으로 기탁하였다.

〈출전: 「애국금차회 헌금 校洞公普 父兄會 時局講演開催」, 『東亞日報』, 1937년 8월 31일〉

### 3. 기타 활동 관계 기사

#### 3-1)

#### 백의(白衣)용사와 전사유족 위문, 애국금차회 활동

애국금차회에서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옥인정(玉仁町) 윤덕영(尹德榮) 자작 저택에서 회장 동 자작부인 이하 회원 참석, 동회 금후의 활동 방침에 대하여 타협한 다음, 복지 상해에 있는 황군 장사(將士)의 활동상황 보도영화를 관람하고 계속하여 오후 1시부터 회장 윤덕영 자작 부인 이하 간사 수명은 육군병원을 방문하고 백의용사에게 대하여 타올과 과자 등을 선물로 주고 가친한 위로를 하였다. 다시 사단사령부를 방문하고 총후 금차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또 동회장 일행의 육군병원 위문반 외 금차회원 36명의 조선부인은 9반에 나누어 동일 오후 경성부내의 전사자가 유족을 방문하고 절충한 정중한 조의를 표하였다.

〈출전: 「白衣勇士와 戰死遺族慰問, 愛國金釵會活動」, 『東亞日報』, 1937년 9월 21일〉

#### 3-2)

#### 애국금차회 활동, 각지에 지부설치 준비

조선부인들의 총후 보국단체로 작년 여름에 조직된 애국금차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여 다수 금액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한 바 있는데 이회는 경성을 중심으로 조직한 지역적으로 국한된 단체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각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없으므로 금차회에서는 일간 역원회를 열고 금후의 활동 방침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금차회에 대하여는 각 지방에서도 지부를 설치하려는 준비도 있으므로 금후는 전 조선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게 하고 전 조선적으로 금비녀, 금가락지 등의 금(金)헌납운동과 부인회의 총후 보국 활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킬 방침이라 한다.

〈출전: 「愛國金釵會活動, 各地에 地部設置準備」, 『매일신보』, 1938년 5월 20일〉

### 4. 동방산인(東邦山人), 애국금차회 생겨나다 - 내지인 유한부인은 뭐하는가

애국금차회의 발기인회가 한난계(寒暖計)가 100도 이상으로 오른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부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방청하러 나섰다. 조선 부인이 어느 정도까지 시국에 대해 일본제국에 진정한 열성을 지니고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인 사람은 모두 조선인으로 박영철(朴榮喆)과 한상룡(韓相龍)이라는 두 거두를 비롯해 전 지사, 중추원 참의, 도회 부회 의원 등 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얼굴

들로 약 30명 정도가 모였고, 여기에 조선부인이 10여 명 있었다. 부인의 단체발기인회에 남자가 다수를 점하고 부인은 배석이라는 것에 먼저 기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선에서는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 습관이 있는 종류 이상의 낯은 조선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출석한 부인들은 학교의 선생, 식자와 유지 부인이었다. 어느 쪽인가 말하면 평소 친일주의가 아닌 인텔리 계급이다. 김활란(金活蘭)이라는 이화학당의 선생도 있었다. 이 부인은 미국에서 공부한 여자 박사이자 기독교인이다. 평소에는 친일의 반대편에 선 사람으로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국에서 전향한 자로 보인다. 단발로 더구나 머리카락을 모두 짧게 잘라 비구니처럼 보였다. 연령은 30살 정도로 보였다. 아직 독신으로 내지어(內地語)<sup>1)</sup>는 말할 수 없었다.

한상룡 씨가 좌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였다. 전 지사이자 동아일보 사장인 석진형(石鎭衡) 씨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회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동아의 풍운이 북지(北支)에서 일어나 황사(皇師)는 당당하게 불법 불의한 완배(頑輩)를 응징하였다. 이제 실로 제국의 비상시이다. 남자는 의도(義刀)를 차고 황막(荒漠)한 호지(胡地)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부녀자는 아무리 횡약(橫弱)한 몸일지라도 안한(安閑)하게 이를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인단체의 선언으로서 약간 강경한데, 아마도 남자가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실행하는 바는 황군의 환송영, 충후가정의 위문, 조문, 국방비의 현금, 황군후원의 강화 등이다. 발기인 중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취지에는 대찬성이지만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 등이 있어 조선인 부인이 이 두 회에 가입하여 시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도 있다. “지금 또 다시 다른 조선부인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로의 가입을 조선부인에게 권유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강화하는 편이 좋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조선부인의 금차는 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빼고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일가 흥륭(興隆)의 분기점에 선 경우이던가, 국가의 흥망에 관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다. 지금 일본제국은 겨우 서전을 열었을 뿐이다. 국가의 흥망을 걸고 싸운다는 위국(危局)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 지금, 조선부인이 금차를 빼서 헌납하면 오히려 각국으로부터 일본이 바보취급을 당하거나 지나로부터 업신여겨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시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부인 중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자가 있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수긍하였다. 하지만 발기인은 “일본제국은 조선부인이 금차를 빼서 헌납해야 할 정도의 국난에 직면하고 있지 않지만, 조선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차까지 빼서 국방비로 헌납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조선부인의 적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에 때문에 아무쪼록 이 회의 이름에 찬성해주기 바란다. 꼭 금차를 헌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이 회의는 성립하게 되어 8월 20일 성대한 발회식이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거행되었다. 이 날은 윤덕영(尹德榮) 자작의 부인을 비롯해 조선인 귀족 부호 관공리의 부인 기타 유지 부인 500명의 부인이 모였다. 이렇게 모든 계급의 조선부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김활란 여사의 사회로 윤덕영 자작의 부인이 회장으로 추천되었고, 크나큰 감명과 긴장리에 발회식이 거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금비녀 10여 개, 금가락지 수십 개, 현금 1천여원이라는 금액이 모여 발회식 단상을 장식한 것은 가히 유쾌한 모습이었

1) 일본어를 뜻함.

다. 조선부인이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일지(日支)의 시국에 관심을 갖고, 일본제국과 존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자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표현하여 진정으로 근래의 유쾌함을 맛보았다. 또 이 회가 성립된 이상, 남자의 독려를 기다리지 않고 부인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여 가장 세력 있는 조선부인단체로서 강화되고, 이번 시국의 최후까지 활동을 계속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만약 이 회가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선부인의 애국사상과 시국에 대한 관심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이 회가 결성된 것에 감격함과 동시에 우리 내지인 부인으로 금가락지나 다이아몬드를 찬연히 차고 있는 자는 모른척하면서 지낼 수 없을 것이다.

〈출전: 東邦山人, 「愛國金釵會生る 内地人の有閑婦人は何うする」, 『朝鮮及滿洲』 1937년 9월호, 8쪽〉



## XIV. 조선부인문제연구회



## 1. 설립 관계 기사

### 1-1)

#### 지식층 신여성 초청 간담회를 개최

총독부 사회교육과에서는 조선인 생활개선과 부인의 수양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각 방면의 지식층 신여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기관을 조직하게 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의논을 하고자 29일 오후 5시부터 시내 서린정에 있는 애국부인회 인보관에 다음 12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 한다.

이화여자전문학교	방신영(方信榮)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조기홍(趙圻洪)
성신여학교	이숙중(李淑鍾)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손정규(孫貞圭)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손금선(宋今璇)
이화여자전문학교	고황경(高凰京)
사직정 262	홍승원(洪承嫻)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김현실(金縣實)
이화여자전문학교	김활란(金活蘭)
월남정 29	김복인(金福仁)
중앙보육학교	차사백(車士百)
이화여자전문학교	서은숙(徐恩淑)

〈출전: 「知識層新女性講誼會를 開催」, 『매일신보』, 1937년 1월 29일〉

### 1-2)

#### 부인문제연구회 신단체를 결성, 이사 간사 등도 선정

본부 학무국의 알선으로 각 방면 신진 여성을 망라한 부인문제의 연구기관을 창설한다 함은 기보한 바 같거니와 29일 오후 5시부터 부내 서린정 애국부인회 인보관에서 학무국으로부터 부영국장, 김대우 사회교육과장, 오 교화계 주임 등이 열석하여 기보한 바와 같은 각 방면 여성 12명이 출석하여 가지고 생활개선과 부인의 수양을 중심으로 한 부인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부인문제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한다.

이 회의 직제는 이사제도를 쓰게 하되 생활개선부와 수양부를 설치하고 각기 전문지식에 따라 이사를 당면으로 바꾸어 하게 한다는데 상무이사에는 김활란, 손정규 양 여사가 피선되고 서무간사에는 조기홍 여사로 결정되었다 한다.

그리고 회합은 매달 한 번씩 최종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회합을 하여 부인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게 되었다 한다.

〈출전: 「婦人問題研究會 新團體를 結成」, 『매일신보』, 1937년 1월 31일〉

## 2. 부인문제연구회 회칙

제1조 본회는 조선부인의 수양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진보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각종 부인문제의 조사연구
2. 부인단체의 연락 제휴
3. 부인지도자의 양성
4. 사회봉사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이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안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이사제로 하며 상무이사 및 서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두고, 조사연구상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주사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상무이사는 합의에 따라 회무를 총리하고, 서무이사는 회무를 처리한다. 부장 및 주사부원은 소속 부의 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6조 본회에서 조사 연구한 다음 결정한 사항은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실행한다.

제7조 본회는 매월 최종 토요일에 예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 또는 부회를 연다.

제8조 본회는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유지한다.

〈출전: 「婦人問題研究會會則」, 『朝鮮社會教化要覽』,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教育課 1938년 150~151쪽〉

## 3. 활동 관계 기사

3-1)

### 여류지도자 동원으로 생활개선을 유세행각

총후국민생활양식의 기준을 세우자는 가정보국운동의 대행진보(大行進譜)

얼마 전 총독부 학무국 내에 조직된 조선부인문제연구회(朝鮮婦人問題研究會)에서는 총후의 가정보국운동(家庭報國運動)을 일으키어 장기화해가는 시국에 대처하는 한편 가정생활의 전폭적 개선을 단행하자는 취지에 전 조선적으로 위원 11명이 유세(遊說)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 위원 11씨는 조선부인 문제에 권위 일취하니라 여류옹변가로서 이름이 쟁쟁한 제일선의 투사들인 만큼 이들이 제창하는 바

생활개선의 구체적 방법과 총후경제전에 부역을 지키자는 이들의 의침은 조선반도 1천만 여성에게 경고를 던질 것으로 그 결과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가정보국운동으로서 국민생활기준양식을 제정하여 종래에 번잡하고 허식(虛飾)이 많은 가정생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총후의 가정을 일층 긴장하도록 하자는 것을 작정한 조선부인문제연구회에 서는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전 조선 각도로 생활양식의 대 개선을 제창하기로 하였다.

이들이 제창할 생활양식의 기준과 또는 개선을 부르짖는 것은 의례(儀禮) 누습타파(陋習打破) 근로보국정신(勤勞報國精神) 선양 등 일반 가정생활의 기준을 확정하는 동시에 의식주(衣食住) 세 가지 방면에 형식과 이용을 간결 또한 청렴하게 하라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이제 갖가지 기준 양식으로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생활기준양식의 기준

【의례】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안 식구가 황거요배를 하며 축제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달고 총독부 제정의 의례준칙(儀禮準則)을 지키며 혼례장의에는 절조 엄숙히 해서 드는 비용을 절약할 것.

【누습타파】 세찬(歲饌) □□□□의 폐지와 미신적(迷信的)인 장님 푸닥거리를 폐지하며 쓸데없는 잔재를 없애 할 것이고, 모든 일에 시간을 지킬 것.

【근로보국정신의 선양】 집안을 깨끗이 하여 근로의 정신을 기르며 가정부인은 항상 부역 살림을 위해서 직접 장을 보러 다닐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이 정신을 집어넣을 것.

【의식주】 색옷과 껌껌한 것을 입고 집안에서는 간단하고 단란한 식사를 하도록 하며 집안은 청결과 정돈을 습관으로 할 것 등 이상의 네 가지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부연해서 각 지방으로 나아갈 연사들은 자세히 이를 설명하여 실생활에 합당한 것을 경제생활의 토대로 하도록 하였다.

### 유세대(遊說隊)의 활동에 각 방면에서 기대 심대(甚大)

이상과 같이 의식주 문제와 또는 생활의 여러 가지 점들을 되도록 간결 질소하게 해서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전시하의 가정경제를 가장 검소하게 하도록 모든 것에 일대 개선을 부르짖고 나설 연사들은 전부 가정경제와 또는 가정생활연구에 제일인자들을 망라한 점에 이번 부인유세대(婦人遊說隊)의 활동에는 각방으로부터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번 좌담회와 또는 강연회는 특히 가정부인을 중심으로 한 도에 한 여사를 파견하여 1인 평균 10개소에서 가정생활개선의 요지와 부인들의 가정보국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는데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출발을 하게 될 만큼 각 여사들은 그 준비에 분주하다고 한다.

그리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는 생활기준양식의 요령을 인쇄한 선전지를 박아 각 연사로 하여금 각처에서 배부케 하여 이를 보고 강연을 듣고 실제 생활에 이용케 하도록 하였다. 이제 이번에 출동할 연사들의 씨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진명고등여학교 조기홍, ▲ 성신여학교 이숙종, ▲ 경기고등여학교 손정규, ▲ 덕성고등여학교 송금선, ▲ 이화여자전문학교 고헌경, ▲ 홍승원, ▲ 숙명고등여학교 김현실, ▲ 이화여자전문학교 김활란, ▲ 조선여자기청 유각경, ▲ 중앙보육학교 차사백, ▲ 이화여자전문학교 서은숙

〈출전: 「女流指導者動員으로 生活改善을 遊設行脚」, 『매일신보』, 1938년 9월 6일〉

### 3-2)

#### 부인유세부대의 출발준비좌담회, 작일 경성호텔에서 개최

‘아침에는 국 한 그릇에 반찬 한 가지! 의복은 무색옷을 입을 것!’

이러한 생각의 기준을 세우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선부인문제연구회에서는 11명 연사를 오는 12일부터 10일간 전 조선각지로 파견하여 동회에서 작성한 의식주의 기준양식을 선전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12일부터의 강연 행각을 앞두고 동회에서는 10일 오후 2시부터 경성호텔에서 각 방면인사 30여명을 요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전 조선각지로 강연을 떠나게 된 취지와 장기화해가는 시국하에 가정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총후경제전의 완벽을 기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동회 이사인 손정규 씨로부터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의견과 희망의 교환이 있던 후 동 5시에 폐회하였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는 동회의 회원으로 이번 강연에 떠날 연사 11명이 전부 ‘스테플 파이버’의 국방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온 것이 특이하게 빛났는데 각 지방으로 나갈 연사와 지방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조기홍(황해) ▲ 이숙종(함남북) ▲ 손정규(평남북) ▲ 송금선(경기) ▲ 고헌경(전남북) ▲ 홍승원(전남북) ▲ 김현실(강원) ▲ 김활란(경남) ▲ 유각경(충남북) ▲ 차사백(함남북) ▲ 서은숙(경북)

〈출전: 「婦人遊說部隊의 出發準備座談會, 昨日 京城호텔에서 開催」, 『매일신보』, 1938년 9월 11일〉

### 3-3)

#### 부인문제연구회에서 국민생활기준양식 제정

본부 학무국에서는 조선부인문제연구회를 설치하고 비상시국에 처한 국민생활의 기준양식을 제정 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는데 이의 일반의 주지 보급을 위하여는 11명의 부인연설대가 전선 각지를 순회강연하기로 되었다.

우리들은 비상시 국민생활의 기준양식을 이에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널리 일반가정에 보급시켜서 가정보국의 실천권장을 기함

#### 1. 일반적 사항

##### (가) 의례

(1) 황거요배

각 가정에서는 매 早朝에 황거를 요배하여 황실의 어안녕(御安寧)을 축(祝)하고 무운장구를  
기원할 것

(2) 축제일의 국기제양

각 가정은 축제일 국기를 제양함은 물론이고 신사에 참배하는 가풍을 함양할 것

(후략)<sup>1)</sup>

〈출전: 『婦人問題研究會에서 國民生活 基準良識制定』, 『매일신보』, 1938년 9월 13일〉

#### 4. 지방순회강연을 마치고

총독부 학무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부인문제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열흘간 열한 분이  
각 도로 순회하시며 강연회 혹은 좌담회를 행하고 돌아오시어 지방 부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시었으  
리라고 믿는 바, 본회에서는 동월 27일 순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여러 선생님을 청하여 좌담회를 열고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좌담회는 매우 길게 되어 여기에는 좌담회 형식을 버리고, ‘(1) 이  
번 농촌을 보고 예상 이상 훌륭한데 감격한 일, (2) 농촌을 보고 이것은 하루 바빠 고쳐주었으면 하고  
감촉된 일’ 의 두 가지로 갈라 간단히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하신 분

중앙보육 차사백(車士百) 선생(함남북)

이화보육 서은숙(徐恩淑) 선생(경북)

이화전문 김활란(金活蘭) 선생(경남)

성신여교 이숙중(李淑鍾) 선생(함남북)

동덕고녀 송금선(宋今璇) 선생(경기)

이화전문 고향경(高鳳京) 선생(전남북)

진명여교 조기홍(趙圻烘) 선생(황해)

숙명고녀 김현실(金縣實) 선생(강원)

녹기연맹 쓰다(津田節子) 선생

이 외에 출석 못하신 분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유각경 선생(충남북), 경기고녀 손정규 선생(평남북)  
과 홍승원 선생(전남북)의 세 분이었습니다.

〈출전: 『지방순회강연을 마치고』, 『家庭の友』 제16호, 1938년 11월, 18쪽〉

1) (나) 폐습타파, (다) 근로보국정신의 양양 등 이하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있으나 자료판독이 어려워 후략하  
였음.





## XV.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 1. 설립관계 기사

1-1)

### 대일본부인회 결성계기, 회원 2백만을 모집 총후부인운동에 획기적 비약

대동아전쟁을 완전히 이기기 위하여 총후국민생활을 전시생활(戰時生活)로 재편성하는 것은 가장 긴요한 문제이고 전시생활을 □□하는데 부인의 활동은 추진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도 내지와 보조를 맞추어 각부인 단체를 통합하여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를 결성하기로 되었는데 총독부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신 단체의 회원을 금년 안으로 2백만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모집하기로 되었다. 신 단체의 회원 되는 자격은 20세 이상의 여자와 20세 이하라도 기혼자로서 매달 5전씩의 회비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해당자는 전선에서 6백 5십만의 다수에 달하나 우선 제1차로 2백만을 모집하기로 된 것이다. 현재 국방부인회원은 36만, 애국부인회원은 46만 명인데 양 회에 가입한 수를 제한 순 회원수는 합계 65만으로 추정되므로 신단체의 결성을 기회로 회원수도 일약 3배로 증강되며 그만큼 조선의 부인운동은 앞으로 획기적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전: 「大日本婦人會結成契期, 會員二百萬을 募集 婦人統後運動에 劃期的 飛躍」, 『매일신보』, 1942년 3월 3일〉

1-2)

###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진용

전시하의 부인운동을 일층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각 부인단체를 통합하여 2월 14일 결성식을 마친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大日本婦人會 朝鮮本部) 역원은 조선본부에서 인선하여 내지본부의 승인을 얻었음으로 9일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역원

……(판독불가)…… 이원규(伊原圭), □□□, 김윤정(金玗禎), 홍승원(洪承嫵), □□□

〈출전: 「大日本婦人會 朝鮮本部陣容」, 『매일신보』, 1942년 4월 10일〉

## 2.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개황(1944)

### 1. 연혁

1901년 2월	애국부인회 창립
1906년 1월 19일	애국부인회 한국지부 설립

1932년	대일본국방부인회 결성
1937년 11월 3일	경성사관동회 본부가 됨
1942년 2월 2일	부인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져 대일본부인회 창립
1942년 3월 14일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설립

## 2. 기구 및 조직

### 1) 조선본부

(1) 소재지 : 경성부 종로구 서린정 42번지

(2) 목적 및 사업

제1조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이하 본부라 칭함)는 고도국방국가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황국전통의 부도(婦道)에 따라 수신제가 봉공의 결실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부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국체관념의 함양, 부덕수신에 관한 사항
2. 내선일체의 구현에 관한 사항
3. 국방사상의 보급철저에 관한 사항
4. 가정생활의 정비쇄신 및 비상준비확립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국민의 육성과 가정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군인원호에 관한 사항
7. 국방상 필요한 훈련에 관한 사항
8. 직분봉공, 인보협동에 관한 사항
9. 저축장려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원 및 회비

제3조 본부는 조선에 재주하는 20세 미만의 미혼자를 제외한 일본부인을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1인 연액 60전으로 하며 감액규정을 둔다.

(4) 임원

조선본부장	고이소 게이코(小磯馨子, 총독부인)
부분부장	이타가키 기쿠코(板垣喜久子, 조선군사령관 부인) 다나카 미즈코(田中美津子, 정무총감 부인)
고문	총독, 정무총감 군사령관, 진해경비부 사령장관 기타 군관민 수뇌

참여, 감사, 이사, 평의원 생략

(5) 사무국

사무총장	상임이사	쿠라시게 슈조(倉茂周藏)
------	------	---------------

총무부장            상임이사            후지에 데이이치(藤江巖一)  
 전시생활부장      상임이사            후지에 데이이치(藤江巖一)  
 지도부장            상임이사            사토 야에고로(佐藤八重五郎)

이외에 직원을 둠

(6) 도 및 하부조직

각 도에 도지부를 둔다

본부에 준하여 임직원을 둔다

각 부군도읍면에 부군도읍면 지부를 둔다

각 정동리부락 및 직역에 분회를 둔다(분회의 하부조직으로서 받을 둘 수 있다).

3. 예산

1943년도 예산은 약 35만 원으로 회비수입 20만 6천여 원 이외에 국고로부터 9만 5천원의 보조를 받아 활발한 사업실시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세출

- 1) 회의비                    6,285원
- 2) 사무비                    106,414원
- 3) 사업비                    136,790원
- 연성비                    19,877원
- 지도비                    65,496원
- 조성비                    26,333원
- 장려비                    10,080원
- 원호비                    8,000원
- 모자기숙사비            5,504원
- 행사비                    1,500원
- 4) 지부사무비 보조        78,470원
- 5) 기타

4. 본년도 사업의 개황

	사업 및 운동	기간	개황
조선 본부	국방수련	4월	개성부 외 53부군. 국방사상과 더불어 징병제 취지의 보급철저.
	연성회	4월	경성부에서 부인임원 및 남자직원의 연성을 실시하다.
	강연회	4월	대일본부인회의 사명에 대해 본 회 가와니시(川西) 사무총장의 강연회 개최. 경성 외 3부.
	전시생활좌담회	5월~9월	인천 외 43부군에서 실시.
	경제결전부인대회	5월	경성부 지부 각 분회 임원을 총동원하여 결전저축 기타 경제에 관한 격려대회를 개최하다.

	부도수련	7월~12월	원산부 외 13개소에서 실시.
	필승생활지도자강습회	7월	각 도 지부 2명씩을 소집하여 3일간 강습을 실시.
	구급법지도	8월~12월	부산부 외 15개소에서 회원 2천여 명에 대해 실시.
	국방수련 및 구급법 지도	8월~12월	국방사상 및 징병제 취지의 보급과 더불어 구급법을 습득시킴. 10개소, 수강자 총계 3,500여 명.
	보육지도자 강습회	9월	각 도 2~3명의 지도자에게 수강시켜 농번기 탁아소 개소에 다대한 효과를 거둠.
	임원지도간담회	9월~11월	춘천읍 외 3부.
	부인총궐기전람회	10월~12월	각 도 지부와 공동주최. 결전 의식주 건민 저축 총궐기 등 7부에 걸쳐 순회전람회를 개최. 23개소.
	필승생활강습회	10월~12월	각 도 지부와 공동주최로 전 조선 42개소에 걸쳐 의식생활의 강습회를 개최. 수강자 15,120명.
	강연회	10월~12월	시국과 부인의 각오에 대해 강연. 기타.
	단체훈련	12월	회원에게 대한 단체훈련.
	의생활간소화운동	11월	소매를 1척 이내로 자르고, 치마는 통형(筒型)으로 주의(周衣)의 끈은 금테를 대신하는 실천운동을 전개.
	학도지원병 모매(母妹) 감사회	1월	학도지원병의 모매를 초대하여 감사 격려하고 선물을 주다.
경기	임원수련회	4월~7월	시국인식, 부도, 유신도(惟神道), 생활쇄신 등에 관한 수련. 각 부군 읍면 지부 임원 총계 1,450명.
충북	부인국어강습회	4월~10월	
충남	비행기헌납운동	1월	도내 모든 회원 24만 원에 달하다.
	적령자 모매(母妹) 병영견학	11월	징병 적령자에게 군대생활의 인식을 깊게 함. 173명
전북	각종 위문	수시	육군병원요양원, 군인유가족 및 방공간시 등의 위문.
	유아(遺兒)격려회	7월	도내 3학교에서 개최.
	적령자 모매 병영견학	7월	각 부군 지부 부인임원이 위문품을 가지고 1일 입영.
	위문		황군 위문서 모집 및 전람회 개최 및 군인유가족의 연말 위문.
	국어강습회	연간	60부락에 걸쳐 2,330명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상습을 실시.
전남	성지참배, 선진지 견학	9월	부군도 지부 직원의 성지순배 및 내지의 군사원호사업 견학을 실시.
	경성병영 견학	10월	각 부군도 지부 조선부인 임원 48명, 경성의 부대를 견학하여 군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다.
	각종 위문	수시	육해군부대, 헌병대, 도 출신 군인 군속, 군병원 등의 위문.
	수영강습회	8월	도 및 광주부 지부 임원 회원 60명에게 실시.
경북	결전생활에의 절환독려	4월	도지부 임원 20명을 동원하여 각 분회를 시찰 독려하다.
	신문지헌납운동	7월	모 부락의 수요에 응하여 각 가정으로부터 각출하여 2일간에 10만 매에 달하다.
	각종 위문	수시	군부(軍部) 이외에 증산전사를 위문.
경남	부인병영견학	9월	조선인 모매 1군 2명을 모아 육군부대 및 특별지원병훈련소를 견학.

	방공훈련	11월	부산부 지부 회원에 대해 동 병사부장 지도 아래 가정방공훈련을 실시.
	각종 위문		
황해	징병제취지 보급철저강습회	11월 이후	해주 병사부원을 강사로 도내 모든 부군에 걸쳐 실시.
평남	일부(日婦) 회원 일동 입영	9월	반장 이상 300명, ○○항공창 및 비행대에 입영 견학.
강원	연성회	6월~10월	본도 이하 각 지부 임직원에 대해 7개소 계 271명의 수련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본의 및 본 회의 사명에 관한 강습을 실시.
함남	도 및 부군 지부 간부부인 좌담회	2월~3월	단체의 본의 투철, 전시생활의 철저, 생산증강, 암거래 근절, 국어사용, 징병제에 대한 자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연마하다. 15개소, 약 1천여 명.
함북	부도수련회	7월	청진 나남 양 지부에서 회원 550명을 모아 수양단 본부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수련을 실시.
각 도 공동행사 및 사업			각종 연성회, 진유류(眞鑰類)회수 운동, 전의양양 및 징병제 취지보급강연회, 국어보급운동, 각종 간담회, 좌담회 등. 애국기숙사, 모자기숙사, 탁아소.

〈출전: 『朝鮮の國民總力運動-附 大日本婦人會朝鮮本部概況』, 朝鮮總督府, 1944년, 105~113쪽〉

### 3.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개요

3-1)

#### 대일본부인회

애국부인회는 청일전쟁 당시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 여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인층에게 호소하여 황군 위문을 장려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조선에서는 1906년 1월 애국부인회 한국지부로서 창립된 것이 그 기원이다. 대일본국방부인회는 과거 오사카에서 일어난 대풍수해에 즈음하여 마을의 부인들이 이재자(罹災者) 구조를 위해 열성적으로 활약한 것이 그 기원인데,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출정군인의 송영, 유가족의 원호 위문 등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부인 대중이 단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부에서는 이를 지도감독하게 되었다. 이후 급속히 발달하여 지나사변 이후는 대부분의 부인은 애국부인회나 국방부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두 단체 모두 대체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동일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매우 번잡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내지에서는 양 부인회 이외에 대일본부인회도 결성되어 때로는 활동분야에 대한 의견의 대립도 생겨나 시국 하에서 부인의 총력발휘에 유감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아졌다.

## 신부인단체 결성

1941년 6월 10일 각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먼저 앞의 세 개의 부인단체는 발전적으로 하나로 해소하고 신규로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요청에 즉응하는 일원적인 신부인단체를 결성하자는 논의가 결정되었다. 이후 이를 준비하다가 드디어 1942년 2월 2일 대일본부인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중앙의 근본방침에 따라 조선의 특이한 사정을 참조하면서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가 결성되었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목적과 사업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는 고도국방국가체제에 즉응하기 위해 황국전통의 부도(婦道)에 따라 수신제가 봉공의 결실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국제관념의 함양, (2) 내선일체의 구현, (3) 국방사상의 보급철저, (4) 가정생활의 정비쇄신 및 비상준비 확립, (5) 차세대 국민의 육성과 가정교육의 진흥, (6) 군인원호, (7) 국방상 필요한 훈련, (8) 직분봉공, (9) 저축장려, (10) 기타 필요한 사항

본부에는 하부조직으로서 도부군도읍면에 각각 지부를 두고, 정촌리 또는 부락에 분회를 두어 본부와 협력하여 앞의 사업을 실시한다.

### 2. 회원과 사무소, 사무국

대일본부인회 회원은 내지, 외지(대동아전쟁의 점령지는 포함하지 않음)에 거주하는 성년 일본부인 모두가 가입자격자이다. 본부는 조선 재주 대일본부인회 회원을 그 회원으로 삼으며 본부 사무소는 경성 서린정에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규정에 따라 총무부, 국방훈련부, 학생부 등 3부제로 한다.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상무이사, 참사, 서기 등의 직원이 각각 사무를 분장한다.

### 3. 임원

본부장에는 대일본부인회 총재의 위촉에 따라 총독 부인, 부분부장에는 총재의 위촉에 따라 군사령관 부인, 정무총감 부인이 이번에 취임하였다. 고문으로는 조선총독, 조선군사령관, 정무총감, 진해경비부 사령장관, 경성 및 나남 양 사단장, 경성제국대학 총장, 중추원 부의장 등이고, 또 참여로는 총독부 각 국장, 군부, 민간유력자를 각각 위촉하였다. 이사는 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 회원 가운데에서 위촉하였고, 이사회를 조직하여 예산결산, 회비의 징수처리, 자신의 관리,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이외에 평의원은 회원 가운데에서 위촉되어 본부장을 자문한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인데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 4. 회비

회비는 1인 연액 60전인데 1세대에 다수의 회원이 있을 경우나 군사부조를 받고 있는 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출전: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3년, 87쪽〉



### 대일본부인회

애국부인회, 대일본부인회, 대일본연합부인회의 세 개의 부인단체는 1941년 6월 10일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요청에 즉응하여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일원적인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1942년 2월 2일 대일본부인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위의 내각의 방침에 순응하여 1942년 2월 중에 기존의 애국부인회와 대일본국방부인회를 해산하고, 3월 15일 대일본부인회 조선분부를 설립하였다. 조선분부는 이와 같이 결성되었는데, 조선의 특수사정을 참조하여 그 목적과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목적과 사업

고도국방국가체제에 즉응하기 위해 황국전통의 부도(婦道)에 따라 수신제가 봉공의 결실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국체관념의 함양, (2) 내선일체의 구현, (3) 국방사상의 보급철저, (4) 가정생활의 정비쇄신 및 비상준비확립, (5) 차세대 국민의 육성과 가정교육의 진흥, (6) 군인원호, (7) 국방상 필요한 훈련, (8) 직분 봉공, (9) 저축장려, (10) 기타 필요한 사항

〈출전: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4년, 68쪽〉

## 4. 토야마 간로쿠(頭山漢六), 국난과 일본부도(日本婦道)

### 국난과 부인의 도

남자는 전선에서 여자는 총후에서 지킨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오늘날의 국난을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지금은 적을 쓰러뜨릴까 아니면 쓰러질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국가가 설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의 상황이다.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국난을 뛰어넘고 대군(大君)과 황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일본의 여성은 모든 일에 부드럽고 조신하게 처신하면서 조용히 가정을 지키고 긴 소매의 기모노에 긴 옷자락을 걷어 올려 남편만을 섬기면 그것이 여성다운 부도였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3천년에 걸친 조상들이 훌륭하게 지켜낸 황국을 망그러뜨리고 말 것이다.

교만한 적은 이제 태평양 저편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다. 아침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본토를 공격해오고 있다. 바로 발밑까지 공격해오고 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큰 도시를 비롯해 규슈부터 오키나와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해오고 있다. 화재(火災)라면 근처에 방법이 있는 것처럼,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여성은 황국을 지켜내기 위해 부인과 딸 모두가 전쟁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 무렵에는 여자정신대라던가 부인특공대와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 부인들의 움직임은 바꿔 말하면

지금의 여자정신대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예전의 무사의 부인, 무가의 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창과 짧은 칼을 품고 큰 칼을 후려쳐 적과 서로 찢러 죽이며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총후에서 남자가 없는 생산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장에서 생산장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남편의 처로서, 가정의 딸로서 살아온 것을 국가의 처, 나라의 딸이 되는 것이다. 또 일본의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됨과 동시에 대동아의 어머니가 되고 처와 딸이 되는 것이다. 강하고 크고 높은 동아의 여성. 이렇게 강력한 여성으로부터 대동아의 재건이 가능하고, 공영권이 번성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결전훈(決戰訓)'의 말을 빌리자면 일본부인은 모두 전우이다.

### 대동아의 어머니가 되다

뛰어나고 늠름한 여성. 이것이 국난을 떠맡고 일어난 일본 부도(婦道)의 모습이다.

설령 공습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남자 손이 부족한 방공진에 서서 척척 활동하고, 때로는 목총과 죽창을 들고 교만한 적을 힘으로 죽여야 한다. 백대 천대의 적기가 머리 위에서 공습하더라도 눈 하나 까닥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활동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예전과 같은 여성스러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불이 붙어 격렬한 불길에 머리 위를 덮친다. 이럴 때 부드러운 여성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 남자다운 여성의 길

남자는 전선에서 특공대가 되어 싸우고 있다. 총후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여성의 손 하나로 해나가야 한다.

많은 여자는 남자의 직장을 이어받아 특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젊은 여자는 학교로부터 공장으로, 가정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나가 바싹바싹 다가오는 생활의 격렬함과 싸워나가야 한다. 내지도 조선도 실제로 여성에게 조그마한 틈조차 줄 수 없게 되었다.

먼 옛날의 여성의 길인 여성스러움이나 부드러움, 혹은 여성의 소양 등과 같은 평화로울 때의 삶의 방식은 없어졌다. 길으로 보기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라를 지키면서 적을 궤멸시키기 위해서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본 부인의 도(道)가 있다.

지금의 전국(戰局) 아래에서는 낡은 여성의 도에서 새로운 여성의 도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주의나 가정 중심, 남편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지금까지의 여성의 허물을 깨고 '전력증강'과 '결전필승'이라는 단 하나 전쟁의 승리를 향해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구별이 없이 분발하여 일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난 일본의 부도여야 한다. 즉 새로운 일본 부도란 다른 말로 한다면 남성답게(여성답지 않은 것) 자신을 버리고 황국을 지켜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사의 아내, 무가의 딸

낯다고 말하는 일본 부도에는 무사의 아내, 무가의 딸이라는 약한 이야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동아의 여성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비춰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일본 부인의 각성을 통해 지금까지의 부도에는 보이지 않았던 조직이나 단결이 생겨나, 생산 공장에서 일하기 위한 과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익혀왔다. 대동아전이라는 것에 몸이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아민족의 숙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도 계통, 즉 지름길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와 같은 여성스러움이라는 약함이 없어서 명랑하고 더구나 강함을 지닌 여성의 모습이 생겨났다.

이러한 부도의 경험은 승리의 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일본 부인의 가정 안에서의 커다란 경험의 도입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건국 이래의 국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지금 정신되기를 기원한다.

〈출전: 頭山漢六, 『國難과 日本婦道』, 『日本婦人』 1944년 5월호, 17~20쪽〉

## 5. 주요활동 관계 기사

5-1)

### 300만 회원을 총동(總動), 철저한 전시훈련 실시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신발족

결전하 총후 1천만 반도여성 특히 황국일본 최근 각 부분에 철저□□ 활발하게 전개되어 광산, 공장, 직장의 생산 전선으로 또는 그 외의 사회 각 방면의 작업 전선으로 씩씩한 진군을 계속하여 □□□□ 성과를 거두고 이겨 나와 태평양전쟁의 진전은 더욱 부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한층 힘차게 기대하는 바 있으므로 반도부인들의 중심지도단체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대중적 조직체인 대일본부인회(大日本婦人會) 조선본부(朝鮮本部)에서는 금후 한층 조직을 정비 확충하고 힘찬 실천력을 길러서 미증유의 중대 시국을 돌파하여 나아갈 부인들의 철벽같은 총후 태세를 갖추기로 되었다. 즉 현재 3백만 회원을 가지고 전선 각도의 정동부락에 이르기까지 각 지부 분회를 결성하여 형식적인 조직기구는 대체로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작년 6월 회장에는 고이소(小磯) 총독 부인을 또 부회장에는 다나카(田中) 정무총감 부인을 새로이 맞이한 후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본부 이사회도 개최하지 못하였으므로 근근 중앙간부도 □□□□ 또는 개선하여 가장 정신 강력한 지도 기구를 확립한 다음 오는 2월 중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신이사해를 개최한 후 국민총력연맹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계몽운동 국방훈련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부인운동을 전개할 터이다. 그럼에 계몽운동에 있어서는 각 지부 분회의 증견간부들의 지도자 연성과 각 분회 주최의 국어강습회를 강화 확충하며 국방훈련에 있어서는 각 분회 단위로 대피·방공·방화 등을 비롯한 실천적 종류의 철저한 전시훈련을 실시하여 물심양면에 걸쳐 총후반도부인들의 씩씩한 애국운동을 전개할 터이다.

〈출전: 「三百萬會員을 總動, 徹底的한 戰時訓練實施, 大日本婦人會朝鮮本部發足」, 『매일신보』, 1943년 1월 25일〉

5-2)

**전시부인(戰時婦人)을 연성(鍊成)**

가정도 결전장에 돌입하여 있는 이 시국에 처하여 가정부인들도 불멸의 일본정신을 체득하여 필승을 기하고 대일본부인회(大日本婦人會) 경성부지부(京城府支部)에서는 20만 회원의 총연성을 단행하기로 한다. 여기에 제1작으로 먼저 각 분회(分會) 역원을 상대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조선신궁 풍영료(豊榮寮)에서 부인연성회(婦人鍊成會)를 개최한다. 참가인원은 도합 270명으로 다섯 반으로 나누어 누까가공사(額賀宮司) 동(同)부인, 오오야 연성부장(大家鍊成部長)등의 지도 밑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의 진지한 연성을 받고 이 연성이 끝나면 점차 회원들에게도 동양의 연성을 행하여 적 미영격멸의 투혼을 함양하게 할 터이다.

〈출전: 「戰時婦人을鍊成」, 『매일신보』, 1943년 9월 7일〉

5-3)

**부인들 총후 전열(戰列)에, 일부(日婦) 조선본부서 총궐기를 평정**

총부후인도 감연히 궐기할 때는 왔다. 남자의 동원과 아울러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조력만 하는 부인도 한 걸음 더 앞서 제1선에 나설 각오로 총동원 되어 전쟁생활화 생활증강운동 전쟁을 완수하기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하게 되었다. 대일본부인회(大日本婦人會) 조선본부(朝鮮本部)에서는 11일 오전 10시 부내 서린정(瑞麟町) 동회 사무국에서 동회 본부차장 이도(伊□□)중장 동 조선본부사무국장 구라시게(倉茂周藏)소장과 하다(渡田英子)조선연맹소장부인, 하라(原琴子)경성고등법원장 부인, 이하라(伊原圭) 씨, 홍승원(洪承媛) 씨, 후쿠사와(福澤玲子) 씨 등 본부 위원 28명이 모이어 부인궐기에 대한 협의의 간담을 하고 11일 11일부터 1주일간을 부인총궐기운동 주간으로 하여 전선 6백만 회원이 모두 전투배치에서 부인의 힘을 다 할 것을 정하였다. 총궐기 운동은 11일부터 일주일간 전선적으로 전개되어 경성을 비롯하여 전선 각 지부와 분회에서는 11일 영지봉독식을 거행한다. 기간중 전 회원이 동원되어 공동 작업과 방공연습과 구호훈련을 하여 전쟁생활의 실천을 체득하게 하고 향토출신의 항공용사와 선원(船員)에 위문문과 위문품을 보내며 결전의생활(決戰衣生活)의 철저 회원의 국민저축률을 증가(한 사람이 1년 평균 10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하고 20세 이상 부인의 유자격자는 모두 부인회 회원이 되어 부인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이 기간의 궐기로써 일본 고유의 '집(家)'에 대한 사상을 더 한층 살리며 새로운 구상 아래 결전 하 총후 부인의 갈 길을 지시 촉진하기에 여러 가지의 방책으로 전이 거듭되는 전쟁을 이겨 나갈 힘을 배양하기로 된 것이다.

〈출전: 「婦人들 銃後戰列에, 日婦朝鮮本部서總蹶起를 評定」, 『매일신보』, 1943년 10월 12일〉

5-4)

**강병배양(强兵培養) 거듭 맹서, 학병 모매(母妹) 감사대회 성황**

구국 반도의 영예인 학도특별지원병제는 반도 민중의 마음 속에 한결같이 비상한 자극을 주어 이제 야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난 내선일체라는 획기적인 이념 아래 1천 5백만 동포 임무가 하늘을 찌를 듯한 맹렬한 기세로 총결집 하였다. 반도 출신의 □□이어 다시 금년부터 수만의 청장년들이 군문으로 들어 감에 따라 □□ 조선은 오랫동안 남모르게 가슴 속에 품고만 있던 수국의 정열을 아시아의 □□역사를 창조하는 거룩한 □□의 마당에서 마음껏 발휘할 터이거니와 이런 올라오는 힘을 평소애 배양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숙한 어머니와 누이들의 힘이 절대로 크다.

이런 의미에서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에서는 동 부인회 경기도지부, 경성지부공동주최로 출진학도들의 입영을 오는 20일까지 옛새를 앞두고 14일 오후 1시부터 경성 부민관 대강당에서 부내 학병들의 어머니님 혹은 누님들 1천 5백여 명을 초대하여 ‘출진학도 모자감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먼저 국민 의례에 이어 주최자 측으로부터 연사의 말이 있고 내빈대표로 고 윤치호(尹致昊) 자작 부인이

‘여러분께서는 아드님 혹은 아우님들을 명예스러운 전장으로 내어 보내게 되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황국백성으로서 이보다 더 큰 경사는 다시없을 것임에 저는 삼가 이 대회 석상을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라는 축사가 있고 끝으로 모자(□□)대표로부터 답사가 있는 후 대회는 성대히 끝을 마쳤다. 대회가 끝나자 □회를 이어 조선연극문학협회에서 김다영(金茶□) 김□(金□) 양 등이 봉사적인 출연을 하는 호화로운 여흥이 시작되어 만담으로 노래로 무용으로 학병의 어머니와 누님이 가득히 모인 강당에는 명랑한 웃음판이 벌어졌다. 여흥이 끝나고 참가자가 해산을 할 때에는 부인회로부터 기념품으로 보자기와 과자를 증정하였다.

〈출전: 「强兵培養 거듭盟誓, 學兵母妹感謝大會盛況」, 『매일신보』, 1944년 1월 15일〉

5-5)

**살림을 결전화(決戰化), 일부(日婦)의 지도운영 대강(大綱)**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에서는 1944년도의 지도운영의 대강을 결정, 긴박한 시국에 대처하여 반도부인으로서 나갈 길을 명백히 하였는데 전 회원은 방공실천과 □□□의 흡족한 비약적 증산, 식량 증산과 소비절약, 공습에 대한 만전의 준비에 실행의 □□□ 두고 □□을 집결하여 부인보국의 준책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도 요강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정신의 함양 본 회원들은 총력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공습에 대비하여 각 가정을 확고히 지켜 장차 황군장병이 될 어린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공영권내 제 민족 여성의 지도자로서의 미덕을 양성하여 적개심의 양양과 반격에 힘쓸 것.
2. 결전 생활의 증강 생산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여 자녀를 자진하여 생산전장에 내보내고 전력보강에 필요한 금속들의 공출과 소비 절약에 힘쓰며 □□□□의 □행 □□지 할 것. 특히 □□지

출 이□하여 농업생산에 참가할 것.

3. 결전생활의 실천= 곤란한 생활을 극복하여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간소한 생활을 할 것. 특히 소비생활을 연구 개선하여 임의로 매점(買占)을 하지 말며 저축에 힘쓸 것. 또 어린이와 임신부를 보초하고 건민강병을 육성하고 결혼을 장려하여 인구 증가에 협력할 것.

4. 징병제의 □□의 □□와 강화

징병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병영생활에 □□ 일반상식을 늘리고 또 방공훈련을 남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부인의 손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구급에 특히 철저한 훈련을 할 것.

5. □□□□□□□□의 강화

군인의 유가족의 위안 협조는 물론이요, 기타 산업 전사의 위로 격려에 힘쓸 것.

〈출전: 「살림을 決戰化, 日婦의 指導運營大綱」, 『매일신보』, 1944년 4월 23일〉

## 찾아보기

### 【ㄱ】

- 가미자키(神崎此助) 343  
 가미자키 가넨(神崎禾念) 507  
 가미타키 모토이(上瀧基) 340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 327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219, 222, 327, 328, 336, 343, 436, 446  
 가와하라(河原榮作) 509  
 가즈라(桂基準) 343  
 갈홍기(葛弘基) 503, 504, 513, 613, 615, 623, 625  
 강교원(姜教元) 419  
 강기덕(康基德) 432  
 강기형(姜基衡) 435  
 강낙원(姜樂遠) 398  
 강대곤(姜大崑) 409  
 강대식(姜大湜) 424  
 강덕선(姜德善) 504  
 강동희(姜東曦) 422  
 강문회(姜文會) 414  
 강변(姜藩, 豊田藩) 414, 509  
 강병순(姜柄順) 22, 401  
 강본오랑(岡本五郎) 404  
 강본용표(康本容杓) 406  
 강본정호(江本晶鎬) 418  
 강본종덕(江本鍾惠) 439  
 강봉서(姜鳳瑞) 430  
 강세진(康世鎭) 432  
 강송주학(岡松周鶴) 419  
 강신호(姜信鎬) 503, 505, 510  
 강영균(姜英均) 432  
 강영수(姜榮秀) 506  
 강영철(康永喆) 401  
 강원기양(江原基陽) 360, 365, 409  
 강원백(江原伯) 422  
 강원청장(江原淸藏) 419  
 강이황(姜利璜) 429, 440  
 강익하(康益夏) 380, 397  
 강제동(姜濟東) 397  
 강창오(康昌梧) 412  
 강철모(姜哲模) 424  
 강촌상호(江村相鎬) 406  
 강학병(姜鶴秉) 434, 510  
 경성불교각종연합회 74  
 경성여자중등학교동창회연맹 74  
 경성일보사 74  
 경성토목건축업협회 74  
 계명구락부 75  
 계용묵(桂鎔默) 22, 648  
 계정식(桂貞植) 403  
 고경흠(高景欽) 521  
 고광표(高光表) 538  
 고덕환(高德煥) 419, 509  
 고도재연(高島在涓) 425  
 고도철부(高島撤夫) 433  
 고목창환(高木昌桓) 422  
 고병철(高秉哲) 429  
 고봉휘(高峯暉) 428  
 고산경식(高山景植) 431

- 고산성협(高山聖協) 435  
 고산수창(高山秀昌) 435  
 고산재동(高山栽東) 409  
 고산정의(高山正義) 417  
 고산하수(高山夏樹) 419  
 고산호웅(高山虎雄) 440  
 고에츠키카(肥塚正太) 343  
 고영순(高永珣) 402  
 고원훈(高元勳) 18, 22, 360, 364, 369, 377, 380, 436, 442, 444, 445, 446, 447, 448, 450, 456, 478, 689, 723  
 고유일(高有日) 429  
 고일청(高一淸) 429, 437, 451, 508  
 고일환(高日煥) 507  
 고재욱(高在旭) 400, 689  
 고지마(児島兼好) 220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 508  
 고헥경(高鳳京) 18, 26, 377, 381, 398, 443, 478, 723, 731, 734, 735  
 고희선(高義璇) 503  
 공산용신(公山容愼) 436  
 공성학(孔聖學) 408  
 곽병관(郭丙寬) 507  
 곽양훈(郭良勳) 513, 518, 521  
 곽전근(郭填根) 423  
 곽중섭(郭鍾燮) 420  
 곽진영(郭振泳) 414  
 곽행서(郭行瑞) 22, 406, 648  
 광산종향(廣山種香) 406  
 광원의풍(光原義豊) 421  
 광정태운(廣田泰運) 419  
 광촌제래(廣村堤來) 425  
 교목종환(喬木鍾丸) 416  
 교학쇄신(敎學刷新) 46  
 구가자옥(具家滋玉) 437  
 구도(宮藤) 505, 506  
 구로이와(黑岩寬一) 508  
 구리타 세이조(栗田清造) 502, 503, 504, 513  
 구미명선(龜尾明宜) 408  
 구사노(草野計人) 509  
 구세균 조선본부 75  
 구연직(具然直) 414  
 구익균(具益均) 508  
 구자옥(具滋玉) 23, 377, 380, 401, 437, 443, 450, 503, 649, 650  
 구창조(具昌祖) 380, 403  
 국가총동원운동 483  
 국강청덕(國岡淸德) 412  
 국기현(鞠琪絃) 425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會) 13, 24, 709, 712  
 국민정신총동원 46, 49, 63, 67, 72, 73, 79, 97, 110, 112, 160, 162, 163, 175, 178, 179, 180, 182, 183, 184, 187, 189, 289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남도연맹 101, 153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 101, 151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 74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 142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專賣聯盟) 74, 93, 104  
 국민정신총동원 정동리부락연맹 186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51, 65, 71, 111  
 국민정신총동원 지방연맹 95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 100, 150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북도연맹 156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북도연맹 98, 147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남도연맹 100, 149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북도연맹 155  
 국민정신총동원 황해도연맹 154  
 국민정신총동원운동 34, 46, 47, 49, 50, 57, 79, 82, 127, 264, 298, 300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63, 64, 124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3, 14, 65, 83, 267,  
 294, 295, 270, 290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 14  
 국민총력 도연맹 250  
 국민총력 부군도읍면연맹 250  
 국민총력 수산보국운동 239  
 국민총력운동(國民總力運動) 212, 216, 219, 250,  
 251, 275, 313, 319, 650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13, 16, 245,  
 250, 257, 291, 293, 302, 356  
 국민협회 74  
 국채구입(지급)운동 136  
 국체명징(國體明徵) 46, 191  
 국평봉구(國平鳳九) 408  
 국호열(鞠鎬烈) 425  
 궁곡방만(宮谷芳滿) 420  
 궁본관진(宮本觀鎭) 435  
 궁본민광(宮本敏光) 409  
 궁분화행(宮本和幸) 428  
 궁전장(宮田藏) 407  
 권경득(權庚得) 503  
 권대형(權大衡) 506  
 권동병인(權東炳仁) 415  
 권동진(權東鎭) 401  
 권상로(權相老) 203, 380, 400  
 권승하(權承夏) 433  
 권오중(權五鍾, 永野喜郁) 418  
 권용훈(權容勳) 507  
 권우섭(權宇燮) 506  
 권준상(權俊相) 506  
 권중열(權重烈) 418  
 권중혁(權重赫) 413  
 권충일(權忠一) 19, 503, 513, 516, 518, 520, 521,  
 622, 623  
 권태성(權泰星) 509  
 금강병제(金岡秉濟) 407  
 금강부원(金岡富源) 411  
 금강영일(金岡榮一) 397  
 금강인관(金岡仁寬) 410  
 금강진성(金江鎭聲) 411  
 금곡영준(金谷英俊) 425  
 금광교(金光敎) 75  
 금광덕충(金光德忠) 410  
 금광도수(金光道秀) 415  
 금광유현(金光裕鉉) 417  
 금궁원(金宮元) 424  
 금도광휘(金島光輝) 426  
 금본안민(金本安民) 432  
 금산광일(金山光一) 410  
 금산부하(金山富河) 418  
 금산수길(金山秀吉) 428  
 금산응순(金山應純) 406  
 금산익조(金山益造) 434  
 금성민치(金星敏治) 426  
 금성억근(金城億根) 420  
 금영태훈(金永泰勳) 365, 408  
 금우근호(金于根鎬) 409  
 금원태두(金原泰斗) 419  
 금자우동(金子雨東) 418  
 금자원섭(金子元燮) 409  
 금자일(金子一) 431  
 금자전간(金子典幹) 365, 420  
 금전대영(金田大英) 416  
 금전영무(金田英武) 365, 423, 437  
 금전영옥(金田英玉) 451  
 금전영일(金田英一) 415  
 금전용주(金田龍周) 418  
 금전정환(金田正煥) 417  
 금전치배(金田致培) 425

- 금전형준(金田炯俊) 428  
 금정권영(金井捲永) 416  
 금정태집(金井泰濩) 406  
 금천관(琴川寬) 399  
 금천상일(金川相一) 426  
 금천해룡(金川海龍) 428  
 금촌강홍(金村康弘) 420  
 금촌길우(金村吉祐) 420  
 금촌낙범(金村洛範) 412  
 금촌병태(金村秉泰) 402  
 금촌영선(金村永善) 431  
 금촌철웅(金村喆雄) 428  
 금택경차(金澤慶次) 416, 437, 451  
 금택교준(金澤教駿) 415  
 금택청(金澤淸) 411  
 금판대원(金坂大元) 435  
 금포건유(金浦健裕) 412  
 금포덕유(金浦德裕) 412  
 금포찬유(金浦讚裕) 412  
 금해선홍(金海善洪) 425  
 기본춘성(杞本春盛) 420  
 기시카와 분사부로(川岸文三郎) 450  
 기타무라(北村直甫) 509  
 길경섭(吉慶燮) 507  
 길산호남(吉山虎男) 429  
 길일철 508  
 길전수웅(吉田守雄) 423  
 길전순하(吉田舜河) 426  
 길전장영(吉田長榮) 422  
 길천성진(吉泉成辰) 411  
 김갑순(金甲淳, 金井甲淳) 365, 377, 380, 399,  
 437, 443, 450, 689  
 김건영(金健永) 365, 427, 439  
 김경엽(金璟燁) 421  
 김경윤(金景潤) 431  
 김계림(金桂林) 407, 503  
 김관식(金觀植) 427  
 김관현(金寬鉉, 金光副臣) 721, 723  
 김광민(金光敏) 406  
 김광수(金光洙) 397, 403, 438, 451  
 김광업(金廣業) 507  
 김광호(金光浩) 429  
 김교철(金敎哲) 396  
 김규면(金圭冕) 396  
 김규승(金奎承) 429  
 김규택(金奎澤) 402  
 김근영(金根永) 507  
 김기덕(金基德) 380, 396, 439  
 김기도(金基道) 380, 397  
 김기수(金基秀, 金田基秀) 365, 411, 437, 451  
 김기전(金起田) 401  
 김기주(金基柱) 506, 507  
 김기찬(金奇贊) 506, 522  
 김기철(金基哲) 436  
 김기택(金基王宅) 436  
 김기택(金琪宅) 510  
 김기형(金基炯) 408  
 김기홍(金起鴻) 429  
 김길창(金吉昌) 421  
 김낙유(金洛瑜) 429  
 김달현(金達鉉) 432  
 김대우(金大羽) 16, 190, 193, 194, 721, 722, 723  
 김대윤(金大允) 504  
 김덕린(金德麟) 431  
 김덕잠(金德潛) 430  
 김도연(金道淵) 381  
 김도태(金道泰) 398  
 김동석(金東錫) 409, 566  
 김동성(金東成) 381, 404  
 김동원(金東元) 22, 427

김동익(金東益) 402  
 김동준(金東準) 22, 419, 439, 648  
 김동진(金東進, 金本東進) 22, 377, 380, 399, 437, 443, 639  
 김동혁(金東赫) 406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 18, 22, 24, 365, 371, 373, 375, 376, 377, 414, 436, 442, 444, 446, 447, 449, 450, 456, 505, 623, 648, 712, 714, 715, 716  
 김동훈(金東勳, 金原邦光) 365, 380, 395, 437, 451  
 김두기(金斗基) 407  
 김두정(金斗禎) 16, 201, 502, 503, 504  
 김두환(金斗煥) 506  
 김명준(金明濬, 金田明) 365, 377, 380, 405, 437, 443, 451, 689, 721, 723  
 김명하(金明夏) 380, 397, 438, 451  
 김명학(金明學) 360, 365, 431, 437, 450, 451  
 김몽길 507  
 김문걸(金文杰) 430, 509  
 김문집(金文輯) 16, 196  
 김병규(金秉圭) 420, 437, 510  
 김병로(金炳魯) 380, 404  
 김병숙(金炳壽) 507  
 김병제(金炳濟) 430  
 김병조(金秉兆) 427  
 김병준(金炳駿) 411  
 김병준(金炳俊) 425  
 김병환(金炳煥) 410, 504  
 김병희(金秉喜) 451  
 김복일(金福一) 443  
 김봉죽(金鳳竹) 429  
 김봉희(金鳳喜) 503, 504, 508  
 김부득(金富得) 506, 507  
 김사연(金思演) 18, 22, 364, 373, 376, 377, 379, 397, 436, 440, 443, 446, 448, 450, 456, 479, 629, 689, 723  
 김사용(金思溶) 444  
 김삼순(金三淳) 424  
 김상돈(金相敦) 411  
 김상설(金商說) 430  
 김상연(金尙演) 506  
 김상용(金尙鎔) 398  
 김상용(金相龍) 507  
 김상은(金相殷) 411, 439  
 김상혁(金相赫) 411  
 김상화(金商和) 428  
 김상훈(金相勳) 504, 505  
 김서중(金瑞仲) 435  
 김석룡(金碩龍) 508  
 김석순(金錫舜) 421, 522  
 김석희(金碩熙) 419  
 김선(金善) 18, 478  
 김성권(金星權) 380, 395, 439  
 김성려(金成麗) 412  
 김성수(金性洙) 364, 379, 398, 437, 451  
 김성율(金聲律) 89  
 김성진(金晟鎭) 22, 377, 380, 402, 438, 443, 451  
 김성철(金星哲) 507  
 김성호(金聖浩) 397  
 김성환(金成煥, 金山成煥) 381, 395  
 김세완(金世玩) 508  
 김세평(金世平) 397  
 김세환(金世煥) 503, 504, 513, 518  
 김수근(金守根) 433  
 김수길(金秀吉) 435  
 김수암(金水岩) 505, 522  
 김수장(金壽長) 430  
 김승복(金昇福) 377, 380, 396, 437, 442, 451  
 김승수(金承洙) 431  
 김승훈(金承堧) 430  
 김시권(金時權, 菊山時權) 18, 365, 373, 375, 377,

- 380, 395, 436, 442, 450
- 김신석(金信錫) 22, 424, 439, 538
- 김안도(金安燾) 430
- 김안식(金安植) 425
- 김약수(金若水) 373, 380, 403
- 김양수(金良洙) 381, 400
- 김억(金億) 403
- 김억규(金億圭) 416
- 김여백(金汝伯) 380
- 김연수(金季洙) 18, 329, 364, 369, 377, 379, 395, 436, 442, 445, 446, 450, 456, 689
- 김연식(金演植, 山田演柱) 21, 422, 570, 613
- 김연옥(金淵玉) 427
- 김영기(金寧起) 427
- 김영률(金榮律) 507
- 김영무(金英武, 金田英武) 437
- 김영배(金映拜) 397
- 김영주(金泳柱) 398
- 김영진(金英鎭) 404
- 김영환(金永煥) 403
- 김예용(金禮鏞) 504, 505, 516
- 김옥배(金玉培) 419
- 김용국(金容國) 380, 399
- 김용규(金容奎) 422
- 김용기(金容琪) 415
- 김용무(金用茂) 404
- 김용암(金龍巖) 407
- 김용제(金龍濟) 503, 504
- 김우현(金禹鉉) 380, 401
- 김원근(金元根) 413, 439
- 김원천(金源千) 426
- 김윤정(金允禎) 478, 721, 722, 739
- 김은호(金殷鎬) 25, 380, 402
- 김응방(金應芳) 503, 508
- 김의용(金義勇) 430
- 김익진(金益鎭) 429
- 김인술(金仁述) 381, 400
- 김인오(金仁梧) 428
- 김인이(金麟伊) 400, 688
- 김인저(金寅杵) 425
- 김인흥(金仁興) 413
- 김일헌(金日憲) 434
- 김장태(金璋泰) 421, 439
- 김재규(金在珪) 425
- 김재수(金在水) 505
- 김재철(金在喆) 343
- 김재훈(金載勳) 407
- 김정석(金定錫, 金山韶能) 366, 434, 440
- 김정수(金正洙) 507
- 김종량(金宗亮) 406
- 김종석(金鍾奭) 412
- 김종선(金宗善) 381, 397, 506, 507
- 김종언(金鍾彦) 426
- 김종현(金宗鉉) 426
- 김주익(金周益) 380, 398, 437, 451
- 김주한(金胄漢) 408
- 김준규(金駿圭) 416
- 김준상(金浚相) 428
- 김준연(金俊淵) 380, 403, 503
- 김준원(金竣源) 421
- 김중섭(金仲燮) 427
- 김중현(金仲賢) 508
- 김지하(金趾河) 430
- 김진섭(金晋燮) 507
- 김진수(金晋洙) 428
- 김차용(金且龍) 506, 522
- 김찬주(金燦珠) 417
- 김창권(金昌權) 434
- 김창수(金昌洙, 金山敬) 414, 439
- 김창일(金昌一) 436, 505

김창제(金昶濟) 381, 401  
 김창준(金昌俊) 435  
 김창현(金昌玄) 413  
 김충식(金忠植) 426  
 김치제(金致濟) 508  
 김칠성(金七星) 504  
 김태균 505  
 김태길(金泰吉) 513  
 김태문(金泰文) 504  
 김태석(金泰錫) 395, 438, 451  
 김태식(金泰植) 430  
 김태호(金泰浩) 509  
 김택용(金澤勇) 23, 377, 381, 404, 442, 648, 649, 650  
 김택천(金澤天) 420  
 김판권(金判權) 505, 516, 522  
 김필응(金弼應) 427  
 김학준(金學俊) 431  
 김학찬(金學贊) 430  
 김한경(金漢卿) 20, 502, 503, 513, 516, 518, 520  
 김항규(金恒圭) 380, 403  
 김항복(金恒福) 427  
 김현국(金炫國) 420  
 김현제(金顯濟) 503, 504, 518  
 김형국(金衡國) 413  
 김형원(金炯元) 380, 400  
 김형철(金亨喆) 412  
 김호태(金昊泰) 418  
 김홍량(金鴻亮) 412, 439  
 김홍섭(金弘燮) 435  
 김화현(金華鉉) 430  
 김활란(金活蘭, 天城活蘭) 18, 22, 25, 26, 373, 375, 380, 411, 438, 451, 458, 722, 723, 727, 731, 734, 735  
 김흥제(金興濟) 503, 504, 513, 610, 613, 615, 616

김희옥(金熙玉) 423  
 김희준(金熙俊) 381, 397

【나】

나가사키 유조(長崎祐三) 508  
 나경석(羅景錫) 380, 397  
 나상신(羅相信) 436  
 나인협(羅仁協) 413  
 나정용마(羅井龍馬) 409  
 나준영(羅俊英) 503, 518, 521  
 나카니시(中西靜馬) 510  
 나카무라(中村たき子) 343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郎) 336  
 나카사토(永里常樹) 510  
 나카지마(長島龜熙) 343, 675  
 남박중(南博中) 432  
 남백우(南百祐) 432, 440  
 남상익(南相翊) 414  
 남상효(南相孝) 503  
 남윤구(南潤九) 434, 505  
 남정학(南廷學) 416  
 남헌(南憲) 365, 414  
 내선일체(內鮮一體) 68, 192, 295, 298, 303, 306, 320, 322  
 노병준(盧秉準) 423  
 노병춘(魯炳春(椿)) 423, 507  
 노보루(前田昇) 47  
 노부하라(信原聖) 219, 220, 446  
 노성석(盧聖錫) 22, 400  
 노정일(盧鼎一) 507  
 노준영(盧俊泳, 豊川一清) 421  
 노진설(盧鎭高) 507, 516, 615, 625  
 노창성(盧昌成, 八幡昌成) 376, 377, 380, 402, 437, 443, 451, 723  
 노천명(盧天命) 478

녹기연맹(綠旗聯盟) 13, 23, 655, 673, 678  
 녹기연맹부인회(綠旗聯盟婦人會) 681  
 니노미야 요스케(二宮良助) 507  
 니시아마(西山力) 343  
 니시하라(西原敏雄) 510  
 니카이도 료케이(二階堂了惠) 507

【ㄷ】

다나카 마코토(田中眞) 504  
 다치바나 류엔(立花龍圓) 507  
 다카미야(高宮太平) 329  
 다카오 진조(高尾甚造) 342  
 다카하시(高橋垣) 219, 689  
 다케다(武田朝子) 343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260  
 다케무라 이사무(竹村勇) 508  
 대도구창(大島久昌) 412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 13, 20, 74, 563, 568,  
 569, 599, 603, 621  
 대동석규(大東碩奎) 401  
 대동희일(大東喜一) 418  
 대림준모(大林俊模) 407  
 대산경동(大山卿東) 434  
 대산광설(大山光高) 364, 401, 438  
 대산근섭(大山根燮) 407  
 대산돈정(大山敦正) 411  
 대산봉훈(大山鳳勳) 399  
 대산상은(大山相殷) 406  
 대산세창(大山世倉) 410  
 대산원삼(大山元三) 418  
 대산한봉(大山漢鳳) 417  
 대산현홍(大山顯洪) 410  
 대삼천일(大森千一) 428  
 대성준부(大城俊夫) 417  
 대원국영(大原國永) 419

대원기의(大原基義) 432  
 대원영길(大原永吉) 418  
 대일본국방부인회 74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4, 26, 739, 747, 749  
 대지효선(大智孝善) 433  
 대천광일(大川光一) 408  
 대판(大阪)매일신문 74  
 대판(大阪)조일신문 74  
 대평만수(大平晩秀) 423  
 대화동맹(大和同盟) 13, 21, 629  
 대화숙(大和塾) 20, 527, 530, 531, 532, 534, 536,  
 548, 555, 558, 560  
 덕산고강(德山高康) 438  
 덕산백순(德山白洵) 402, 639, 643  
 덕산승렬(德山昇烈) 422, 439  
 덕천선길(德川宣吉) 413  
 덕포의고(德浦義高) 433, 440  
 테쿠치(出口利家) 510  
 도리카와(烏川橋源) 343, 446  
 도미타(富田乙松) 510  
 도상봉(都相鳳) 402  
 도상학(都相鶴) 432  
 도오야마 간로쿠(頭山漢六) 745  
 독고선(獨孤璇) 399  
 동곡길성(東谷吉盛) 420  
 동민회 73, 356  
 동방산인(東邦山人) 726  
 동본종락(桐本鍾洛) 421  
 동아일보사 73  
 동우회사건 610, 616  
 동원인섭(東原寅燮) 648, 650  
 동천광수(東川光秀) 423  
 동천하룡(東川河龍) 410  
 등원기생(藤原基生) 419

【ㄹ】

마사키(眞崎長年) 219, 222, 328  
 마사후미(鈴木正文) 203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220, 689  
 마쓰자와(松澤龍雄) 219  
 마츠모토 다카요시(松本孝義) 506  
 마츠모토 마코토(松本誠) 331, 689  
 마츠키(松木久磨) 509  
 말영강희(末永岡熙) 439  
 매림동기(梅林東器) 423  
 매일신문사 75  
 매천수길(梅田秀吉) 412  
 맹관호(孟觀浩) 507  
 맹종호(孟鍾鎬) 505  
 명본지용(明本智隆) 417  
 명창순(明昌淳) 425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656, 661, 667, 675, 678, 690  
 모윤숙(毛允淑) 377, 381, 403, 439, 451, 458, 469, 478  
 목산헌구(牧山軒求) 438  
 목순구(睦順九) 509  
 목야명복(牧野明馥) 436  
 목원광정(牧原廣定) 437  
 목천옥상(睦川頊相) 408  
 목촌영성(木村榮成) 429  
 목하영근(木下永根) 365  
 무곡일홍(茂谷一弘) 408  
 무본성달(武本盛達) 434  
 무본영일(武本榮一) 415  
 무숙섭(武壽涉) 506  
 문석준(文錫俊) 397  
 문승탁(文承卓) 397  
 문영섭(文泳燮) 434  
 문일수(文日壽) 419

문재철(文在喆) 365, 424, 439  
 문천청천(文川清泉) 435  
 문철모(文哲謨) 433  
 문택호(文宅鎬) 425  
 미나미(南)충독 46, 48  
 미무라 마사조(御村正藏) 506, 538  
 미야모토 구니타다(宮本國忠) 502, 503, 504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219, 222, 328, 337  
 미야우치(宮內寬三) 510  
 미우라(三浦又一) 506, 508  
 미우라 슈이치(三浦秀一) 505  
 미조구치(溝口好太郎) 220  
 미즈타니(水谷康次郎) 509  
 미즈하시 코우이치로(三橋孝一郎) 219, 222, 328  
 미즈다(水田直昌) 219, 222, 328  
 미타라이 타츠오(御手洗辰雄) 220, 222, 328  
 미평청(米平淸) 415  
 민경식(閔庚植) 414  
 민규식(閔奎植) 18, 364, 369, 370, 377, 379, 395, 412, 436, 443, 444, 445, 446, 447, 450, 456, 689  
 민병덕(閔丙德, 鉢山丙德) 365, 412, 439  
 민병석(閔丙奭) 721, 723  
 민병중(閔丙曾) 503  
 민병회(閔丙會) 20, 508  
 민석현(閔奭鉉) 380, 395, 438, 451  
 민영위(閔泳胃) 416  
 민영은(閔泳殷) 413, 439  
 민중식(閔重植) 414

【ㅂ】

박갑수(朴甲壽) 425  
 박격흠(朴格欽) 399  
 박경묵(朴慶默) 428  
 박경석(朴經錫) 426  
 박광원(朴光遠) 503, 508

- 박기돈(朴基敦, 松岡世宗) 439  
 박기수(朴基洙) 414  
 박기원(朴基源) 507  
 박기효(朴基孝) 18, 369, 373, 376, 377, 380, 395,  
 436, 443, 444, 446, 447, 448, 450, 689  
 박노경(朴魯庚) 417  
 박노태(朴魯泰) 414  
 박대규(朴大圭) 507  
 박동훈(朴東薰) 430  
 박두영(朴斗榮, 木下斗榮) 381, 405, 689  
 박득현(朴得鉉) 503, 508, 513, 518, 520, 521  
 박마리아(朴瑪利亞) 18, 478  
 박명규(朴明奎) 423  
 박무길(朴武吉) 506, 507  
 박문규(朴文奎) 429  
 박병곤(朴炳坤) 507  
 박병석(朴炳錫) 415  
 박병찬(朴丙贊) 507  
 박병한(朴炳漢) 432  
 박봉진(朴鳳鎭, 木山鳳鎭) 361, 365, 408  
 박산용구(朴山容九) 405  
 박상근(朴商根) 503, 504  
 박상선(朴相善) 506  
 박상준(朴相駿, 朴澤相駿) 364, 377, 380, 400,  
 437, 443, 451, 652  
 박상훈(朴尙薰) 451  
 박상희(朴尙僖) 427  
 박석규(朴碩奎) 423  
 박선제(朴旋齊) 507  
 박선철(朴善哲) 427  
 박순택(朴順澤) 504  
 박승극(朴勝極) 503  
 박승기(朴承基) 397  
 박승빈(朴勝彬) 380, 400, 438, 451  
 박승억(朴承億) 427  
 박승엽(朴承燁) 428  
 박승우(朴承祐) 419  
 박영근(朴寧根) 381  
 박영근(朴永根) 396  
 박영준(朴永俊) 415  
 박영철(朴榮喆) 14, 47, 520, 522, 721, 722, 723  
 박영효(朴泳孝) 723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22, 23, 377, 380, 400,  
 438, 443, 451, 502, 503, 504, 508, 513, 516, 648,  
 650  
 박완식(朴完植) 439, 508  
 박용균(朴容均) 380  
 박용보(朴容甫) 421  
 박용수(朴龍水) 429  
 박용완(朴用玩) 428  
 박용운(朴龍雲) 380, 395, 438, 451  
 박은삼(朴銀三) 505  
 박은혜(朴恩惠) 18, 403  
 박인덕(朴仁德, 永河仁德) 18, 22, 369, 377, 380,  
 399, 438, 442, 451, 478, 639  
 박인득(朴仁得) 373, 375, 376  
 박인서(朴麟緒) 414  
 박인선(朴仁善) 567  
 박인섭(朴仁燮) 503  
 박자갑(朴自甲) 503  
 박장백(朴長伯) 505  
 박재욱(朴在旭) 436  
 박정연(朴楨淵) 431  
 박종선(朴鍾璿) 402  
 박주량(朴周亮) 434  
 박준규(朴準圭) 424  
 박준영(朴駿榮, 喜多毅) 404, 439, 639  
 박중양(朴重陽, 朴忠重陽) 18, 417, 436, 450  
 박지을(朴之乙) 430  
 박진평(朴晉平) 421



박창서(朴彰緒) 377, 380, 396, 438, 442, 451  
 박창훈(朴昌薰) 380, 402, 438  
 박춘금(朴春琴) 22, 380, 407  
 박충식(朴忠植) 407  
 박치목(朴致睦) 434  
 박필병(朴弼秉) 408  
 박한영(朴漢榮) 432  
 박호열(朴鎬烈) 413  
 박호영(朴鎬榮) 723  
 박흥식(朴興植) 18, 22, 24, 364, 369, 370, 373,  
 377, 379, 395, 436, 445, 446, 447, 448, 450, 456,  
 478, 479, 721, 723  
 박희도(朴熙道) 203, 380, 400, 439, 639, 689, 723  
 박희옥(朴熺沃) 423  
 방규환(方奎煥) 380, 395  
 방동칠(方東七) 503, 505  
 방락선(方洛先) 434  
 방응모(方應謨) 18, 373, 377, 379, 399, 437, 442,  
 450, 689, 721, 722  
 방의석(方義錫) 18, 365, 431, 437, 450  
 방태영(方台榮) 381, 395, 723  
 방한상(方漢相) 505, 522  
 배상명(裵祥明) 18, 399, 439, 451  
 배상효(裵相孝) 411  
 배영동지회 13, 685, 697, 701, 704  
 배정기(裵貞基) 397  
 배촌선구(裵村善奎) 419  
 배헌(裵憲) 424  
 백관수(白寬洙) 381, 689, 721, 722  
 백기조(白基肇) 429  
 백기호(白基昊) 402, 438, 451  
 백낙준(白樂濬) 380, 403  
 백남극(白南極) 432  
 백남운(白南雲) 398  
 백남일(白南日) 420, 509

백남훈(白南薰) 399  
 백명규(白命奎) 508  
 백세명(白世明) 508  
 백양섭(白陽燮) 430  
 백인제(白麟濟) 380, 402  
 백천기호(白川基昊) 438  
 백천남혁(白川南赫) 422  
 백천풍조(白川豊造) 431  
 변효식(邊孝植) 507  
 보덕회 조선사무소 75  
 복산용탁(福山龍鐸) 437  
 복전겸치(福田謙治) 405  
 본성수통(本城秀通) 405  
 봉고제(奉告祭) 48  
 부산선홍(富山善弘) 410  
 부전하작(富田夏作) 410  
 부치카미(淵上種子) 343

#### 【스】

사가라 하루오(相良春雄) 505  
 사법협회 75  
 사사키 요시히사(佐々木義久) 505  
 사이가(雜賀としえ) 343  
 사이조(西條利八) 509  
 사이토 부사쿠(齋藤文作) 504  
 사카다 스구루(坂田勝) 507  
 사케미(酒見緻次) 537  
 사토 치요조 675  
 산본석근(山本錫根) 421  
 산본찬(山本瓚) 409  
 산본창호(山本昌鎬) 428  
 삼경장원(三敬長元) 413  
 삼도승일(三島承一) 411  
 삼목원준(三木元雋) 423  
 삼산학시(三山鶴市) 432

삼산현린(三山鉉麟) 426  
 삼정기의(三井基義) 436  
 삼정주명(三井疇明) 406  
 삼정청정(三井清正) 412  
 삼천태악(三川泰嶽) 639  
 삼택승수(三宅勝秀) 423  
 상원필현(祥原彌顯) 434  
 서경석(徐慶錫) 504  
 서광설(徐光高) 438, 451  
 서덕순(徐惠淳) 415  
 서병국(徐丙國) 417  
 서병원(徐丙元) 417  
 서병조(徐丙朝, 大峯丙朝) 365, 417, 439, 505  
 서병하(徐丙河) 432  
 서상식(徐相湜) 420  
 서상일(徐相日) 417, 439  
 서상호(徐尙虎) 504  
 서원굉(西原宏) 406  
 서원범재(西元範在) 433  
 서원성일(西原誠一) 426  
 서원영(西原英) 432  
 서원장평(西原藏平) 416  
 서원정은(西原正殷) 418  
 서은숙(徐恩淑) 18, 26, 478, 723, 731, 734, 735  
 서정희(徐廷禧) 380, 403  
 서준석(徐峻錫) 428  
 서중석(徐重錫) 503, 504  
 서진(徐震) 417  
 서천상훈(徐川相勛) 404  
 서춘(徐椿) 380, 399, 437, 451, 479, 689, 723  
 석천창일(石川彰一) 415  
 선우전(鮮于全) 400  
 선태섭(宣泰燮) 425  
 설운용(薛雲龍) 433  
 설의식(薛義植) 22, 380, 396  
 성공회 75  
 성낙영(成樂永) 409  
 성원경(成元慶) 403, 439, 689  
 성의경(成義慶) 378, 381, 443  
 성정수(成禎洙) 425  
 세이지로(丹羽清次郎) 47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 88  
 소완규(蘇完奎) 377, 380, 404, 438, 443, 451  
 손균옥(孫均玉) 417  
 손금선(宋今璇) 731  
 손기정(孫基禎) 380  
 손수경(孫壽卿) 427  
 손영목(孫永穆) 22, 24, 25, 330, 365, 395, 437, 451, 629  
 손재하(孫在廈) 413  
 손정규(孫貞圭) 18, 26, 403, 723, 731, 734  
 손진언(孫鎭彦, 松野行成) 411, 510  
 손창윤(孫昌潤) 427  
 손학현(孫學玄) 508  
 손홍원(孫弘遠, 野村弘遠) 22, 23, 203, 204, 377, 380, 403, 438, 443, 451, 648, 649, 650  
 손홍준(孫洪駿) 408  
 송강수길(松岡秀吉) 423  
 송강정록(松岡廷祿) 425  
 송강행웅(松岡幸雄) 431  
 송계원(宋啓源) 430  
 송금선(宋今璇, 福澤玲子) 18, 22, 26, 377, 380, 399, 443, 639, 648, 723, 734, 735  
 송기호(宋畿鎬) 506, 522  
 송방수부(松方秀夫) 416  
 송병채(宋炳采) 507  
 송본국남(松本國南) 416  
 송본국평(松本國平) 418  
 송본두용(松本斗用) 406  
 송본명행(松本明幸) 407

송본청(松本淸) 408  
 송본해동(松本海東) 423  
 송봉우(宋琫禹) 397  
 송산봉성(松山鳳聖) 412  
 송산수웅(松山秀雄) 413  
 송산원석(松山元錫) 412  
 송산종호(松山宗鎬) 431  
 송산창학(松山昌學) 437  
 송산청(松山淸) 424  
 송산홍선(松山鴻善) 423  
 송석하(宋錫夏) 381  
 송성진(宋星鎭, 平山正夫) 381, 408  
 송원광풍(松原光豊) 433  
 송원승빈(松原勝彬) 438  
 송원승찬(松原承燦) 411  
 송원태용(松原泰龍) 434  
 송을용(宋乙用) 417  
 송이관(宋利官) 508  
 송전미정(松田米正) 423  
 송진우(宋鎭禹) 379, 403, 689, 640  
 송창렴(宋昌濂) 507  
 송천고명(松川高明) 415  
 송천구영(松川求瑛) 402  
 송하동준(松河東濬) 396  
 송화식(宋和植) 424, 439, 506  
 수봉채우(秀峰採雨) 417  
 수산연맹조직대강 240  
 수양단 조선연합회 75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 260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男) 338  
 스즈키(鈴木實衛) 509, 637, 640  
 시게마츠(重松嗣修) 330  
 시게키(林茂樹) 47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대회 520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  
 國聯盟) 19, 74, 483, 485, 488, 498, 512, 522  
 시국대응전선전향자연맹 518  
 시라이(白井津賀次) 510  
 시라이시 마사조(白石正三) 505  
 시오타니(監谷敬一) 507  
 시오히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48, 327, 328,  
 338  
 신갑범(愼甲範) 503, 506  
 신강창희(神岡昌熙) 406  
 신말찬(申末贊) 506, 522  
 신목황(新木晃) 418  
 신본원신(新本元信) 406  
 신봉조(辛鳳祚) 22, 377, 399  
 신산영호(神山永皓) 405  
 신석린(申錫麟, 平林麟四朗) 404, 721, 722  
 신석효(辛錫孝) 506, 507  
 신수복(愼壽福) 503  
 신수암(申守岩) 507  
 신수원(愼秀遠) 424  
 신숙재(辛淑宰) 398  
 신안선필(新安善弼) 416  
 신양극(辛良極) 397  
 신언청(申彦淸) 429  
 신영순(申永淳) 410  
 신오휴(申午休) 425  
 신옥(申鈺) 417, 439  
 신용구(申鏞九) 421  
 신용옥(愼鏞瑱) 377, 380, 397, 438, 442, 451, 689  
 신용희(愼鏞禧) 421  
 신원길호(新原吉浩) 420  
 신원희(申元熙) 411  
 신의주대화숙 547  
 신일용(辛日鎔) 407  
 신정민부(新井敏夫) 435  
 신정범수(新井範洙) 428

- 신정청우(新井淸友) 410  
 신제약(申齊岳) 435  
 신중승(辛鍾昇) 436  
 신중욱(辛鍾郁) 434  
 신지우(申址雨) 425  
 신창균(申昌均) 431  
 신카이(新開明雄) 343  
 신태약(辛泰嶽) 22, 24, 369, 373, 375, 376, 377, 380, 403, 437, 442, 450, 456, 689, 712, 714, 715  
 신희호(申弼浩) 402  
 신희구(申鉉求) 439  
 신희우(申興雨, 高靈興雨) 18, 369, 376, 371, 373, 375, 377, 379, 398, 436, 440, 443, 444, 446, 447, 448, 450, 456, 639  
 심명섭(沈明燮) 401  
 심상관(沈相寬) 419  
 심상국(沈相國) 415  
 심상직(沈相直) 401  
 심상치(沈相致) 419  
 심우섭(沈友燮) 380, 399, 723  
 심재욱(沈載昱) 415  
 심호섭(沈浩燮) 503  
 쓰다 스요시(津田剛) 329, 330, 637, 639, 675, 678, 689, 735
- 【ㅇ】**
- 아다치 다다노부(安達唯信) 507  
 아마카스(甘粕重太郎) 330, 331  
 아이바 요사쿠(相馬與作) 538  
 안국상덕(安國商惠) 407  
 안기석(安基錫) 503, 504, 513, 518  
 안동청(安東淸) 424  
 안본효식(安本孝式) 420  
 안석주(安碩柱) 402  
 안성기(安城基) 365, 437  
 안영병규(安永炳圭) 418  
 안인식(安寅植) 22, 380, 400, 438, 451, 639  
 안전개조(安田開兆) 420  
 안전광작(安田光作) 425  
 안전정조(安田政助) 413  
 안전정치(安田正治) 407  
 안전풍태랑(安田豊太郎) 425  
 안정원(安錠遠) 396  
 안정용일(安田隆一) 433  
 안종길(安鍾吉) 505  
 안종철(安鍾哲, 廣安鍾哲) 18, 405, 437, 451, 723  
 안중화(安鍾和, 安田辰雄) 22, 380, 402, 439, 451, 648  
 안주홍(安周洪) 418  
 안준(安浚) 21, 564, 565, 566, 570, 595, 599, 600, 613, 617, 623  
 안천영찬(安川泳贊) 440  
 안천의광(安川義光) 433  
 안철수(安喆洙) 503  
 안택수(安宅洙) 414  
 안한익(安漢益) 414  
 안호상(安浩相) 398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13, 25, 75, 721, 722, 724, 726  
 애국반 127, 128, 251, 272  
 애국일 167, 168, 173  
 야나기사와 이세오(柳澤伊勢雄) 507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47, 48, 220, 222, 328, 688  
 야마다(山田新十郎) 219  
 야마모토 쇼이치(山本正一) 507  
 야마시타 히데키(山下秀樹) 502, 503, 537  
 야마자와 와사부로(山澤和三郎) 340  
 야마자키 노부키치(山崎延吉) 220  
 야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675, 678

양보회(陽報會) 504  
 양상경(梁相卿) 422, 439, 450  
 양세관(楊世寬) 505  
 양원모(梁源模) 381, 404  
 양원백구(良元伯圭) 412  
 양원섭(楊元燮) 431  
 양윤식(楊潤植) 405  
 양재하(梁在夏) 380, 400, 438, 451  
 양재홍(梁在鴻) 435  
 양주삼(梁柱三, 梁原柱三) 364, 377, 379, 401, 438, 443, 451, 618  
 양천재창(梁川在昶) 406  
 양희인(梁會仁) 425  
 양희철(梁熙哲) 412  
 어담(魚潭) 405, 689  
 엄주명(嚴柱明) 380, 399  
 엄호숙(嚴鎬淑) 507  
 여경엽(余璟燁) 509  
 여도현(呂道鉉) 506  
 여동춘(呂同春) 435  
 여운형(呂運亨) 380, 403, 640  
 여운홍(呂運弘) 403  
 연본창돈(延本昌敦) 424  
 연성목(延城穆) 418  
 염경훈(廉璟薰) 381, 397  
 염용섭(廉龍燮) 503, 504  
 염인걸(廉仁傑) 503  
 오계윤(吳桂允) 504  
 오궁재근(吳宮在根) 423  
 오궁선(吳兢善) 364, 377, 380, 398, 438, 443, 451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48, 219, 336  
 오덕삼(吳德三) 427  
 오바 산구로(大庭三九郎) 503  
 오상혁(吳尙赫) 505, 510  
 오세창(吳世昌) 401  
 오세호(吳世皐) 411  
 오야(大家虎之助) 329, 330  
 오억(吳億) 400  
 오오다케(大竹十郎) 328, 509  
 오용탁(吳龍鐸) 22, 395, 437, 443, 451  
 오용택(吳龍鐸) 377, 381  
 오원동(吳元東) 411  
 오윤진(吳允珍) 430, 508  
 오장환(吳章煥) 22, 648  
 오재일(吳載一) 421  
 오좌은(吳佐殷) 429  
 오카다 마코토(岡田實) 600  
 오카자키(岡崎たかの) 343  
 오쾌일(吳快一) 434, 505  
 오테아라이 다츠오(御手洗辰雄) 338, 343  
 오필은(吳弼殷) 431  
 오현기(吳鉉琦) 429  
 옥강면(玉岡勉) 437  
 옥선진(玉璿珍) 380, 398  
 옥천진순(玉川鎭淳) 365, 405  
 와타나베(渡邊清) 510, 537, 640, 689  
 요네하마 반지(米濱滿治) 508  
 요코타 고이치(横田伍一) 502, 503, 504  
 우메다(梅田福松) 510  
 우봉중구(牛峯重久) 409  
 우산희상(友山義常) 419  
 우신출(禹新出) 419  
 우에 하야세(上瀧基) 219, 222, 328  
 우인협(禹仁洽) 432  
 우정봉(禹丁鳳) 433  
 우찬규(禹贊奎) 507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260  
 우호익(禹浩翊) 427  
 원경찬(元京贊) 431  
 원덕상(元惠常) 18, 364, 373, 377, 380, 436, 443,

- 450
- 원병희(元炳喜, 元村炳喜) 422, 510
- 원세훈(元世勳) 380, 407
- 원익상(元翊常) 378, 380, 401, 443
- 원정희(元貞喜) 414
- 원진상(元眞常) 397
- 원천일섭(原川日燮) 422
- 원촌상일(元村常一) 409
- 원효섭(元孝燮) 380, 395, 412
- 원훈상(元勛常) 416
- 월성종만(月城鍾萬) 437
- 위기철(韋基喆) 428
- 유겸희(劉謙喜) 504
- 유광렬(柳光烈) 22, 380, 400, 438, 451, 714, 715
- 유동언(柳東彦) 423
- 유마정우(有馬正祐) 396
- 유만겸(俞萬兼) 365, 405, 438, 451
- 유무라 다츠지로(湯村辰二郎) 219, 222, 328
- 유상우(劉相禹) 509
- 유성연(柳性淵) 413
- 유소진문(有蘇鎭文) 424
- 유시균(柳時均) 419
- 유시영(柳時泳) 418
- 유억겸(俞億兼) 18, 20, 364, 373, 377, 379, 398, 437, 443, 450, 478, 502, 503, 508, 640
- 유영섭(劉永燮) 380, 397
- 유원남(俞元男) 430
- 유원완식(俞原琬植) 409
- 유인목(俞仁穆) 408
- 유인철(柳寅哲) 426
- 유자와(湯澤茂彌太) 220
- 유정직(柳井直) 422
- 유증수(柳曾秀) 413
- 유진오(俞鎭午) 22, 381, 398, 639
- 유진찬(俞鎭贊) 400
- 유진희(俞鎭熙) 380, 403
- 유창근(柳彰根) 422
- 유천우천(柳川又春) 396
- 유천충광(柳川忠廣) 435
- 유카미 치사부로(由上治三郎) 49, 327, 689
- 유태설(劉泰高, 邦本泰高) 432, 504
- 유태희룡(柳澤希龍) 416
- 유홍중(劉洪鍾) 402, 723
- 유훈영(劉薰榮) 411
- 육병옥(陸炳玉) 414
- 윤건용(尹建鏞) 416
- 윤건중(尹建重) 424
- 윤경혁(尹景赫) 412
- 윤길중(尹吉重) 415
- 윤덕룡(尹德龍) 510
- 윤덕영(尹德榮) 689, 721, 723, 726
- 윤덕용(尹德龍) 505
- 윤동명(尹東鳴) 503
- 윤동오(尹東鳴) 508
- 윤명용(尹明龍) 402
- 윤병구(尹秉球) 434
- 윤병호(尹丙浩) 421
- 윤상태(尹相台) 417
- 윤석필(尹錫弼(必)) 380, 434, 440
- 윤시명(尹始炳) 259
- 윤우식(尹宇植) 380, 403
- 윤익선(尹益善) 372, 377, 380, 443
- 윤일선(尹日善) 398
- 윤장엽(尹長燦) 428
- 윤장혁(尹章赫(赫)) 503, 505
- 윤정(尹政) 415
- 윤정현(尹定鉉) 426
- 윤주응(尹柱應) 506
- 윤준용(尹駿鏞) 415
- 윤치소(尹致昭) 401

윤치영(尹致映, 尹東致映) 373, 377, 380, 401, 438, 443, 451, 503  
 윤치왕(尹致旺) 398  
 윤치호(尹致昊, 伊東致昊) 14, 18, 20, 22, 47, 89, 359, 364, 368, 369, 373, 375, 377, 379, 382, 394, 436, 442, 445, 446, 447, 455, 456, 457, 630, 639, 652, 688, 723  
 윤태빈(尹泰彬, 伊藤泰彬) 336, 339, 721, 722, 723  
 윤하경(尹河敬) 430  
 윤호병(尹嶽炳) 396  
 울산영철(栗山榮哲) 426  
 이각종(李覺鍾, 靑山覺鍾) 21, 203, 372, 377, 380, 386, 403, 439, 443, 564, 566, 570, 613, 617, 622, 623  
 이갑수(李甲洙) 381, 398  
 이갑수(李甲秀) 398  
 이강명(李康明) 503, 504, 518, 521  
 이강현(李康賢) 396  
 이경봉(李庚鳳) 406  
 이경상(李景祥) 421  
 이경석(李璟錫) 506  
 이경식(李敬植) 405, 567, 723  
 이계천(李繼天) 412  
 이관구(李寬求) 381, 404, 503  
 이광수(李光洙, 香山光郎) 22, 372, 377, 379, 385, 400, 442, 622, 623, 639, 647, 648, 652  
 이광익(李光翼) 413  
 이교식(李敎植) 426  
 이귀흥(李貴興) 422  
 이규송(李奎宋) 435  
 이규열(李奎烈) 508  
 이규원(李圭元) 365, 404, 437, 450  
 이규재(李奎載) 378, 381, 396, 443  
 이규하(李圭夏) 414  
 이극로(李克魯) 372, 373, 377, 380, 400, 439, 443  
 이근택(李根澤) 381, 397  
 이궁중(李肯鍾) 381, 387, 400  
 이기찬(李基燦) 426, 437, 450, 451, 507  
 이기형(李基珩) 396  
 이기홍 507  
 이나다(稻田壽生) 510  
 이능화(李能和) 400, 433  
 이다 가즈미(衣田克己) 507  
 이달용(李達鎔) 404  
 이달흥(李達興) 429  
 이대영(李大榮) 401, 725  
 이대위(李大偉) 380  
 이덕호(李德虎) 419  
 이돈의(李燾儀) 410  
 이돈화(李敦化) 377, 381, 401, 443  
 이동선(李東善) 396  
 이동용섭(伊東用燮) 416  
 이동우(李東雨) 522  
 이동원상(伊東元上) 402  
 이동희(李東熙) 412  
 이두녕(李斗寧) 415  
 이두용(李斗用, 松本斗用) 409, 423, 439, 507  
 이등경섭(伊藤敬燮) 408  
 이림상호(伊林相浩) 426  
 이마세키 신(今關信) 505  
 이면재(李冕載) 422, 439  
 이명구(李明求) 365, 413, 437, 450, 451, 508  
 이명세(李明世) 401  
 이명호(李明鎬) 430  
 이묘묵(李卯默) 20, 22, 380, 398, 513, 613, 615, 625  
 이문헌(李文憲) 425  
 이민희(李旻熙) 21 570, 567, 617  
 이방우 508  
 이병규(李炳奎) 398, 438

- 이병길(李丙吉) 18, 373, 364, 381, 404, 437, 450, 689
- 이병일(李炳侗) 428
- 이병호(李炳浩) 427
- 이보석(李輔錫) 381, 395
- 이봉수(李鳳洙) 503, 516, 521
- 이봉종(李鳳鍾) 396
- 이산고언(二山高彦) 428
- 이삼문(李三文) 505, 522
- 이상각(李相珏) 415
- 이상길(李相吉) 505, 516
- 이상무(李相武) 417
- 이상빈(李尙斌) 427
- 이상옥(李相玉) 397
- 이상철(李相喆) 381, 403
- 이상협(李相協) 381, 400, 438 451, 721, 722
- 이서구(李瑞求) 380, 402
- 이석구(李錫九) 380, 396
- 이석래(李錫來) 413
- 이석세(李錫洗) 508
- 이석훈(李石薰) 400
- 이성구(李聖九) 415
- 이성근(李聖根, 金川聖) 18, 22, 336, 339, 364, 369, 373, 377, 381, 399, 436, 443, 444, 446, 447, 448, 450, 451, 478
- 이성주(李成周) 433
- 이성환(李晟煥, 安興晟煥) 18, 373, 376, 378, 380, 407, 436, 443, 444, 446, 447, 448, 450, 639, 643, 689, 712, 714, 715, 716, 717
- 이세정(李世楨) 399
- 이숙중(李淑鍾, 宮村淑鍾) 18, 26, 377, 380, 399, 439, 443, 451, 723, 731, 734, 735
- 이순탁(李淳鐸) 398
- 이승노(李承魯) 418
- 이승복(李昇馥) 380, 403
- 이승용(李昇龍) 424
- 이승우(李升雨, 梧村升雨) 16, 22, 197, 380, 438, 502, 513, 521, 689, 723
- 이승원(李承元) 21, 564, 567, 570, 613, 617
- 이시다(石田千太郎) 329, 712
- 이안제(李安濟) 431
- 이여성(李如星) 381, 404
- 이연용(李淵鎔) 396
- 이영민(李榮珉) 425
- 이영일(李永日) 424
- 이영준(李榮俊) 380, 398
- 이영찬(李永贊) 365, 429, 440, 450, 509
- 이영호(李永浩) 504
- 이오남(李五男) 503, 504, 513
- 이와무라(今村勉) 510
- 이와쿠마(岩熊正義) 503, 504
- 이완석(李完錫) 418
- 이용구(李容九) 259
- 이용길(李龍吉) 430
- 이용만(李容萬) 443
- 이용설(李容嵩) 20, 373, 375, 377, 380, 402, 438, 451
- 이용식 447
- 이용신(李容愼) 18, 373, 376, 377, 381, 395, 436, 442, 447, 450
- 이용협(李龍洽) 432
- 이용희(李容熙) 505
- 이우식(李佑植) 420
- 이우식(李愚軾) 422
- 이운용(李沅鎔) 398
- 이원규(李源圭) 509, 739
- 이원범수(梨原範秀) 416
- 이원보(李源甫, 李家原甫) 22, 336, 339, 537
- 이원찬(李源讚) 398
- 이원한복(李原漢復) 439



이윤용(李允用) 721, 722, 723  
 이윤재(李允宰) 22, 648  
 이윤주(李潤柱) 431  
 이은우(李恩雨) 365, 421  
 이응갑(李應甲) 427  
 이응준(李應俊) 723  
 이인경(李寅庚) 566  
 이인숙(李仁淑, 中山家伯) 380, 404, 407, 433  
 이장범(李長範) 414  
 이장우(李章雨) 417  
 이장희(李章喜, 江川忠卿) 420  
 이재택(李載澤) 433  
 이재하(李載夏) 435, 505, 510  
 이재혁(李載赫) 426  
 이정근(李正根) 423  
 이정근(李貞根) 430  
 이정백(李楨伯) 402  
 이정섭(李晶燮) 377, 380, 402, 451  
 이정욱(李正郁) 401  
 이정일(李丁一) 518  
 이정재(李定宰) 377, 381, 396, 443  
 이종덕(李鍾惠) 416, 439  
 이종린(李鍾麟, 瑞原鍾麟) 18, 203, 204, 365, 368, 369, 373, 375, 377, 380, 401, 437, 442, 437, 450, 455, 456, 640  
 이종만(李鍾萬) 20, 377, 381, 395, 437, 450  
 이종섭(李鍾燮) 428  
 이종성(李宗聖) 402  
 이종오(李種澳) 503, 504  
 이종욱(李鍾郁, 廣田鍾郁) 18, 373, 377, 380, 400, 437, 450, 639  
 이종은(李鍾殷) 407, 439, 451  
 이종회(李鍾會, 豊村裕) 377, 380, 396, 438, 443, 451  
 이준렬(李駿烈) 380, 395, 438, 451  
 이중갑(李重甲) 413, 439  
 이중화(李重華) 415  
 이중환(李重桓) 404  
 이즈미가와(泉川秀雄) 510  
 이진순(李眞淳) 505  
 이진호(李軫鎬, 李家軫鎬) 18, 364, 368, 369, 373, 375, 377, 380, 404, 436, 442, 450, 721, 723  
 이찬엽(李燦燁) 430  
 이창섭(李昌燮) 437, 443  
 이창용(李創用) 23, 406, 648  
 이창인(李昌仁) 434, 440  
 이창환(李昌煥) 22, 407, 566  
 이천강평(利川康平) 432  
 이천문영(利川文英) 435  
 이춘국(李春國) 433  
 이춘섭(李春燮) 427  
 이춘웅(李春雄) 413  
 이춘하(李春河) 432  
 이춘호(李春昊) 381, 403  
 이충복(李忠馥) 380, 397  
 이칠성(李七星) 506, 522  
 이태술(李泰述) 506  
 이태완(李泰完) 432  
 이태준(李泰俊) 400  
 이태현(李泰炫) 413  
 이토 켄로우(伊藤憲郎) 330, 331  
 이평권(李平權) 503, 507, 516  
 이평산(李平山) 503, 504  
 이필상(李弼商) 397  
 이필준(李弼俊) 431  
 이필하(李弼夏) 504  
 이하라(井原義人) 509  
 이하원(李夏源) 380, 396  
 이학모(李學模) 504  
 이학문(李學文) 419

- 이한복(李漢福) 380, 402  
이한복(李漢復) 409, 439  
이항령(李恒寧) 203, 204  
이항열(李恒烈) 434  
이항중(李恒鍾) 396  
이해승(李海昇) 404  
이헌구(李軒求) 380, 399, 438, 451  
이현각(李鉉覺) 419  
이현석(李賢奭) 507  
이현풍(李珖豐) 431  
이협(李協) 438  
이호신(李鎬臣) 414  
이홍근(李弘根) 503, 507, 516  
이홍기(李弘基) 432  
이홍기(李洪起) 506, 522  
이홍묵(李鴻默) 404  
이활(李活) 419  
이회근 505  
이회승(李會昇) 505  
이효중(李孝鍾) 503, 506, 516  
이훈구(李勳求) 380, 403, 689  
이흥재(李興載) 435, 510  
이희섭(李羲燮) 431  
이희적(李熙迪, 平居熙迪) 360, 365, 430, 440  
이희정(李熙禎) 509  
이희준(李熙俊) 413  
인자이(安西謙次) 510  
인정식(印貞植) 21, 503, 623  
일진회 260  
임금순(任兢淳) 380  
임명재(任明宰) 365, 373, 380, 402, 438, 451  
임문호(林文虎) 408  
임문환(任文桓) 203, 204  
임병기(林炳基) 381, 397  
임복순(任福淳) 432  
임상조(林尙助) 417  
임숙재(任淑宰) 18, 458, 463, 478  
임승화(林承化) 424  
임영신(任永信) 18, 381, 399  
임영춘(林永春) 506, 507, 520  
임재원(林在苑) 433  
임전국책협력회 440, 441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議會, 協力會) 18, 368, 369, 370, 371, 375, 377, 378, 381, 440  
임전보국단 457, 474, 478  
임전보국단 부인대 474, 476  
임정엽(林正燁) 381, 404, 689  
임종상(林宗相) 381, 397  
임종업(林鍾業) 505  
임종환(林宗桓) 422  
임창수(林昌洙) 360, 365, 414, 509  
임천홍식(林川洪植) 416  
임택용(林澤龍) 422  
임헌장(林憲章) 408  
임효정(林孝貞) 458, 460, 478  
임흥순(任興淳) 376, 377, 380, 395, 437, 451, 723  
임희수(林熺秀) 418  
임간공남(笠間公男) 429
- 【ㄷ】**  
장간헌식(張間憲植, 張憲植) 404  
장경찬(張庚瓚) 432  
장기식(張驥植) 380, 395, 438, 451  
장대익(張大翼) 413  
장덕수(張德秀) 20, 379, 382, 398, 437, 450, 478, 502, 503, 508, 640, 712  
장면(張勉) 380, 399, 437, 451  
장병선(張炳善) 424, 439  
장본기옥(張本基郁) 436  
장봉(張峰) 505

장석원(張錫元, 大池龍藏) 405, 438, 451  
 장성복(張星福) 508  
 장성수계(長城守界) 410  
 장영수(蔣英洙) 506  
 장영준영(張永俊英) 410  
 장용관(張龍官) 430  
 장우식(張友植, 玉山友彦) 373, 377, 380, 395,  
 438, 451, 503  
 장원정기(張元正己) 409  
 장원준(張元俊) 396  
 장월섭(張月燮) 430  
 장응상(張應相) 421  
 장재식(張在軾) 419  
 장전시선(長田是善) 439  
 장준(張俊) 413  
 장직상(張稷相, 張元稷相) 22, 365, 437, 450, 451,  
 723  
 장창순(張昌順) 508  
 장창진(張昌鎭) 504  
 장채극(張彩極) 434, 510  
 장헌근(張憲根, 張間憲四郎) 366, 433, 437, 451,  
 505  
 장현식(張鉉植) 381, 395, 723  
 장현진(張鉉進) 506, 507  
 장회근(張晦根) 381, 404  
 장희동(張羲東) 504  
 재향군인회 용산연합회 지부 75  
 저축강조주간 129, 130  
 전덕용(田德龍) 427  
 전덕용(全德瀼) 504  
 전명석(全明石) 505  
 전본재성(全本在成) 415  
 전부일(全富一) 377, 381, 396  
 전석순(全錫舜) 506, 516  
 전시식량충실운동 139  
 전영경(田永璟) 506, 522  
 전영택(田榮澤) 610, 615, 623, 625  
 전용순(全用淳) 381, 397  
 전우일(全宇一) 505  
 전정관(全政琯) 504  
 전종화(田種禾) 430  
 전진한(錢鎭漢) 410  
 전천치호(全川治鎬) 435  
 전춘응구(全村應九) 435  
 전태균(全泰均) 505  
 전필순(全弼淳) 380  
 전형필(金鑿弼) 395  
 정경섭(鄭庚燮) 433  
 정광조(鄭廣朝) 378, 380, 401, 443  
 정교원(鄭僑源, 烏川僑源) 16, 18, 49, 198, 219,  
 222, 327, 328, 336, 337, 343, 364, 373, 377, 380,  
 405, 436, 443, 444, 451, 689  
 정구충(鄭求忠) 398, 438, 451, 689  
 정구평(鄭求平) 414  
 정규태(丁奎泰) 426  
 정기환(鄭箕桓) 503, 504  
 정노식(鄭魯湜) 381, 403  
 정대용(鄭大庸) 414  
 정덕원(正德院) 332  
 정도준(鄭道俊) 508  
 정동리부락연맹 250  
 정동운동(精動運動) 50  
 정동윤(鄭東允) 426  
 정등은섭(丁藤殷燮) 409, 437  
 정상진(鄭相珍) 420  
 정서죽(鄭瑞竹) 508, 516  
 정석태(鄭錫泰) 380, 402  
 정석희(鄭奭熙) 413  
 정세환(鄭世煥) 424  
 정수홍(鄭壽弘) 413

- 정순명(鄭順明(命)) 503, 507  
 정순현(鄭淳賢) 421  
 정순화(鄭順和) 507  
 정염구(鄭濂九) 504  
 정용인(鄭湧寅) 425  
 정운석(鄭雲奭) 419  
 정운용(鄭雲用) 396  
 정운천(鄭雲川) 439  
 정원섭(鄭元燮) 429  
 정윤석(鄭允錫) 508  
 정윤옥(鄭潤玉) 431  
 정은섭(丁殷燮) 437, 451, 509  
 정인과(鄭仁果, 德川仁果) 378, 379, 401, 438, 443, 451  
 정인관(鄭寅寬) 433  
 정인보(鄭寅普) 380, 400  
 정인섭(鄭寅燮) 22, 23, 398  
 정인익(鄭寅翼) 399, 637, 638, 643  
 정인채(鄭仁彩) 414  
 정일덕(鄭一惠) 416  
 정일인(鄭日仁) 505, 510  
 정중섭(鄭重燮) 433  
 정지강(鄭志强) 427  
 정진복(鄭鎭福) 414, 503  
 정찬주(鄭贊周) 433  
 정춘수(鄭春洙, 禾谷春洙) 379, 401, 438, 451  
 정태복(鄭泰福) 419  
 정태원(鄭泰元) 427  
 정평국(鄭平國) 504  
 정학진(丁學鎭) 396  
 정해붕(鄭海鵬) 417  
 정해준(鄭海駿) 423  
 정현모(鄭顯模) 380, 395, 438, 451  
 정홍교(丁洪教) 21, 566  
 정홍모(鄭洪模) 507  
 조강희(趙岡熙) 415, 439  
 조계현(曹繼鉉) 507  
 조규삼(曹圭三) 413  
 조근영(趙根泳) 419  
 조기간(趙基槩) 373, 375, 376, 378, 380, 401, 437, 443, 451, 503, 513, 518, 521, 689  
 조대하(趙大河) 377, 380, 397, 438, 451  
 조동식(趙東植, 林川東植) 22, 380, 399, 438, 451  
 조동환(趙東煥) 414  
 조병갑(趙炳甲) 397  
 조병렬(趙炳烈) 381, 404  
 조병상(曹秉相, 夏山茂, 夏山重煥) 14, 18, 22, 24, 47, 359, 364, 373, 377, 381, 395, 420, 436, 443, 450, 456, 689, 721, 722, 723  
 조병옥(趙炳玉) 372, 380, 384, 403, 622, 623  
 조병학(曹秉學) 380, 397  
 조병호(趙炳浩) 506  
 조봉암(曹奉岩) 503  
 조사하(趙士河) 443  
 조상옥(趙尙鈺) 429  
 조선감리교총리원 74  
 조선경찰협회 73  
 조선광업회 73  
 조선교육회 74  
 조선교회단체연합회 74  
 조선국방교회연합회 73  
 조선군사후원연맹 73  
 조선금융조합연합회 74  
 조선기독교연합회 73  
 조선농회 73  
 조선무역협회 73  
 조선무진협회 73  
 조선문예회 73  
 조선방송협회 73  
 조선변호사협회 73

- 조선부인문제연구회 14, 25, 73, 732  
 조선불교중앙교무원 73  
 조선사상법보호관찰령 483  
 조선사회사업협회 74  
 조선산림회 74  
 조선상공신문사 74  
 조선상공회의소 74  
 조선소방협회 74  
 조선수산회 74  
 조선신문사 74  
 조선신직회(神職會) 74  
 조선실업구락부 73  
 조선어업조합중앙회 74  
 조선용(趙善用) 381  
 조선일보사 73  
 조선일일신문사 73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13, 17, 18, 369, 370, 391, 392, 441, 444, 449, 455  
 조선자금지정단 74  
 조선자동차교통협회 74  
 조선잡사회 73  
 조선장로회총회 73  
 조선재무협회 74  
 조선전기협회 74  
 조선지적협회 73  
 조선철도협회 73  
 조선체신협회 73  
 조선체육협회 73  
 조선춘추회 74  
 조선토지개량협회 73  
 조선항공연맹 73  
 조선해사회(海事會) 73  
 조성구(趙星九) 414  
 조성용(趙成龍) 432  
 조성직(趙誠直) 418  
 조야규오(朝野奎悟) 435  
 조야청의(朝野晴義) 405  
 조약슬(趙若瑟) 419  
 조양환(曹陽煥) 504  
 조영희(趙永熙) 433, 440  
 조용남(趙龍楠) 426, 507  
 조용연(趙龍衍) 417  
 조인섭(趙寅燮) 377, 380, 396, 443  
 조재돈(趙在敦) 422  
 조재식(趙在軾) 422  
 조전영상(朝田永常) 410  
 조점환(趙占煥) 506  
 조정록(趙鼎錄) 412  
 조준호(趙俊鎬) 380, 395  
 조철환(曹哲煥) 425  
 조해영(趙海英) 424  
 조호기(趙湖基) 509  
 종도주상(宗島柱祥) 422  
 주간흠(朱幹欽) 429  
 주경묵(朱璟默) 433  
 주기용(朱琦鎔) 431  
 주덕흠(朱德欽) 504, 505  
 주두기(朱斗基) 504  
 주영심(朱英深) 503, 504, 505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松村耀翰) 22, 372, 377, 380, 388, 400, 443, 622, 623  
 주윤(朱潤) 406  
 주인규(朱仁奎) 503  
 주정순(朱貞順) 406  
 주중훈(朱鍾勳) 396  
 주진경(朱鎭璟) 505, 516  
 죽산일랑(竹山一郎) 423  
 죽성무웅(竹城武雄) 420  
 중본홍중(中本弘鍾) 406  
 중산창헌(中山昌憲) 416

중앙협화회 88  
 중촌창효(重村昌孝) 411  
 증산동운(甌山東雲) 434  
 지관일(池貫一) 510  
 지규설(池奎高) 509  
 지나사변(중일전쟁) 115, 116  
 지산우지(芝山又支) 421  
 지산정(芝山祺) 415  
 지태선(池泰善) 504  
 진병로(秦炳魯) 504, 505, 516  
 진보회(進步會) 259  
 진전흥일(津田興一) 408  
 진헌식(陳憲植) 399  
 진형국(陳炯國) 504, 505, 516, 520  
 징병제도 315, 321, 324

【\*】

차남진(車南鎭, 德山南鎭) 425, 439  
 차도순(車道舜) 503  
 차두환(車斗煥) 430  
 차사백(車士百) 18, 26, 478, 723, 731, 734, 735  
 차상찬(車相瓚) 401  
 차재정(車載貞) 21, 22, 380, 403, 570, 595, 600,  
 613, 617, 623, 639, 643  
 차준담(車濬潭, 車田濬潭) 408, 508  
 채권봉공대 377  
 채권소화운동 441, 442  
 채용묵(蔡容默) 432  
 채필근(蔡弼近, 佐川弼近) 427, 439  
 채학림(蔡鶴林) 434  
 천곡일실(川谷一實) 420  
 천곡정(天谷正) 437  
 천도교본부 74  
 천도교중앙협회 74  
 천독근(千篤根) 426

천리교 조선포교소 74  
 천림명도(川林明道) 429  
 천본석홍(天本錫洪) 407  
 천안등명(天安藤明) 407  
 천전대근(千田大根) 416  
 천전우영(天田宇英) 407  
 천주공교 경성교구 74  
 천진옥(千珍玉) 426  
 철도국우회(局友會) 연맹 74  
 청교형(靑橋亨) 396  
 청도금차랑(淸道金次郎) 404  
 청목정호(靑木貞浩) 427  
 청목중훈(靑木鍾勳) 436  
 청목현범(靑木賢範) 416  
 청산백수(靑山白樹) 369  
 청산의상(靑山義上) 423  
 청산정호(靑山正浩) 412  
 청산철(靑山哲) 402  
 청수구원(靑水久源) 418  
 청원격만(靑原格晩) 431  
 초내흥수(草內興洙) 406  
 초본연기(草本然基) 331  
 초천천일(初川天一) 416  
 최관호(崔觀鎬) 433  
 최광식(崔光植) 411  
 최규동(崔奎東) 381, 398, 438, 451  
 최규문(崔圭文) 506  
 최규봉(崔奎鳳) 427  
 최규창(崔圭昌) 506, 507  
 최궁희(崔巨熙) 442  
 최남(崔楠) 373, 380, 395  
 최남선(崔南善) 365, 379, 400, 639  
 최덕석(崔德錫) 508  
 최동(崔棟) 380, 398  
 최동선(崔東善) 414

- 최두선(崔斗善) 373, 381, 396, 431, 437, 450, 503  
 최린(崔麟, 佳山麟) 14, 16, 47, 199, 364, 368, 369, 373, 375, 377, 379, 382, 394, 436, 440, 441, 442, 445, 446, 447, 450, 455, 456, 478, 638, 689, 721, 723  
 최면재(崔冕載) 435  
 최명규(崔命圭) 410  
 최명석(崔命錫) 506  
 최명섭(崔明燮) 428  
 최문호(崔文鎬) 510  
 최병석(崔秉錫) 401  
 최병한(崔丙漢) 508  
 최봉칙(崔鳳則) 21, 503, 504, 513, 613, 615, 623, 625  
 최석준(崔錫俊) 434  
 최선익(崔善益) 397  
 최성면(崔性冕) 505  
 최순주(崔淳周) 503, 504  
 최승렬(崔承烈, 德山善彦) 365, 405, 439  
 최안국(崔安國) 431  
 최양호(崔養浩) 410  
 최여봉(崔汝鳳) 506  
 최연국(崔演國) 421  
 최열만(崔烈萬) 421  
 최영욱(崔永郁) 510  
 최운학(崔雲鶴) 434  
 최원섭(崔元燮) 377, 381, 404, 443  
 최원순(崔元淳) 426  
 최윤(崔潤) 418  
 최윤섭(崔允涉) 429  
 최은환 507  
 최응두(崔應斗) 427  
 최익한(崔益翰) 503  
 최재서(崔載瑞, 石田耕造) 400  
 최정묵(崔鼎默) 22, 427, 439  
 최정수(崔正洙) 427  
 최정희(崔貞熙) 377, 403, 439, 451, 458, 472, 478  
 최준용(崔駿鏞) 410  
 최준집(崔準集, 丸山隆準) 22, 365, 409  
 최지환(崔志煥, 富山隆盛) 420, 434, 509  
 최진(崔鎭) 404  
 최찬익(崔燦翊) 411  
 최창규(崔昌圭) 516  
 최창극(崔昌極) 435  
 최창열(崔昌烈) 436  
 최창조(崔昌朝) 429  
 최창학(崔昌學) 18, 377, 380, 430, 437, 443, 450, 689  
 최충근(崔狔根) 413  
 최태영(崔泰永) 399  
 최평산(崔平山) 426  
 최현배(崔鉉培) 503, 504, 508  
 최형직(崔馨稷) 411  
 최형호(崔瑩濤) 425  
 최호을(崔豪乙) 505  
 최희경(崔熙卿) 478  
 추곡고명(秋谷高明) 417  
 치형(治形)협회 75
- 【ㄱ】**  
 간규우 다다오(簡牛凡夫) 329, 330
- 【ㄴ】**  
 타구치(田口弼一) 689  
 타카야즈 히코(高安彦) 341
- 【ㅇ】**  
 팔굉일우(八紘一宇) 37, 209  
 팔목광치(八本光治) 418  
 평강동수(平岡東洙) 407

평문종구(平文鍾龜) 422  
 평문충용(平文忠勇) 424  
 평산익균(平山益均) 411  
 평산충일(平山忠一) 409  
 평산태수(平山泰洙) 424  
 평산학철(平山學澈) 436  
 평산현덕(平山鉉德) 411  
 평소수웅(平沼秀雄) 405  
 평소창호(平沼昶鎬) 410  
 평소헌(平沼憲) 428  
 평송의방(平松義邦) 410  
 평전문기(平田文基) 421  
 평천군오(平川君五) 407  
 평천덕일(平川德一) 410  
 평천종림(平川鍾林) 432  
 풍성수(豊城守) 415  
 풍원이상(豊原以尙) 405  
 풍원효근(豊原孝根) 428  
 풍전홍제(豊田弘濟) 433  
 풍천석모(楓川碩謨) 422

【ㅎ】

하기석(河麒錫) 421  
 하본상태(河本相台) 408  
 하본호룡(河本浩龍) 420  
 하야시(林繁藏) 220, 689  
 하야시다 시게오(林田茂雄) 505  
 하일우(河一宇) 421  
 하준기(河駿騏) 507  
 하준석(河駿錫) 203, 204, 421, 689  
 하타 시게카즈(波田重一) 329  
 하한석(河翰錫) 420  
 학천완(鶴川浣) 407, 439  
 한계룡(韓繼隆) 435  
 한국동(韓國東) 503, 504

한국형(韓國亨) 507  
 한국복(韓圭復, 井垣圭復) 24, 25, 365, 373, 377,  
 380, 405, 436, 443, 446, 723  
 한규진(韓圭晉) 430  
 한근조(韓根祖) 427  
 한동찬(韓東燦) 427  
 한림(韓林) 431, 440  
 한병락(韓丙洛) 432  
 한상건(韓相建) 20, 503, 504, 521  
 한상룡(韓相龍) 14, 18, 25, 359, 364, 373, 377,  
 379, 442, 450, 455, 456, 689, 721, 722, 723  
 한상억(韓相億) 380, 404  
 한상용(韓相龍) 47, 395, 436 445  
 한상호(韓相鎬) 507  
 한승린(韓承麟) 375  
 한신교(韓愼教) 407, 567  
 한양호(韓亮鎬) 399  
 한용운(韓龍雲) 381, 400  
 한육홍(韓六洪) 507  
 한익교(韓翼教) 380, 396, 438, 451  
 한장경(韓長庚) 432  
 한재덕(韓載德) 507, 516  
 한정석(韓定錫) 414  
 한중열(韓鍾烈) 410  
 한진희(韓軫熙) 398  
 한창동(韓昌東) 415  
 한학수(韓學洙) 380, 396  
 한형보(韓亨輔) 427  
 한희복(韓喜復) 450  
 함상훈(咸尙勳) 22, 372, 377, 380, 386, 400, 437,  
 451, 639, 689  
 함일로(咸一路) 421  
 함춘성(咸春星) 505  
 함풍민훤(咸豊敏煥) 408  
 함흥대화숙 546



향산청웅(香山淸雄) 412  
 향촌광남(香村光男) 429  
 허경인(許景仁) 505  
 허병수(許秉洙) 426  
 허원(許垣) 413  
 허을성(許乙星) 505  
 허의순(許義淳) 507, 516  
 허택(許澤) 380, 395  
 허하백(許河伯) 458, 466, 478  
 허헌(許憲) 380, 403, 438, 451  
 현상윤(玄相允) 18, 380, 398, 437, 450  
 현영섭(玄永燮) 23, 89, 621, 623  
 현제명(玄濟明) 20, 381, 402, 439, 451, 513, 516, 518, 521, 613, 615, 625  
 현준호(玄俊鎬) 360, 365, 424, 437, 451, 506, 522, 537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219, 222, 328  
 혼다 분에이(本多文映) 502, 503, 504  
 홍광의(洪光義) 413  
 홍난파(洪蘭坡, 洪永厚) 613, 615, 625  
 홍남표(洪南杓) 509  
 홍명희(洪命憲) 380, 400, 639  
 홍병선(洪秉璇) 380, 401  
 홍봉희(洪鳳喜) 414  
 홍세뢰(洪世雷) 378, 381, 396, 443  
 홍순영(洪淳永) 416, 566  
 홍순의(洪順義) 413  
 홍승원(洪承嫻) 18, 26, 403, 478, 723, 731, 734, 739, 748  
 홍승유(洪承裕) 503, 504  
 홍원식(洪元植) 414  
 홍원의명(洪原義明) 410  
 홍재경(洪在璟) 430  
 홍종화(洪鍾華) 434  
 홍증식(洪增植) 380, 403  
 홍창유(洪昶裕) 396  
 홍지업(洪致業) 429  
 홍해종철(洪海鍾轍) 424  
 화천중준(和泉鍾駿) 412  
 황관하(黃觀河) 429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169, 209, 386  
 황국정신 191, 68  
 황도문화 321  
 황도학회(皇道學會) 13, 22, 386, 650  
 황민연성 320  
 황본운부(黃本雲夫) 410  
 황생주(黃生周) 426  
 황수봉(黃洙鳳) 436  
 황순봉(黃舜鳳) 503, 504  
 황신덕(黃信德) 18, 381, 399, 439, 451  
 황운대(黃雲大) 504  
 황윤(黃潤) 510  
 황정헌(黃正憲) 401  
 황종국(黃鍾國, 中山富雄) 434, 510  
 황찬영(黃贊永) 427  
 황청송(黃淸頌) 380, 397  
 황태성(黃泰成) 435  
 황혜숙(黃慧淑) 343  
 황희찬(黃熙贊) 507  
 회산순주(檜山順柱) 421  
 횡산준장(橫山俊藏) 426  
 후지하라 가게키(富士原景樹) 506  
 후쿠모토(福本武能) 510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 18, 359, 363, 367, 368, 369  
 흥아봉공단(興亞奉公團) 360  
 흥아봉공일 59, 119, 120, 121  
 히도미(人見次郎) 220  
 히라누마(平沼林) 343  
 히사나가(久永麟一) 510